

2019

정책연구 2019-0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수요 분석 및 지역화 방안 연구

연구진 이종섭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0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분석 및 지역화 방안 연구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중 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송 용 호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정 흥 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광 혁 •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상 록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관리 코드 : 18JU3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II. 연구 방법 및 절차	9
1. 연구방법	9
2. 연구절차 및 과정	10
III.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15
1.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19
2.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비교	22
IV.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쟁점과 과제	31
1. 지역 간 복지 인프라 격차 심화	31
2. 복지시설의 중장기 발전전략 부재	36
V.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 동향 분석	43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3
2. 대규모 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인권친화적 운영	45
3.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와 다기능화	47
4. 사회복지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50
5. 상위계획 검토	51
VI. 전라북도 복지시설 유형별 수요분석	63
1. 아동복지시설 수요	63
2. 노인복지시설 수요	82
3. 장애인복지시설 수요	107
4. 기타복지시설(지역사회복지기관) 수요추정	124

VII. 전문가조사결과	133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33
2. 전라북도의 유형별 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134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변화와 제도적 보완	136
4.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개선방향	147
5. 복지시설의 통합 및 연계성	154
VIII.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	165
1.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165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170
IX. 요약 및 결론	181
참고문헌	185

■ 표목차 | Contents

〈표1-1〉 사회복지시설 추이	4
〈표1-2〉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협황	4
〈표2-1〉 사회복지 생활시설 공급량 예측 변수(안)	11
〈표3-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5
〈표3-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소관부서	16
〈표3-3〉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목적별 예산지원시설 유형	17
〈표3-4〉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정의	19
〈표3-5〉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추이	20
〈표3-6〉 전국-전북 시설 유형별 연도별 추이	22
〈표3-7〉 전국 시도별 복지시설 유형별 현황정리	23
〈표3-8〉 전국-전북 시설 유형별 생활자 연도별 추이	24
〈표3-9〉 전국 시도별 복지시설 생활자 인원 현황	25
〈표3-10〉 전국 시도별 복지시설 입소정원대비 생활자 총족율	26
〈표4-1〉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31
〈표4-2〉 전북 시군별 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32
〈표4-3〉 전북 시군별 복지시설 생활자 인원 현황 (단위: 명)	33
〈표4-4〉 전라북도 도민의 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n=1600)	34
〈표4-5〉 전북 시도별 복지시설 입소정원대비 생활자 총족율	36
〈표4-6〉 전라북도 지역별 복지수요자 지역분포	37
〈표4-7〉 전라북도 지역별 복지수급자 과다지역	39
〈표5-1〉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44
〈표5-2〉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46
〈표5-3〉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46
〈표5-4〉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48

〈표5-5〉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50
〈표5-6〉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52
〈표5-7〉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계속)	52
〈표5-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54
〈표5-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계속)	55
〈표5-1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56
〈표5-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57
〈표5-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계속)	58
〈표6-1〉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63
〈표6-2〉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수요집단 추이	64
〈표6-3〉 전라북도 빈곤아동 현황 및 추이	65
〈표6-4〉 전라북도 빈곤아동 현황 및 추이	66
〈표6-5〉 지역별 요보호아동 발생 추이	67
〈표6-6〉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발생율	67
〈표6-7〉 아동복지시설 정원 입소자 및 추이	68
〈표6-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현황 및 추이	68
〈표6-9〉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및 추이	69
〈표6-10〉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대상아동 인구추계	70
〈표6-11〉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대상아동연령 빈곤아동 추정	71
〈표6-12〉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추이	71
〈표6-13〉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추이	72
〈표6-14〉 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율 추이	72
〈표6-15〉 전라북도 아동가구의 아동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만족정도	73
〈표6-16〉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 및 이용만족도 정도	73
〈표6-17〉 부모없이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 및 혼자있는 시간	74
〈표6-18〉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 유형	74
〈표6-19〉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75
〈표6-20〉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 현황	75
〈표6-21〉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정원총족률 현황)	76
〈표6-22〉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현황	76

〈표6-23〉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발생 추정	77
〈표6-24〉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수요추정	78
〈표6-25〉 전라북도 공동생활가정	79
〈표6-26〉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추가 수요	80
〈표6-2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추가 수요	81
〈표6-28〉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주요 현황	81
〈표6-29〉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82
〈표6-30〉 노인인구 추이	84
〈표6-31〉 전라북도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85
〈표6-32〉 전라북도 빈곤노인 현황 및 추이	85
〈표6-33〉 전라북도 빈곤노인 비율 및 추이	86
〈표6-34〉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계	86
〈표6-35〉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계	87
〈표6-36〉 전라북도 빈곤 노인인구 추계	87
〈표6-37〉 전라북도 치매노인 현황	88
〈표6-38〉 치매노인 추정치 비교	89
〈표6-39〉 치매노인 유병율 추이	90
〈표6-40〉 전라북도 ALD 장애노인	90
〈표6-41〉 전라북도 IALD 장애노인	91
〈표6-42〉 장기요양신청자 현황	91
〈표6-43〉 장기요양신청자 각 등급별 현황	92
〈표6-44〉 전라북도 장기요양수급자 추이	92
〈표6-45〉 장기요양등급별 판정 현황(65세 이상)	93
〈표6-46〉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율	93
〈표6-47〉 전라북도 노인상태별 노인인구수 추정	96
〈표6-48〉 농촌지역 돌봄수요 추정	97
〈표6-49〉 전라북도 노인돌봄 사각지대 규모 추정	97
〈표6-50〉 노인복지시설 현황	98
〈표6-5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99
〈표6-52〉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99
〈표6-53〉 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상태별 현황	100

〈표6-54〉 장기요양수급자 주요질병 및 증상현황	100
〈표6-55〉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형태별 현황 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상태별 현황	101
〈표6-56〉 전라북도 재가복지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정원 현황	101
〈표6-57〉 전라북도 장기요양시설 필요시설 수 추정	102
〈표6-58〉 전라북도 노인양로시설 향후 필요시설 수	103
〈표6-59〉 전라북도 장기요양시설 필요시설 수 추정	104
〈표6-60〉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105
〈표6-61〉 전라북도 지역별 경로당 이용수요 및 필요시설수	106
〈표6-6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107
〈표6-63〉 장애인 출현율 및 등록률 추이	108
〈표6-64〉 장애인출현율 추이	108
〈표6-65〉 장애인구 및 출현율	109
〈표6-66〉 등록장애인 추이	109
〈표6-67〉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110
〈표6-68〉 등록장애인 구성비 추이	110
〈표6-69〉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및 추정수	111
〈표6-70〉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연도별 추이	111
〈표6-71〉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현황 및 추이	112
〈표6-72〉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현황 및 추이	113
〈표6-73〉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현황 및 추이	113
〈표6-74〉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114
〈표6-75〉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115
〈표6-76〉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115
〈표6-77〉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116
〈표6-78〉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116
〈표6-79〉 일상생활시 남의 도움 정도	117
〈표6-80〉 살고싶은 주거유형	117
〈표6-81〉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이용율	118
〈표6-82〉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이용희망율	118
〈표6-83〉 일상생활 도움필요 장애인 추정	119
〈표6-84〉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및 생활자 추이	120

〈표6-85〉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및 생활자 추이	121
〈표6-86〉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시설 수	122
〈표6-87〉 전라북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필요시설 수	123
〈표6-88〉 전라북도 인구 현황 및 추이	124
〈표6-89〉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125
〈표6-90〉 전라북도 빈곤인구 비율 및 추이	125
〈표6-91〉 전라북도 인구 현황 및 추이	126
〈표6-92〉 전라북도 빈곤인구 추계	126
〈표6-93〉 주요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산출식	127
〈표6-94〉 주요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분석결과	128
〈표6-95〉 전라북도 시군별 주요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분석결과	129
〈표7-1〉 응답자 일반적 특성	133
〈표7-2〉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134
〈표7-3〉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134
〈표7-4〉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135
〈표7-5〉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135
〈표7-6〉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1	136
〈표7-7〉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2	136
〈표7-8〉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3	137
〈표7-9〉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4	137
〈표7-10〉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5	138
〈표7-11〉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6	138
〈표7-12〉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7	139
〈표7-13〉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8	139
〈표7-14〉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9	140
〈표7-15〉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1	140
〈표7-16〉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2	141
〈표7-17〉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3	141
〈표7-18〉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4	142
〈표7-19〉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5	142

〈표7-20〉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6	143
〈표7-21〉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7	143
〈표7-22〉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8	144
〈표7-23〉 향후 감소할 것 같은 시설	144
〈표7-24〉 향후 증가할 것 같은 시설	145
〈표7-25〉 복지시설 이용자 수 변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치	145
〈표7-26〉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1	147
〈표7-27〉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2	147
〈표7-28〉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3	148
〈표7-29〉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4	148
〈표7-30〉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5	149
〈표7-31〉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6	149
〈표7-32〉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1	150
〈표7-33〉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2	150
〈표7-34〉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3	151
〈표7-35〉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4	151
〈표7-36〉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5	152
〈표7-37〉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6	152
〈표7-38〉 복지수요 고려 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시설	153
〈표7-39〉 사회복지시설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	153
〈표7-40〉 아동양육(보호)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4
〈표7-41〉 아동상담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4
〈표7-42〉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5
〈표7-43〉 장애인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5
〈표7-44〉 장애인그룹홈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6
〈표7-45〉 장애인복지관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6
〈표7-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157
〈표7-47〉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1	157
〈표7-48〉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2	158
〈표7-49〉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3	158
〈표7-50〉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4	159

〈표7-51〉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5	159
〈표7-52〉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6	160
〈표7-53〉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7	160
〈표7-54〉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8	161
〈표7-55〉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9	161
〈표8-1〉 복지시설의 유형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	167
〈표8-2〉 아동양육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한 시설의 유형	170
〈표8-3〉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정원충족률 현황)	172
〈표8-4〉 장애인 거주시설 조정 방안	177
〈표8-5〉 장애인 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한 시설	177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2-1〉 연구방법 및 과정	9
〈그림2-2〉 연구절차 및 과정	10
〈그림3-1〉 전라북도-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비교	27
〈그림4-1〉 사례관리	35
〈그림4-2〉 빈곤위기가정지원	35
〈그림4-3〉 건강지원	35
〈그림4-4〉 지역조직화	35
〈그림4-5〉 가족기능강화	35
〈그림4-6〉 돌봄지원	35
〈그림4-7〉 교육문화	35
〈그림4-8〉 지역사회보호	35
〈그림4-9〉 장애인재가복지	35
〈그림4-10〉 사회참여지원	35
〈그림4-11〉 경로당지원	35
〈그림4-12〉 제공서비스 전체	35
〈그림4-13〉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거주지역	38
〈그림4-14〉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급자 구성비	38
〈그림6-1〉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 추이	69
〈그림6-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돌봄수요아동 계층별 현황 추정	80
〈그림6-3〉 전라북도 노인인구 특성별 추정인구	94
〈그림6-4〉 노인상태별 노인복지시설 추정기준	95
〈그림6-5〉 전라북도 노인상태별 노인인구수 추정	96
〈그림6-6〉 전라북도 장애인돌봄시설 수요	119
〈그림6-7〉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자 추이	121
〈그림6-8〉 사회복지이용시설 수요-공급격차에 따른 적정성 평가	128

〈그림8-1〉 지역별 민간복지시설의 구성(안)	165
〈그림8-2〉 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복합화 방안	166
〈그림8-3〉 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복합화 방안	167
〈그림8-4〉 현재 민간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형태	168
〈그림8-5〉 민간 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변경(안)	169
〈그림8-6〉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개편 방안	171
〈그림8-7〉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선방향	173
〈그림8-8〉 경로당 시설 개선 방향 및 목표	173
〈그림8-9〉 경로당(마을회관) 운영계획	174
〈그림8-10〉 경로당 운영형태 개선방안	174
〈그림8-1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안)	175
〈그림8-12〉 장애인 거주시설 수요공급 조정 방안	176
〈그림8-13〉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정원 기준 개선방향	176

1

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시설로서 국가의 복지정책과 세부 복지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2018년 말 기준 생활시설은 총 9,148개소, 이용시설은 12,7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시설도 약 1,79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3년도 기준으로 총 21,024개소에서 2018년도 23,641개소로 약 2,617개소(12.4%p)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생활시설은 같은 기간 약 1,362개소 증가하였고, 이용시설은 1,448개소 증가하였다. 증감율로 보면,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와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2018년 기준 생활시설이 약 21.9만명, 이용시설이 약 2.0명이고 종사자도 2018년 말 기준 생활시설이 약 13.6만명 그리고 이용시설이 8.3만명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거주자는 2013년 1.7만명에서 2018년 21.9만명으로 약 4.4만명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이용시설의 이용자도 3.9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의 동향이 생활시설은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규모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추가로 확대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형태를 다각화하여 복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공법인의 설립을 통해 직영 혹은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취약한 공공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서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시설의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정규모로 설치되

어 있는 지에 대한 현황 분석이 시설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표1-1〉 사회복지시설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수)	증감(율)
시설 수	생활시설	7,786	8,048	8,083	8,705	8,389	9,148	1,362 17.49
	이용시설	11,255	11,379	12,454	12,258	12,981	12,703	1,448 12.87
	기타시설	1,983	2,181	1,679	1,729	1,730	1,790	-193 -9.73
	합계	21,024	21,608	22,216	22,692	23,100	23,641	2,617 12.45
이용 자수	생활시설	174591	183097	194005	203219	206673	218,721	44,130 25.28
	이용시설	16033	16830	18543	18044	22344	19,944	3,911 24.39
	기타시설	999	1363	877	857	847	832	-167 -16.72
	합계	191,623	201,290	213,425	222,120	229,864	239,497	47,874 24.98
종사 자수	생활시설	93388	103009	112072	121466	127482	136,608	43,220 46.28
	이용시설	51472	54870	62389	65724	75404	82,812	31,340 60.89
	기타시설	2835	3562	1736	1836	2106	2,641	-194 -6.84
	합계	147,695	161,441	176,197	189,026	204,992	222,061	74,366 50.35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 복지시설 현황 재정리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 말 기준 인구천명당 17.85개소로 전국 평균인 13.49개소보다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표1-2〉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구분	사회복지시설 (인구십만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구천명당)				영유아복지시설 (인구천명당)				복지시설 종사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12.42	13.07	13.49	14.15	7.18	6.86	6.59	6.31	19.07	18.76	18.64	15.67	515,678	618,649	550,179
서울	7.49	7.56	7.67	7.96	2.13	2.04	1.98	1.90	16.78	16.75	16.91	14.51	84,022	96,169	89,302
부산	5.75	5.80	5.83	5.72	3.30	3.19	3.06	2.95	14.52	14.60	14.67	12.59	25,160	30,736	26,363
대구	13.99	14.28	14.71	14.65	3.40	3.25	3.12	3.00	15.51	15.19	14.95	12.62	22,011	26,772	23,159
인천	12.19	14.54	16.17	16.79	3.47	3.26	3.09	2.91	16.92	16.89	17.11	14.52	28,180	32,762	29,615
광주	10.39	10.84	10.94	10.35	5.96	5.72	5.46	5.25	17.98	18.59	18.94	16.21	18,026	23,960	18,122
대전	9.92	10.71	11.06	11.42	3.56	3.39	3.20	3.07	23.11	23.55	23.22	19.29	16,628	21,463	17,818
울산	6.92	6.26	6.82	7.42	5.20	4.91	4.67	4.39	16.06	15.85	15.55	13.26	10,015	11,475	10,475
세종	26.20	20.50	15.65	8.64	15.00	13.75	12.95	11.73	16.28	14.67	14.67	12.26	132,148	3,045	3,292
경기	13.37	14.22	14.65	16.59	5.26	4.95	4.67	4.42	21.57	20.84	20.26	16.75	18,403	152,425	144,331
강원	23.86	25.58	26.52	27.34	8.92	8.59	8.34	8.01	20.97	20.98	20.99	17.51	18,846	23,526	20,543
충북	22.70	23.05	23.55	24.50	12.98	12.46	11.96	11.43	17.23	17.60	17.75	14.96	24,399	23,365	19,852
충남	17.19	18.81	19.30	19.70	12.94	12.45	12.04	11.62	20.92	20.46	20.77	17.40	22,113	31,368	26,288
전북	17.35	17.85	17.54	17.96	15.44	14.94	14.57	14.16	21.06	21.24	21.37	17.71	21,671	28,088	22,986
전남	20.66	22.09	22.94	23.37	17.88	17.54	17.26	16.83	15.75	15.86	16.61	14.26	28,149	29,311	23,033
경북	15.60	16.59	17.80	18.07	12.43	12.05	11.68	11.35	19.48	18.85	19.10	16.25	34,214	33,514	30,241
경남	9.69	9.88	9.75	9.78	11.68	11.18	10.71	10.21	22.21	21.36	20.83	17.39	9,266	39,708	34,959
제주	15.66	15.64	15.86	15.27	3.92	3.78	3.66	3.52	20.02	18.93	17.85	14.38	2,427	10,962	9,800

자료 : 통계청(2016) 자료지표

물론 전라북도는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기준 복지시설은 2013년 이후 17개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7년 말 기준 14.16개소로 전국 평균인 6.31개소보다도 약 두배 이상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역시 인구천명당 17.71개소로 전국 평균인 15.67개소보다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은 인구기준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생활시설의 경우는 원주, 익산 등의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적정규모를 파악하여 시설운영의 중장기적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복지시설의 적정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을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복지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다변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시설이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변화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화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동향도 민간 복지시설이 운영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 최근 정부에서는 복지시설의 과도한 민간위탁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강화를 중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일부가 직영으로 전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법인 설립을 통한 복지시설의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근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춰

1) 2017년 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59,536개소 중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91.2%에 달한다. 사회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일자리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 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2017년 7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재가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67억 6,8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전라북도 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도농간 복지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한 전라북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촘촘한 복지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여 향후 필요한 공급량을 설정하고民間 복지시설의 계획적인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民間 복지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시설의 적정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정책동향에 조응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및 과정

II.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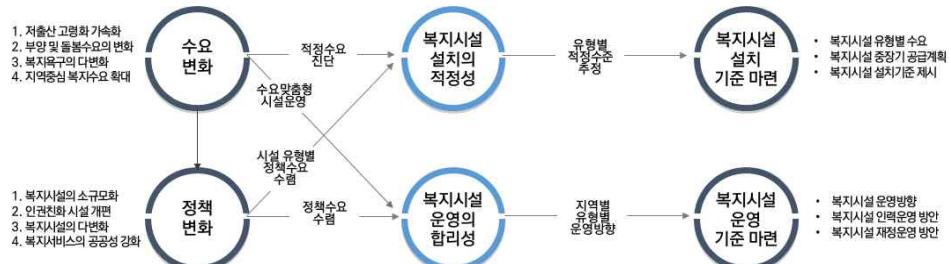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공급량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에 대한 진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의 복지시설의 적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복지시설의 합리적 설치기준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헌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각각의 시설형태별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역내에서의 연계 조정의 강화 그리고 운영방식에서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탈시설화를 통한 소규모 시설의 전환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정책 동향이 이번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설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수요 관련 원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주요인구집단별 수요에 기초하여 복지시설의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인생활실태조사(2017), 장애인실태조사(2017) 등의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2-1〉 연구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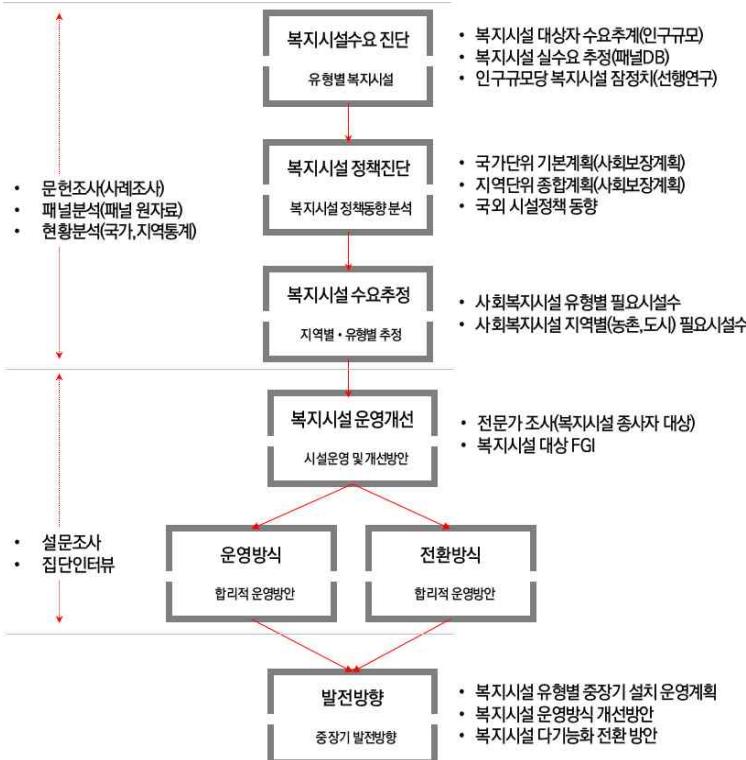


또한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의 공급과 수요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의 인식을 위해 전라북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식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및 과정

본 연구는 인구규모와 각종 원자료 분석을 통해서 복지시설의 수요를 진단하고 이후 복지시설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분석하여 향후 전라북도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적정규모에 따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그리고 전라북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수요 및 공급분석의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2-2〉 연구절차 및 과정



한편, 사회복지시설 중 중앙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설치와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중단기 공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유형별로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술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로 복지시설의 적정규모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를 도출하고 각각의 변수의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책연구 기관 그리고 전라북도의 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표2-1〉 사회복지 생활시설 공급량 예측 변수(안)

구분	공급량 결정 예측 변수	자료원	
생활 시설	노인복지시설 전체 노인인구, 일상생활수행능력정도(ADL / IADL), 치매유병률, 수발자 존 재유무, 입소희망률	노인생활실태조사 Raw data(2017) 전북복지실태조사 (2018)	
	이동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이동수(요보호이동수), 보호자 존재 유무, 소득계층, 아동복 지시설 입소 희망률, 아동빈곤율	아동청소년패널(2017) 전북복지실태조사 (2018)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장애인인구, 중증 혹은 경증장애인 인구, 수발자 존재유무,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복지시설 입소 희망률, 거주공간 존재유무	Raw data (2016)	
종합사회복지관	인구 10만명 기준(주택건설촉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 계획), 인구 15만명기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관 이용 희망률	전북복지실태조사(2018)	
이용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인구 12,000명당 1개소(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노인복 지관 이용 희망률	노인생활실태조사 Raw data(2017)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인구 1만명당 1개소 설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1조 별표 4, 장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관 이용 희망률	Raw data (2016)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인구수, 주단 및 단기보호시설 입소희망률, 수발자가 없는 장애 인 수 구직희망장애인 비율, 직업재활시설 이용 희망장애인 수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2016)
	노인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SCI노인인구 비율, MCI노인인구비율, ADL 및 IADL 장애노인인구 비율	장애인실태조사 Raw data (2016)
	지역아동센터	나홀로 아동 비율, 빈곤아동 비율	아동청소년패널(2017) or 전북복지실태조사 (2018)
기타 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발생건수, 가정폭력 피해자신고건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발생건수, 성폭력 피해자 신고건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률	필요시 인구기준 및 이용희망 기준으로 산출	
주 : 기타시설은 대부분 복지대상자의 수요보다는 시군단위의 인구규모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필요시 향후 공급필요 수 산출	이혼가정 수, 한부모가족 평균 양육이동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률		

3

장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
1.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2.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비교

III.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동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별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3-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돌봄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돌봄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에 향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자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으로자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사보호시설 · 노숙인문서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기족복지시설 · 부자기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기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기족지원센터 	「다문화기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자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표3-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소관부서

대상자	형태	시설종류	중앙정부 소관부서	전라북도 소관부서
노인	생활	주거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학대노인 전용쉼터		노인정책과 노인장애인 복지과
		재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등)	요양보험운영과
	이용	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기관		노인지원과
		이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동일시보호시설		
		이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정책과
		지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 쉼터)		여성청소년과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거주시설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보이관	장애인권익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수회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노인장애인 복지과
	이용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상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사회복지과
		정신질환자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노숙인 등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 자립지원과 료시설, 족병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보건의료과 사회복지과
기타시설	이용	지역주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
	복합	결핵 및 한센사설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과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사회복지과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재구성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각각의 대상별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범주화할 수 있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가량,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시설로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재가복지시설과 여가복지

시설 그리고 학대노인의 보호와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일자리 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도 생활시설로서 장애유형별로 거주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표3-3〉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목적별 예산지원시설 유형

보조사업명	보조사업 목적 내용	시설유형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 운영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양로시설의 시설운영비 지원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32조)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주거복지시설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시설운영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기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재활시설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의 확충지원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자립지원 도모하기 위한 시설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료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역 사회 정착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료 거주시설
자활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측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복지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 증진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한센병 환자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한센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재활을 도모하여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 활동을 지원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와 예방적 조치를 위한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요보아이동 그룹홈 운영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그룹홈에서 성장 지원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로부 터 분리 보호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및 돌봄지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학대행위 및 지원 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근로반기증 지원·능력강화 및 텔레미디어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주무과인 사회복지과를 소관부서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등이 관련시설의 설치신고와 지도점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유형별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별법령에서는 각 시설의 설치목적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표3-4〉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정의

범주	형태	유형	내 용
아동 청소년 시설	생활/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을 대신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생활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서비스 제공 시설(쉼터, 자립지원관 등)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생활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복지 시설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방문온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안구보사과·노인화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
	생활/이용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시설
	이용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지원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직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직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빙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이용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통원으로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시설	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하는 시설
	이용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의 진료 목적으로 설치한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기관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기주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 훈련시설
	생활/이용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용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여성 다문화 복지 시설	생활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기족, 부자기족, 미혼모자기족이 인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
	생활/이용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및 의료법률 지원
	이용시설	여성능력기반시설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생활/이용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일시보호를 통해 사회와 가정으로 정상적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생활/이용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수식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시설	통합상담소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예방교육 활동·홍보
	이용시설	가족복지시설	가족이 어떤 곤경이나 위기에 직면하여 있을 때 그 가족 생활을 보다 강화하고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이용시설	다문화기족 지원시설	다문화기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기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생활/이용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대상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생활/이용	일반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
	이용시설	자활시설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생활시설	결핵한세사설	무의탁 한세·결핵전염병예방법 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타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크게 아동청소년시설, 노인시설,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다문화시설, 기타 시설로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따른 시설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 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시설 유형분류에 따라 복지시설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해 보면, 우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시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복지시설은 2013년 21,024개소에서 2018년 23,641개소로 연평균 2.4%p 증가하였다.

〈표3-5〉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합계	21,024	21,608	22,216	22,692	23,100	23,641	2.4
아동	5,020	5,008	5,049	5,088	5,119	5,171	0.6
청소년	1	2	5	14	24	115	158.3
노인	466	466	459	450	431	412	-2.4
노인주거복지시설	4,786	4,981	5,178	5,292	5,402	5,417	2.5
노인여가복지시설	1,543	1,594	1,677	1,714	1,719	1,768	2.8
자기노인복지시설	1,921	1,944	1,991	2,071	2,156	2,310	3.8
노인보호전문기관	22	26	28	29	30	36	10.4
복합노인복지시설	19	18	17	17	17	15	-4.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0	65	99	121	136	159	19.6
장애인	665	743	827	1,306	1,475	1,566	18.7
장애인자활시설	2,087	2,147	2,216	1,821	1,728	1,671	-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29	554	575	598	640	677	5.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2	2	6	13	19	56.9
장애인상산품판매시설	20	21	21	21	21	22	1.9
정신요양시설	60	60	60	60	60	59	-0.3
정신재활시설	330	346	354	357	361	371	2.4
여성	128	129	132	132	131	132	0.6
가족	91	92	92	95	96	97	1.3
성폭력피해	205	225	238	251	268	279	6.4
보호시설	386	397	401	402	407	404	0.9
기장폭력피해보호시설	15	16	21	20	21	33	17.1
기족복지시설	1	1	1	1	0	0	-100.0
다문화가족복지시설	219	219	219	224	222	225	0.5
기타	160	164	160	155	151	149	-1.4
노숙인복지시설	430	432	448	456	469	471	1.8
일반사회복지시설	261	265	266	268	264	262	0.1
지활시설	8	9	9	10	10	10	4.6
결핵한센시설	1,649	1,682	1,671	1,713	1,729	1,791	.7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각연도) 재구성

시설의 유형별로 증가추세를 보면, 청소년 복지시설이 같은 기간 연평균 158.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가족복지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복합노인복지시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복지시설에서 설치 개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는 시설은 경로당이 포함된 노인여가시설로서 약 5.4천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이 약 5.1천개소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비교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적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별로 복지시설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6〉 전국-전북 시설 유형별 연도별 추이 (단위: 개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율
	전국	전북											
합계	21,024	1,169	21,608	1,186	22,216	1,190	22,692	1,220	23,100	1,222	23,641	1,234	2.4 1.1
아동복지시설	5,020	361	5,008	357	5,049	352	5,088	356	5,119	349	5,171	352	0.6 -0.5
청소년복지시설	1	0	2	0	5	0	14	0	24	1	115	1	158.3 0.0
노인주거복지시설	466	24	466	22	459	21	450	22	431	21	412	19	-2.4 -4.6
노인의료복지시설	4,786	228	4,981	230	5,178	224	5,292	235	5,402	238	5,417	233	2.5 0.4
노인여가복지시설	1,543	63	1,594	67	1,677	75	1,714	85	1,719	89	1,768	88	2.8 6.9
제3노인복지시설	1,921	123	1,944	133	1,991	136	2,071	135	2,156	133	2,310	147	3.8 3.6
노인보호전문기관	22	1	26	2	28	2	29	2	30	2	36	2	10.4 14.9
복합노인복지시설	19	0	18	0	17	0	17	0	17	0	15	0	-4.6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0	0	65	11	99	13	121	13	136	13	159	14	19.6 4.9
장애인거주시설	665	53	743	52	827	53	1,306	62	1,475	66	1,566	73	18.7 6.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87	96	2,147	95	2,216	99	1,821	93	1,728	93	1,671	89	-4.3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29	19	554	19	575	21	598	21	640	22	677	21	5.1 2.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0	2	0	2	0	6	0	13	0	19	0	56.9 -
장애인식당식품판매시설	20	1	21	1	21	1	21	1	21	1	22	1	1.9 0.0
정신요양시설	60	4	60	4	60	4	60	4	60	4	59	4	-0.3 0.0
정신재활시설	330	23	346	23	354	23	357	23	361	21	371	21	2.4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8	9	129	7	132	7	132	7	131	7	132	7	0.6 -4.9
성매매피해지원시설	91	3	92	3	92	3	95	3	96	3	97	3	1.3 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05	18	225	16	238	17	251	17	268	17	279	18	6.4 0.0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386	21	397	20	401	19	402	19	407	19	404	20	0.9 -1.0
통합상담소	15	0	16	0	21	1	20	1	21	1	33	1	17.1 0.0
가족복지시설	1	1	1	1	1	1	1	1	0	0	0	0	-100.0 -100.0
다문화가족복지시설	219	14	219	13	219	13	224	13	222	14	225	15	0.5 1.4
노숙인복지시설	160	5	164	5	160	5	155	5	151	5	149	5	-1.4 0.0
임대사회복지시설	430	17	432	17	448	17	456	17	469	17	471	17	1.8 0.0
자활시설	261	23	265	23	266	23	268	23	264	23	262	22	0.1 -0.9
결핵증섐시설	8	0	9	0	9	0	10	0	10	0	10	0	4.6 -
기타복지시설	1,649	62	1,682	65	1,671	60	1,713	62	1,729	63	1,791	61	1.7 -0.3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장애인거주시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에 반해 노인여가시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3-7〉 전국 시도별 복지시설 유형별 현황정리 (2018.12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596	1,232	983	1,118	974	741	412	90	5,254	1,181	982	1,178	1,234	1,497	1,499	1,315	355
아동복지시설	592	264	241	216	363	180	72	17	983	212	237	286	352	446	310	318	82
청소년 복지시설	3	7	7	10	5	6	5	0	30	7	6	5	1	5	6	6	6
노인주거 복지시설	28	7	6	24	3	8	2	4	135	32	38	24	19	28	35	17	2
노인의료 복지시설	528	113	246	374	96	126	47	11	1,725	311	292	305	233	311	391	243	65
노인여가 복지시설	442	205	47	63	48	16	40	9	250	71	30	87	88	99	128	111	34
재가노인 복지시설	515	120	98	85	139	82	27	6	403	107	62	80	147	179	111	125	24
노인보호 전문기관	4	2	3	2	1	1	1	0	3	4	2	1	2	3	4	1	2
봉준노인 복지시설	1	1	0	5	0	1	0	0	2	1	0	0	0	1	3	0	0
노인자리 지원기관	10	16	6	12	5	4	5	1	18	16	11	13	14	7	14	5	2
장애인 거주시설	287	74	52	73	82	75	25	4	319	70	86	60	73	67	91	96	3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39	91	62	58	52	70	47	10	336	71	68	68	89	92	138	141	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5	40	44	34	24	25	14	5	123	36	23	21	21	21	45	56	1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6	1	1	2	0	1	0	0	0	1	1	1	0	1	1	2	1
장애인미생산품 판매시설	2	1	1	2	1	1	1	1	1	2	3	1	1	1	1	1	1
정신요양시설	3	3	3	2	4	4	1	1	6	0	4	10	4	4	5	4	1
정신재활시설	122	13	17	12	12	29	2	4	63	6	12	24	21	5	21	4	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8	11	9	10	6	7	4	0	12	4	4	5	7	6	8	6	5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23	10	6	3	5	4	2	0	12	2	2	4	3	7	3	8	3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44	5	10	8	18	10	9	1	54	6	11	23	18	17	17	21	7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80	15	16	12	18	10	8	0	83	14	12	28	20	24	33	23	8
통합복지단소	2	5	3	1	2	2	1	1	4	3	2	2	1	0	4	0	0
가족복지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24	9	8	9	4	5	5	2	31	18	12	15	15	21	24	21	2
노숙인 복지시설	50	13	10	8	2	8	1	1	22	7	4	1	5	6	4	4	3
일반사회 복지시설	99	54	27	19	18	21	9	2	84	19	13	20	17	15	14	30	10
자활시설	32	18	10	11	9	5	5	3	33	18	12	14	22	24	21	21	4
결핵환센시설	1	0	1	0	0	0	0	0	2	0	0	0	0	3	2	1	0
기타복지시설	296	134	49	63	57	40	79	7	520	143	35	80	61	104	65	50	8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표3-8〉 전국·전북 시설 유형별 생활자 연도별 추이

구분	연평균증감율												(단위: 개소,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전북												
합계	191,623	12,866	201,290	12,769	213,425	13,213	222,120	13,382	229,864	13,620	239,497	13,918	4.6 1.6	
아동복지시설	18,777	1,089	18,164	1,087	17,585	1,049	17,359	1,075	16,509	1,024	15,904	1,013	-3.3 -1.4	
노인주거복지시설	6,751	471	6,801	463	7,870	462	8,172	498	8,033	480	7,956	453	3.3 -0.8	
노인의료복지시설	97,293	5,757	106,404	5,768	117,060	5,927	125,291	6,155	132,949	6,349	142,009	6,559	7.9 2.6	
재가노인복지시설	5,424	2,027	5,764	1,929	6,871	2,317	7,219	2,307	8,078	2,321	9,214	2,380	11.2 3.3	
장애인거주시설	26,834	1,838	27,211	1,818	27,138	1,737	28,873	1,702	29,495	1,708	29,374	1,717	1.8 -1.4	
정신요양시설	10,907	774	10,609	753	10,363	754	10,113	739	9,618	728	9,399	725	-2.9 -1.3	
정신재활시설	1,991	209	2,131	207	2,285	237	2,333	225	2,256	226	2,219	224	2.2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675	276	3,681	281	3,442	262	3,285	242	3,133	211	3,037	199	-3.7 -6.3	
성매매피해지원시설	485	9	493	15	475	9	451	11	413	10	427	9	-2.5 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42	22	293	18	323	15	328	18	295	16	296	19	4.1 -2.9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1,384	73	1,504	95	1,348	86	1,220	79	1,173	60	1,182	76	-3.1 0.8	
노숙인복지시설	9,144	213	8,934	216	8,450	221	8,126	218	7,925	216	7,821	226	-3.1 1.2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한편, 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생활자 추이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자는 저출산과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자 감소는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한부모복지시설도 생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정부정책상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탈시설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생활자의 감소는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활자의 감소폭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와 전국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자는 전북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전국 평균 생활자 수의 증가율이 전북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생활자는 주로 예산의 지원대상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어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생활자의 증가폭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생활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특히, 자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노숙인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는 생활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도 차이점이다.

〈표3-9〉 전국 시도별 복지시설 생활자 인원 현황 (2018.12 기준,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6,349	10,760	11,871	13,900	6,035	9,115	3,220	989	56,277	12,042	12,253	13,084	13,918	12,946	17,112	14,747	4,879
아동복지시설	2,962	1,199	830	662	744	594	169	32	2,072	637	678	836	1,013	1,393	787	995	301
노인주거 복지시설	366	559	265	713	111	125	55	59	2,278	460	416	219	453	587	759	454	77
노인의료 복지시설	12,438	4,929	6,910	9,889	2,526	4,493	1,483	397	38,694	8,493	7,181	8,169	6,559	7,580	10,561	8,489	3,218
재가노인 복지시설	1,884	88	24	229	18	737	50	7	1,657	316	149	354	2,380	335	295	681	10
장애인 거주시설	3,395	1,368	1,514	1,048	967	1,210	648	158	5,967	1,496	1,856	1,727	1,717	1,305	2,506	1,921	571
정신요양시설	427	528	341	216	574	558	113	144	1,343	0	781	1,187	725	765	857	674	166
정신재활시설	474	120	109	44	34	255	0	25	259	34	139	265	224	43	144	42	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578	315	363	222	165	156	68	0	165	52	58	90	199	102	245	183	76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107	83	28	6	27	20	5	0	21	6	4	15	9	19	12	60	5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17	24	9	9	15	24	9	0	47	7	21	15	19	22	26	20	12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225	65	49	8	66	28	14	0	191	51	69	64	76	80	57	94	45
노숙인 복지시설	1,967	640	883	579	136	255	0	101	700	259	704	22	226	476	298	440	135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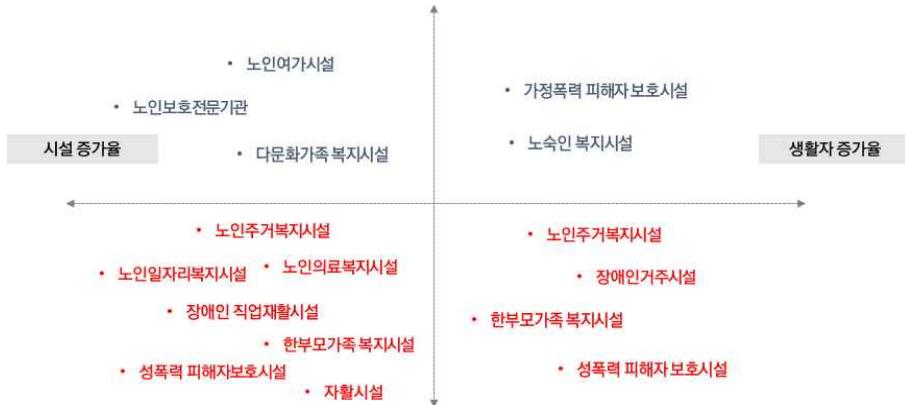
한편, 지역별로 복지시설의 생활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라북도는 절대수를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생활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정원총족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80%미만의 낮은 총족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은 50%내외의 낮은 총족율을 보이고 있다.

〈표3-10〉 전국 시도별 복지시설 입소정원대비 생활자 충족율 (2018.12 기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6.6	17.9	32.9	34.6	12.0	41.1	16.6	30.7	26.9	31.1	36.4	27.6	27.1	23.4	21.5	29.8	37.3
아동복지시설	16.1	16.7	12.4	11.0	7.7	11.5	9.1	7.2	7.6	11.3	10.3	10.3	11.2	11.2	8.9	11.0	13.2
노인주거 복지시설	9.8	82.4	56.0	77.8	63.1	44.3	48.2	19.9	29.5	54.2	55.0	33.0	28.1	65.4	53.5	38.2	85.6
노인의료 복지시설	78.9	79.6	90.1	76.8	72.8	79.4	85.5	75.8	69.7	86.6	78.5	82.1	83.1	82.9	77.0	81.7	88.7
재가노인 복지시설	19.2	3.4	1.0	15.9	0.8	43.0	6.3	3.5	16.1	13.2	10.1	12.1	49.0	9.7	8.8	20.3	3.0
장애인 거주시설	73.2	83.5	81.0	78.7	87.0	88.8	90.3	93.5	84.5	89.0	84.1	86.3	84.0	78.8	87.6	90.2	92.7
정신오양시설	58.5	73.3	51.1	67.1	87.6	66.9	75.3	92.9	72.7		81.6	73.1	83.2	70.3	64.4	70.0	66.4
정신재활시설	21.7	38.8	25.3	20.2	16.4	57.0	0.0	58.1	33.5	54.0	49.8	74.0	73.7	63.2	36.6	46.7	6.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82.7	60.6	77.1	65.7	88.7	95.1	98.6		64.5	41.9	156.8	47.4	52.0	39.1	76.3	71.5	46.6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82.9	86.5	63.6	60.0	57.4	66.7	45.5		39.6	75.0	28.6	60.0	52.9	82.6	60.0	82.2	50.0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21.3	85.7	9.8	90.0	15.0	27.3	90.0		23.9	70.0	31.8	75.0	3.6	13.9	13.5	90.9	60.0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52.3	67.7	29.0	50.0	50.0	27.7	20.6		47.9	44.3	53.9	71.9	58.5	37.7	22.7	56.0	84.9
노숙인 복지시설	38.7	81.3	60.0	134.7	90.7	89.2	0.0	89.4	69.3	81.4	76.6	78.6	88.6	76.2	75.1	77.9	69.2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그림3-1〉 전라북도-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비교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여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의 설치는 전국평균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일자리 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설치개수에 있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자의 증가율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생활자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라북도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생활자는 전국 평균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각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 적정기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설의 설치에 대한 타시도의 정책 동향에 조응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시설도 추가설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쟁점과 과제

-
1. 지역 간 복지인프라 격차 심화
 2. 복지시설의 중장기 발전전략 부재

IV.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쟁점과 과제

1. 지역 간 복지 인프라 격차 심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개수는 절대적 기준치에서 보면, 전라북도 총 인구기준으로 부족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별로는 복지시설의 설치 개수에 있어 다소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전라북도는 복지수요가 높은 농촌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농간 복지시설의 불균형이 다소 심한 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복지시설은 진안 및 김제 등의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영유아 보육시설은 전주, 남원, 김제, 익산 등의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설치 개수가 많은 편이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안, 장수, 무주 등의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지역간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가령, 사회복지시설은 인구십만명 기준으로 최소 9.06개소(전주)에서 최대 34.52개소(진안)로 약 4배정도의 차이가 나고 보육시설도 최소 8.50개소(진안)에서 최대 21.29개소(남원)로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표4-1〉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구분	사회복지(인구십만명)				영유아(인구천명)			노인(인구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주시	9.69	10.11	9.51	9.05	24.88	24.78	24.2	19.84	5.6	5.38	5.18	4.99
군산시	13.65	14.38	13.29	15.13	17.5	17.77	19.02	16.38	8.9	8.67	8.46	8.2
익산시	20.55	21.7	21.85	22.63	20.89	21.67	21.33	17.3	10.93	10.56	10.32	9.98
정읍시	21.97	22.19	20.69	20.84	23.92	22.96	22.12	18.61	20.13	19.59	19.36	19.03
남원시	23.13	21.02	21.21	21.38	23.87	24.65	25.93	21.28	19.07	18.58	18.23	18.02
김제시	26.31	29.96	31.56	33.04	22.07	21.55	22.48	17.82	20.24	20.03	19.67	19.31
완주군	29.89	28.77	26.23	27.23	16.08	16.42	17.53	14.58	18.86	18.13	17.55	16.92
진안군	33.7	41.55	41.98	34.52	8.18	8.75	9.71	8.5	33.43	32.66	32.47	31.49
무주군	15.75	19.69	19.83	24.05	14.17	14.25	15.8	14.12	29.84	28.94	28.39	27.67
장수군	30.12	30	30.07	29.63	7.13	9.07	9.64	8.89	32.28	31.4	30.58	30.11
임실군	20.18	16.69	19.82	19.87	11.46	11.66	12.07	10.18	29.79	29.33	29.19	28.84
순창군	19.82	23.05	19.84	20.03	15.45	14.64	14.55	12.12	33.16	32.7	32.44	32.13
고창군	16.52	14.98	16.65	18.15	14.97	15.97	16.15	13.84	26.58	26.08	25.67	25.31
부안군	10.14	8.69	12.31	14.03	16.58	17.52	18.52	15.69	23.23	22.71	22.48	21.99

자료: 통계청(각 연도) e-지방지표 재구성

〈표4-2〉 전북 시군별 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원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소계	1,234	11	296	162	195	104	76	73	84	52	25	29	32	19	36	40
아동복지시설	352	3	92	61	55	31	25	12	18	15	6	7	8	4	9	6
청소년 복지시설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노인주거 복지시설	19	0	3	1	4	1	1	4	2	0	0	0	0	0	2	1
노인의료 복지시설	233	0	43	30	49	16	12	21	15	9	7	5	5	4	8	9
노인가정 복지시설	88	0	19	8	10	15	3	2	8	6	2	1	4	2	2	6
재가노인 복지시설	147	0	37	20	20	7	7	11	13	6	3	4	6	1	5	7
노인보호 전문기관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복합노인 복지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4	1	3	1	2	1	1	1	1	0	1	1	1	0	0	0
장애인 거주시설	73	0	11	8	16	9	3	4	9	2	1	2	1	3	3	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89	0	25	10	7	9	6	5	5	4	2	4	3	2	3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1	0	4	1	4	2	0	1	4	1	1	1	1	0	0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애인 양생산품 판매시설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장애인양기시설	4	0	1	0	1	0	1	0	1	0	0	0	0	0	0	0
장신재활시설	21	0	7	2	5	1	1	1	1	0	1	1	0	0	0	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7	0	3	2	1	0	0	0	1	0	0	0	0	0	0	0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3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18	0	7	4	1	2	2	1	0	0	0	0	0	0	0	1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20	0	9	3	4	1	3	0	0	0	0	0	0	0	0	0
통합상담소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족복지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15	0	1	2	1	1	1	1	1	1	1	1	1	1	1	1
노숙인 복지시설	5	0	3	1	1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사회 복지시설	17	0	5	2	3	1	1	3	0	0	0	0	0	0	1	1
자활시설	22	0	4	2	2	1	4	1	1	1	1	1	1	1	1	1
결핵센터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복지시설	61	4	16	4	7	6	5	5	4	6	0	1	0	1	1	1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2018년 12월 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은 진안을 포함하여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지역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부모복지시설도 전주, 군산, 익산, 원주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4-3〉 전북 시군별 복지시설 생활자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소계	13,918	3,395	1,729	3,154	794	876	635	1,466	245	239	232	196	252	402	303
아동복지시설	1,013	249	215	208	57	30	5	54	36	0	0	8	7	144	0
노인주거복지시설	453	49	33	198	79	0	94	0	0	0	0	0	0	0	0
노인의료복지시설	6,559	1,081	1,148	1,298	356	513	435	594	147	180	73	138	135	192	269
장애인복지시설	2,380	1,279	0	552	0	0	0	340	4	29	126	0	50	0	0
장애인거주시설	1,717	153	123	549	277	64	66	231	33	30	15	30	60	66	20
장애인복지사회재활시설	318	163	50	1	25	50	15	0	0	0	0	0	0	0	14
정신요양시설	725	168	0	186	0	179	0	192	0	0	0	0	0	0	0
정신재활시설	224	57	17	23	0	29	20	15	25	0	18	20	0	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99	60	67	32	0	0	0	40	0	0	0	0	0	0	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9	9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9	10	9	0	0	0	0	0	0	0	0	0	0	0	0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76	20	20	25	0	11	0	0	0	0	0	0	0	0	0
노숙인복지시설	226	97	47	82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2018.12 기준)

이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중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에 있어 지역간 편차의 발생은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복지인프라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노인재가시설의 경우 군산, 정읍, 남원 등의 지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전무한 상황이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완주를 포함한 8개 군부지역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반해 장애인거주시설은 익산이 549명으로 가장 많이 입소해 있고, 정읍 299명, 완주 231명 등의 순으로 이들 세지역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부모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도 일부 지역의 경우 미설치로 인해 지역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4-4〉 전라북도 도민의 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n=1600)

구분	비빠서 시간부족	거동불편	서비스질 낮아서	이용방법을 몰라서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비용부담	필요서비스 없어서	복지시설이 좋지 않아서
동부	22.5%	15.4%	.0%	18.7%	25.5%	3.7%	12.7%	1.1%
읍부	10.3%	31.0%	.0%	41.4%	6.9%	.0%	6.9%	3.4%
면부	16.5%	12.4%	.0%	7.6%	52.4%	1.2%	9.4%	.6%
전체	19.5%	15.2%	.0%	16.2%	34.2%	2.6%	1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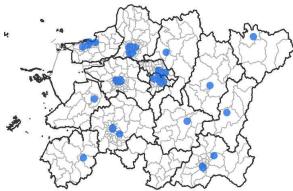
자료 : 이중섭(2014) 전북복지연구원

실제로 전라북도 도민은 복지시설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접근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 같은 어려움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연구원(2014)의 도민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은 주로 지리적 문제와 교통의 문제가 3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적 어려움(19.5%), 그리고 이용방법의 무지(16.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도시지역보다는 복지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인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복지인프라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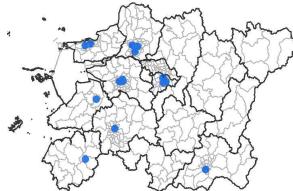
또한, 이용복지시설의 제공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해보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의 도농간 불평등한 접근성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은 중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조직화와 지역주민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빈곤가정에 대한 위기관리와 함께 건강 및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복지시설의 불균형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역격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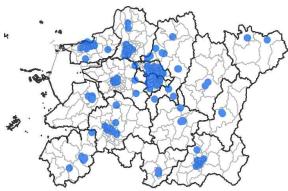
〈그림4-1〉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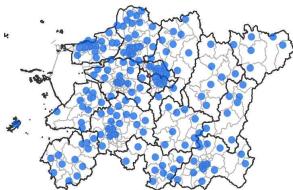
〈그림4-2〉 빈곤위기가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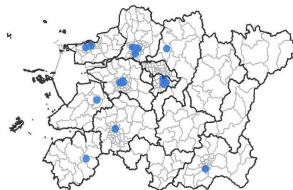
〈그림4-3〉 건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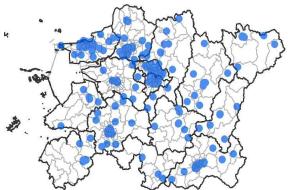
〈그림4-4〉 지역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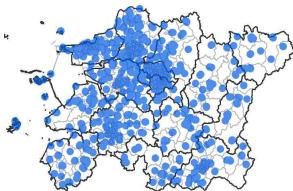
〈그림4-5〉 가족기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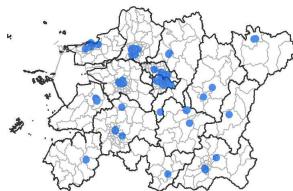
〈그림4-6〉 돌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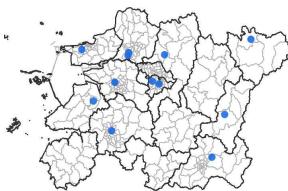
〈그림4-7〉 교육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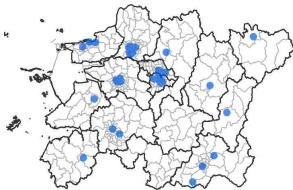
〈그림4-8〉 지역사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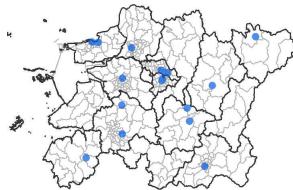
〈그림4-9〉 장애인재가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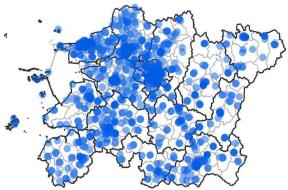
〈그림4-10〉 사회참여지원



〈그림4-11〉 경로당지원



〈그림4-12〉 제공서비스 전체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결과하고 있다. 가령 사례관리서비스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도 인구가 집중된 몇 개 지역만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기능강화, 빈곤가정 위기지원, 지역사회보호, 장애인재가복지 사회참여지원 등의 사업은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관련서비스의 제공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복지시설의 중장기 발전전략 부재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복지수요를 수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대비 충족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과 아동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양육시설의 운영개수는 변화가 없어 아동양육시설의 정원충족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도 탈시설화와 소규모화의 정책방향과 맞물리면서 정원충족율이 평균 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역별로 정원충족율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임실군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정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반해, 장수지역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충족율이 34.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4-5〉 전북 시도별 복지시설 입소정원대비 생활자 충족율

(2018.12 기준, 단위 %)

구분	소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소계	27.1	26.1	28.7	45.3	19.1	41.1	13.6	41.4	12.7	31.7	16.7	7.5	56.4	21.4	17.2
아동복지시설	11.2	11.3	12.3	14.7	6.6	5.4	1.5	11.9	10.1	0.0	0.0	5.2	9.1	39.9	0.0
노인주거복지시설	28.1	9.7	89.2	82.8	53.7	0.0	79.0	0.0	-	-	-	-	-	0.0	0.0
노인의료복지시설	83.1	82.3	83.2	85.3	86.2	84.9	78.4	84.5	70.7	82.6	72.3	89.6	97.8	67.6	88.2
재가노인복지시설	49.0	73.2	0.0	80.6	-	0.0	0.0	57.9	1.6	50.9	168.0	0.0	102.0	0.0	0.0
장애인거주시설	84.0	75.7	82.0	87.7	80.5	76.2	98.5	95.5	97.1	85.7	34.1	100.0	72.3	91.7	66.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3	5.8	10.7	1.2	6.7	83.3	2.0	0.0	0.0	-	0.0	0.0	-	-	-
정신요양시설	83.2	95.5	-	80.9	-	83.3	-	76.8	-	-	-	-	-	-	-
정신재활시설	73.7	95.0	33.3	82.1	0.0	72.5	100.0	100.0	100.0	-	120.0	100.0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2.0	98.4	49.6	36.4	-	-	-	40.4	-	-	-	-	-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52.9	52.9	-	-	-	-	-	-	-	-	-	-	-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3.6	13.3	18.0	-	-	-	0.0	-	-	-	-	-	-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58.5	28.2	125.0	78.1	-	100.0	-	-	-	-	-	-	-	-	-
노숙인복지시설	88.6	88.2	78.3	96.5	-	-	-	-	-	-	-	-	-	-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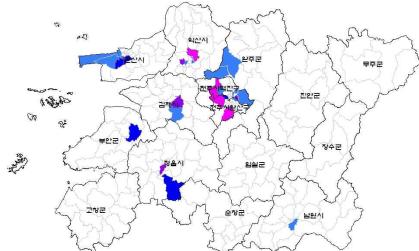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낮은 정원충족율은 사회복지수요의 급속한 변화와 이 같은 변화에 조응한 정부정책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보호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이용자의 급속한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은 공간적으로도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수요는 현재의 제도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복지수요의 공간분포에 맞춰 설치되거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수요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가령, 전주시의 경우 평화1동과 팔복동 등의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관련 다양한 복지수요자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지인프라를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혹은 복지시설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의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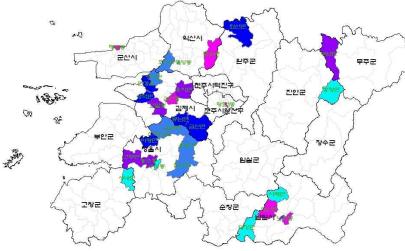
〈표4-6〉 전라북도 지역별 복지수요자 지역분포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	1 평화1동	해신동	왕궁면	농소동	대신면	검산동	화신면	동향면	부남면	신서면	지사면	생지면	성내면	출포면	
	2 팔복동	종양동	오산면	고부면	노암동	용지면	비봉면	성수면	무풍면	장계면	신덕면	복름면	고수면	진사면	
	3 원신동	심학동	동신동	이평면	금동	교월동	고산면	주천면	적상면	번암면	덕치면	적성면	상하면	백신면	
	4 서서학동	월명동	중양동	칠보면	대강면	금산면	운주면	안천면	인성면	계남면	신평면	풍산면	성승면	주신면	
	5 우아1동	나운2동	용동면	신태이읍	사매면	봉남면	경천면	옹담면	무주읍	계북면	청웅면	우등면	대신면	동진면	
	6 인후2동	임피면	삼성동	감곡면	동충동	상덕면	소양면	백운면	설천면	장수읍	오수면	팔덕면	심원면	상서면	
	7 풍남동	옥서면	성당면	옹동면	주생면	만경읍	동상면	마령면	-	천천면	강진면	동계면	부인면	하서면	
	8 노승동	신동동	운포면	수성동	주천면	청하면	삼례읍	진안읍	-	-	운암면	구림면	무장면	행안면	
	9 심천2동	나운1동	명성면	상교동	산동면	진봉면	상관면	상전면	-	-	삼계면	금과면	해리면	부안읍	
	10 중앙동	경암동	낭산면	산외면	죽령동	죽산면	용진읍	부귀면	-	-	임실읍	인계면	흥덕면	보안면	
비율	1	20.91	17.00	23.22	14.69	21.41	16.86	12.49	11.22	13.03	9.03	10.61	9.57	11.57	10.48
	2	11.06	11.62	11.65	13.59	21.21	15.13	10.03	10.09	8.77	8.65	9.84	8.64	9.68	9.51
	3	10.66	10.82	10.42	12.76	13.07	13.87	9.25	9.86	8.62	8.48	9.50	7.75	9.60	9.03
	4	9.63	10.24	10.20	12.23	11.48	12.88	8.66	9.11	6.75	8.39	9.30	7.44	9.13	8.82
	5	9.42	9.44	9.28	11.76	11.27	12.62	8.63	8.76	6.25	7.95	8.94	7.11	8.87	8.53
	6	9.25	9.33	9.02	11.74	10.32	12.51	8.36	8.30	5.51	7.71	8.75	6.85	8.49	7.92
	7	8.94	8.92	8.94	11.69	9.97	12.37	7.74	8.15	-	7.14	8.56	6.82	8.32	7.86
	8	8.46	8.35	8.35	11.62	9.55	11.81	7.69	7.96	-	-	8.55	6.68	7.85	7.57
	9	8.36	8.00	8.29	10.77	9.49	11.01	6.18	7.38	-	-	7.61	6.58	7.79	7.19
	10	7.71	7.96	7.98	10.30	9.47	10.94	5.76	6.42	-	-	7.49	6.44	7.79	7.14

〈그림4-13〉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거주지역



〈그림4-14〉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급자 구성비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별로 복지수요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전주지역의 경우 평화1동은 전체 지역주민 중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20.91%를 차지하고 있고, 팔복동과 완산동은 각각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전주시는 평화1동과 팔복동 그리고 완산동을 중심으로 다수 복지수요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은 해산동, 중앙동, 심학동, 월명동 지역이 전체 지역주민의 약 10% 이상이 복지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익산시도 왕궁면, 오산면, 동산동, 중앙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수요자 거주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읍시와 남원시도 능소동, 고부면, 이평면, 칠보면 등의 지역이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으로 복지수요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남원지역은 대산면, 노암동 지역이 전체 거주자 중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복지수요자 거주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도 복지수요자의 절대적 규모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촌지역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다. 완주군의 경우 화산면, 진안군은 동향면과 성수면, 그리고 무주군은 부남면, 임실군은 지사면, 고창군과 부안군은 성내면과 출포면 등의 지역이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복지수요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시설의 유형별 설치 혹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복지자원을 특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4-7〉 전라북도 지역별 복지수급자 과다지역

구분	전주	수요		공급									
		평균 기구원	평균 연령	복지관	경로당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민센터	의료시설	학교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소계
전주	평화동	2.0	50.3	3	12	1	1	1	4	4	2	2	30
	팔복동	2.7	39.7		20			1			1	2	24
	원신동	2.2	46.1		9			1	2	4	2	1	19
군산	해신동	2.1	44.7		6			1		2	2		11
	중앙동	2.1	52.8	1				1		3		1	6
	삼학동	2.2	50.3		8			1		1	2	1	13
익산	왕궁면	1.8	65.4		48			1		4	2	1	56
	오신면	2.8	38.3		34			1		3	1		39
	동신동	2.4	42.7	1	34			1		5	4	2	47
정읍	농소동	2.6	41.3		23			1	1				30
	고부면	2.1	52.0		42			1		3	1	1	48
	이평면	1.9	60.0		46			1		2			49
남원	대산면	1.3	59.2		19			1		2			22
	노암동	2.2	47.8	1	12			1		2	1		17
	금동	2.8	37.8	1	10			1	1	1	2	3	19
김제	검진동	2.3	47.2	1	24			1		2	1	2	31
	용지면	1.9	59.2		37			1		4			42
	교월동	2.6	43.9	1	36			1	2	2		1	43
완주	화신면	2.5	46.9		40			1	1	3	1	1	47
	비봉면	2.2	53.1		29			1		1			31
	고산면	2.2	48.9		30			1		6	2	1	40
진안	동향면	2.5	51.3		33			1		2	1	1	38
	성수면	2.4	48.3		28			1		2	1		32
	주전면	2.2	53.2		30			1		2	1		34
무주	부남면	2.3	47.7		24			1		3			28
	무풍면	2.3	46.0		39			1		3	1		44
	적성면	2.4	51.3		42			1		3			46
장수	신서면	2.5	48.0		44			1		3	1		49
	장계면	2.3	47.4		45			1		5	1	2	54
	변암면	2.0	52.8		37			1		3	1	1	43
임실	지시면	3.0	45.2		21			1		2		1	25
	신덕면	2.6	45.2		19			1		1			21
	덕치면	2.4	44.4		20			1		1			22
순창	쌍치면	2.3	47.5		35			1		3			39
	복흥면	2.6	46.3		36			1		3			40
	적성면	1.8	56.0		26			1		1			28
고창	성내면	2.1	46.5		37			1	1	2	1		42
	고수면	2.1	53.6		38			1		1		1	41
	성하면	1.8	48.8		31			1		2			34
부안	줄모면	1.7	59.8		30			1		3			34
	진서면	2.2	51.4		15			1		2	1		19
	백산면	1.6	61.2		51			1		4	1		57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설치와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거점으로 중장기계획 하에서 적정수의 규모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복지시설의 설치는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다.

5

장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동향 분석

-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 대규모 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인권친화적 운영
 3.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와 다기능화
 4. 사회복지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5. 상위계획 검토

V.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 동향 분석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던 복지시설의 운영을 시도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직영하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립과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과도한 경쟁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의 하락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저하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복지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질을 제고하도록 관리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발의 법안 제1조)

제4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그 관할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등) ① 서비스원은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2.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제31조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
5.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6.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7.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사회서비스원 설립 발의법안 요약정리

〈표5-1〉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구분	총 시설수	지자체 운영시설				민간운영시설					
		소계	직영	위탁	소계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단체(법인 외)	개인		
계	59,536	5,495	(9.23)	1,190	4,305	54,041	(90.77)	6,276	4,621	554	42,590
노인	9,428	941	(9.98)	66	875	8,487	(90.02)	2,351	1,006	67	5,063
아동	5,092	155	(3.04)	20	135	4,937	(96.96)	668	691	303	3,275
장애인	3,507	596	(16.99)	17	579	2,911	(83.01)	1,535	967	11	398
장신보건	398	11	(2.76)	2	9	387	(97.24)	171	78	2	136
노숙인	153	49	(32.03)	0	49	104	(67.97)	44	36	7	17
결핵 및 한센	7	1	(14.29)	0	1	6	(85.71)	4	2	0	0
지역자활센터	249	249	(100.00)	11	238	0	(0.00)	0	0	0	0
사회복지관	464	336	(72.41)	28	308	128	(27.59)	111	17	0	0
어린이집	40,238	3,157	(7.85)	1,046	2,111	37,081	(92.15)	1,392	1,824	164	33,701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 재분석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의 경우도 대부분 재정상의 이유 그리고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설의 민간운영으로 인한 재정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한 복지시설의 직영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보면, 총 5.9만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5.5천개로 전체 복지시설의 9.2%밖에 되지 않는다. 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의 경우도 대부분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249개소 중에서 직영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238개 지역자활센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시설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그리고 단체 등의 순이다. 과도하게 민간에 맡겨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9년도에는 4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²⁾

2)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정하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 지방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방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의 직영, 종합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원 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57.6억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보건복지부는 2019년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2022년까지는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될 경우 관련 법안에서는 주요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시설의 재무나 회계, 노무 등에 대한 상담 등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업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2022년에 설립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직영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고의 갈등 그리고 균형과 견제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새롭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 대규모 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인권친화적 운영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개인의 자발적 의사 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시설은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지역에서도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의 거주장애인 대상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하여 관선이사의 파견이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례까지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2012)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거주자의 약 57%가 시설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은 새로운 형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가차원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화와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0년 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대규모화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30인 이하로 전환하고 있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5-2〉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구분	장애유형별				증증 장애인	장애 영유아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전체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자적 장애인						
시설수	0-30명	14	7	3	160	61	2	147	752	1,146
	31-49명	13	4	3	87	105	4	0	0	216
	50-99명	11	6	1	50	51	3	0	0	122
	100명이상	1	0	0	16	16	0	0	0	33
	전체	39	17	7	313	233	9	147	752	1,517
시설 비율	0-30명	0.9	0.5	0.2	10.5	4	0.1	9.7	49.6	75.5
	31-49명	0.9	0.3	0.2	5.7	6.9	0.3	0	0	14.2
	50-99명	0.7	0.4	0.1	3.3	3.4	0.2	0	0	8
	100명이상	0.1	0	0	1.1	1.1	0	0	0	2.2
	전체	2.6	1.1	0.5	20.6	15.4	0.6	9.7	49.6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복지시설 편람

실제로 국가치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소규모화 추진 정책이후로 2017년 기준 100인 이상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대규모화를 감소하였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인원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 않거나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개편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 100인 이상의 대규모 복지시설은 201년 85개소에서 2016년 53개소로 크게 감소하였고, 30인 이하 소규모시설은 2012년 209개소에서 2016년 301개소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인원은 2012년 26,442명에서 2016년 26,461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은 여전히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표5-3〉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시군	시설유형	시 설 수			종사자		생활인원		정원총인원	
		계	법인	개인	비영리 단체	정원	현원	정원		
지 원	4개 유형	73	59	15	0	1,165	1,063	2,018	1,762	87.3
	소 계	65	56	10	0	1,147	1,051	1,964	1,726	87.9
	거주시설 (법인)	40	40	0	0	1,021	936	1,668	1,452	87.1
	거주시설 (개인)	9	0	10	0	100	89	215	197	91.6
	공동생활가정	14	14	0	0	17	17	61	57	93.4
미 지원	단기거주시설	2	2	0	0	9	9	20	20	100.0
	소 계	8	3	5	0	18	12	54	36	66.7
	거주시설 (법인)	0	0	0	0	0	0	0	0	0
	거주시설 (개인)	1	0	1	0	8	5	18	15	83.3
	공동생활가정	7	3	4	0	10	7	36	21	58.3
단기거주시설		0	0	0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복지시설 편람

동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탈시설의 개념에 대한 제도적 개념을 제시하고 자립지원시설로서 탈시설 자립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단위에 탈시설 자립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2020년부터는 시도별로 지역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함께 자립역량강화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중 100인 이상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이상 시설이 전체 23개소로 전체 법인시설 40개소의 절반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 시설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문제이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이 정원대비 총족율이 비교적 낮아 향후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도출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2018년 기준 2,018명이지만 현원은 1,762명으로 정원총족율이 87.3%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법인)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개인)시설의 정원총족율은 9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시설수요의 예측과 함께 인권친화적 시설운영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와 다기능화

최근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에 대응하여 단종 보다는 복지서비스의 복합화가 가능한 통합적 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복지인프라가 불균형한 농촌지역의 경우 모든 지역에 복지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단종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통합형 시설로 설치되고 있다.

-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설치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동조에 근거하여 통합복지시설의 경우 별도의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23조에서 관련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2010년에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와 복지시설의 공급량에 기초하여 각각의 복지시설을 공간의 특성에 맞춰 특성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범사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복지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특성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시설의 통합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같은 법률의 제도적 근거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두 개의 시설을 통합한 통합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부안과 무주 등의 일부 농촌지역에서 장애인과 노인, 일반주민과 노인을 통합한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용효율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상호연계의 시각에서 다양한 복지시설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5-4〉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구분	대상	세부내용
특성화	유형1 사회복지관 다수설치지역	· 사회복지관의 대상별 특성화 : 사회복지관이 다수존재·근접설치·유사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비스 기능 및 대상자의 일부 중복이 발생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관을 전문화하여 지역내 특정 대상에 대한 서비스 확대
	유형2 사회복지관 다수설치지역	· 사회복지관의 기능별 특성화 : 사회복지관이 다수존재·근접설치·유사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비스 기능 및 대상자의 일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일부의 사회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추진
	유형3 장애인복지관 단독 설치지역	· 장애인복지관의 추가기능 수행 : 대상별로 이용이 제한된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유가능한 영역의 서비스 확대
	유형4 노인복지관 단독 설치지역	· 노인복지관의 추가기능 수행 : 대상별로 이용이 제한된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유가능한 영역의 서비스 확대
다기능화	유형5 장애인생활시설 단독설치지역	· 생활시설의 추가기능 수행 : 장애인생활시설이 복지관의 기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행함으로써 복지관과 생활시설간 불균형한 시설분포 상황의 문제점을 보충하여 최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행
	유형6 노인주거시설 단독설치지역	· 주거시설의 추가기능 수행 : 노인주거시설이 복지관의 기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행함으로써 복지관과 생활시설간 불균형한 시설분포 상황의 문제점을 보충하여 최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행
	유형7 전국 모든 시·군·구	· 지역사회 중심 주민맞춤형 복합다기능화 : 지역체계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구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유형과 양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맞춤형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자료 : 보건복지부(2010) 복지시설 특성화 자료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공급과잉인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통합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시정은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의 접근성이나 복지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질적 수준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자원이 집중된 도시지역과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높지만 복지인프라는 부족한 농촌지역간의 복지격차는 매우 심화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개념) 중앙부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등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①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구축 지원, ③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④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복지시설이 복지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지 못할 경우 유관 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복지시설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복지수요와 공급의 체계적 기준하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전술한 사회복지수요자의 공간적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복지수요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와 복지자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수요자가 다수 거주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자원도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복지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시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시설의 향후 필요개수를 추정하는 추계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단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향후 인구전망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수요전망에 기초하여 중장기 복지시설의 공급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연유에서 개별 연구에서는 2~3년 단위로 복지시설의 각 유형별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적인 인구추계와 수요자에 대한 인구추정을 통해서 향후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중장기 시설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표5-5〉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 현황

구분	연구주제	연구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9)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수요진단(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장기 수요추정 및 구조조정 방향 제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필요 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요양병원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질환 정도에 따른 재원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시설의 필요수 추계 ※ 장기요아시설 재원기관 30일(모델 1), 재원기간 15일(모델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시설(정기봉사원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의 수요추정 및 시설 중장기 설치 방향
석재은 외(2002)	장기요양보호서비스대상 노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시설 중 시설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일소대상 노인수와 병상이용율을 기준으로 향후 필요한 시설의 규모 파악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기노인 및 요양보호노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인주거시설의 필요개수를 추계 노인주거시설 추계를 위해 노인인지 수준, 노인주거시설 요구율 등을 토대로 노인주거시설 수요 파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6)	사회복지시설 종합별전계획 2차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노인, 아동부랑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의 규모에 따른 향후 필요시설 수 추계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자녀비동거비율, 빙곤노인비율, 저소득층 비율 등을 기준으로 노인양로시설의 향후 필요개수를 추정
김유정 외(2006)	사회복지시설 공급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의 주요대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율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규모 추정 아동양육시설 이외에 아동직업훈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추계
변용찬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정립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출현율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필요 수 추정(등록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분류)
김유경 외(2012)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생활시설의 중장기 인구규모에 기초한 향후 시설 추가 수요 진단 사회복지시설 통합운영 모델 개발(사회복지시설의 설치수준과 입소수준 등에 기초하여 통합모델 제시)

일부연구(김유경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생활시설의 현황과 유형에 대한 필요시설 수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시설의 공급유형에 기초하여 복지시설의 통합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까지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에 대응한 중장기 추계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맞물리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도 이 같은 시설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으로만 시설설치가 논의되어온 과거와는 달리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의 공급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점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한 추정이 실효적 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간 편중도 심한편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분석에 기초한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 상위계획 검토

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2)에서는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두드림학교 운영을 2018년 2,720개소에서 2023년까지 5,000개로 확대하여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양육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건강보장분야에서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을 2023년까지 70여개를 지정 및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건강취약 계층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확대, 장애친화 검진기간을 '19년 8개에서 '23년 100개까지 확대하고,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22년까지 4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건강증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18년 66개소에서 '23년 25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5-6〉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고용 교육 보장 분야	교육의 공직책임 강화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 - '18년 2,720개 → '23년 5,000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18년 6.4만 가구 → '22년 12만 가구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및 확충] -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23년)	
건강 보장 분야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확대(7개)] [장애초화 검진기관 확대] - '19년 8개 → '23년 100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 '22년 까지 4개소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18년 66개소 → '23년 250개소	

*두드림학교 :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제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두 드림학교 운영의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5-7〉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계속)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인프라 확대	[특수학교 학급 확대] - 학교 : '18년 174개교 → '22년 197개교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확대] - '18년 5개소 → '21년 20개소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 케어안심주택 : 4만호 - 주민건강센터 : 시군구별 1개소 - 종합재기센터 : ~'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국공립돌봄시설 확충	[공립요양시설 및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 요양시설 : 160개소('22년) - 주야간보호시설 : 184개소('22년)
		적정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급여 강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확대] - '16년 6.3% → '23년 9%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 '19년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 - '22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또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인프라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는 '18년 174개교에서 '22년 197개교까지, 특수학급은 '18년 10,325학급에서 '22년 11,575학급까지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직업재활센터를 '21년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의 확대로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립요양시설 및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공립돌봄 시설 확충,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등의 계획을 통해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술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보육, 돌봄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민간이 주도해온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의 주택지원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먼저 탈시설지원센터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확대를 통해 시설 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거주시설의 이용적격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욕구를 중심으로 이용자격을 재편,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축소, 기능보강 지원 등을 통해 소그룹시설로의 전환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5%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및 운영지원계획과 재활 치료수가의 개선으로 민간 소아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으며, 권역재활병원을 9개소까지 단계적 확충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광역시를 필두로 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5-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p>[탈시설지원센터 설치]</p> <p>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 '19년 중앙, '20년~ 시도별 센터 단계적 설치</p> <p>전환지원체계 마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추진]</p> <p>- '18년 62개소 → '22년 90개소</p>
			<p>[이용적격성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체계 구축]</p> <p>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다양화]</p> <p>- 정원축소, 기능보강 지원 등 소그룹 시설 전환 추진</p>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p>[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p> <p>- 주거자주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등급 고려하여 중증 장애인가구에 우선공급</p>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재가 장애인 주택지원 강화	<p>[주거급여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p> <p>- 중위소득 43%이하 → 45%이상 확대</p> <p>[기준임대료 지속 상행]</p> <p>- 실제 임차료 83% 수준 → 단계적으로 현실화</p>
			<p>[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및 운영지원]</p> <p>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p>
		어린이 재활의료체계 구축	<p>- 병원과 특수학교 건립의 연계로 치료와 교육방행</p> <p>[재활 치료수가 개선으로 민간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p>
		권역재활병원 확충	<p>[권역재활병원 현재 6개소에서 9개소까지 단계적 확충]</p> <p>- '20년 경북, '21년 충남 및 전남</p>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p>장애인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운영]</p> <p>- '18년 10개소 → '22년 100개소</p>
		지역사회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p>[중앙 및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p>
			<p>[장애인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p>
		장애인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p>장애인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18년 1,124개소 → '22년 1,184개소</p> <p>- 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p>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p>[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p> <p>- 통합유치원 : '17년 1개 → '22년 17개</p> <p>- 특수학급 : '17년 731학급 → '22년 1,131학급</p>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은 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개편과 맞물리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소규모 전환과 함께 탈시설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가 예고되어 있는바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5-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계속)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장애인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장애인아전문어린이집 및 통합어린이집 확충] - '18년 1,124개소 → '22년 1,184개소 - 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통합유치원 : '17년 1개 → '22년 17개 - 특수학급 : '17년 731학급 → '22년 1,131학급
	장애인 보육 교육권 특수교육기반 강화	장애인 환경개선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특수학교 : '17년 174교 → '22년 196교 - 특수학급 : '17년 10,325학급 → '22년 11,575학급 [특수학교 설립형태 다양화] - 인근 주민도 이용가능한 복합공간 포함 학교 설립 확대 [도시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반영할 수 있는 법규정 개선]
	통합교육 자원 내실화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 확대] [장애인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42개소 → 50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광여가 향수 기회보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향수기회 확대	[발달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 만 9세~24세 발달장애인
	장애인 체육 향유기회 보장	장애인 체육 향유기회 확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 시도별 1개소, 총 15개소 [기존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강화	장애인 직업재활강화	[통합체육 수업 개소 수 확대] - '18년 75개 → '22년 100개 [장애인 청소년 체육교실사업 연계기관 확대] - '18년 2개 → '22년 17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피해예방 및 피해자지원 강화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21년)] [발달장애인 대상 전용 훈련센터 17개 시도 설치]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강화	발달장애인 보호돌봄체계 강화	[학대 피해자쉼터 전국 확대] [발달장애인가정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추진]

장애인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지원강화를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통합어린이집을 '22년까지 1,184개소로 확충하고,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은 '22년까지 각각 17개, 1,131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확충과 특수학교 설립형태의 다양화,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 활강화를 위한 발달장애 전용 훈련센터 설치, 인권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자쉼터의 전국적 확대 등의 인프라 지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상의 인프라 지원에 관한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 연면적이 1,500㎡를 초과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센터 가형으로, 건축 연면적 1,500㎡ 미만의 청소년문화의집은 나형, 청소년자유공간은 다형으로, 민간주도형 청소년아카데미는 라형의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청소년작업장과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강화, '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중점학교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의 허브 기능 강화, 청소년 인프라의 기능개편으로 활동과 상담서비스의 통합지원공간을 구축하고자 함

〈표5-1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수요자 중심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p>【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형 : 건축 연면적 1,500㎡ 초과, 청소년수련관- 나형 : 건축 연면적 1,500㎡ 미만, 청소년문화의집- 다형 : 청소년자유공간- 리형 : 청소년아카데미(민간주도)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강화	<p>【청소년작업장 활성화】</p> <p>【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p>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청소년 지원 및 보호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p>【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224개 지자체 → '22년 전국 모든 지자체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	<p>【다문화중점학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150개교 → '16년 180개교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p>【시도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의 허브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사업비율 최소화, 기초 지자체에 컨설팅, 수퍼바이저 역할 중심으로 전환 <p>【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의 통합지원 공간으로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통합형, 부분통합형, 개별형 등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개편 유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인프라를 청소년센터로 개편

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대책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학교교육의 강화로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의 확충으로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지원과,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안심보육과 육아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전국 단위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구축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문화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표5-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현장중심 학교교육 강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업계 특성화고교 전체 확대 -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시범사업 16개 대학 실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으로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청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준' 구축으로 일자리 매칭 지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 (2016-2020)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조성】 - 아동전용도서관 확충 및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 긴급보육수요발생 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단계적 확대 - 공동형어린이집 지정 요건으로 설계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서비스제공 독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육아교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지속확충 및 확충방식 다양화】 -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민간설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민간 사회공헌 사업 등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확충(17년 2,300개소)】 【직장어린이집 '20년까지 매년 80개소 확충】 - 다양한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 확산, 설치비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남성 육아참여활성화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고용복지+센터의 허브기능 강화】 - 전국단위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 - '14년 89개 → '20년 200개	

〈표5-12〉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프라 지원내용(계속)

구분	분야	목표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 내 중앙노후준비센터 설치] -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정책 수행 [지자체 단위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준비여건확충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건강관리 강화] [치매전문시설 확충] - 장기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확대 -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 본계획 (2016~2020)	고령자 건강생활보장 노후실현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모델 개발·확산] - 기준노인과 베이비부머세대차이 반영한 서비스체계 확립 - 노인복지관 기능재정립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개발 적용 [고령자교육기본화충] -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확대운영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실버주택 '17년까지 1,300호 공급 -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 30%수준으로 2천호 전세공급 - 다가구주택으로 개방한 임대주택 1천호 공급
	고령자 안전 및 권리보장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현장 대응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 학대피해노인의 양로시설 입소 등 보호기반 강화 - 학대노인 지원이센터(전국 경로당) 운영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	여성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기술창업센터 설치운영 확대

노후준비여건의 확충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내 중앙노후준비센터와 지자체 단위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건강생활보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건강관리 강화와 정신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확대,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거점병원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기존의 노인과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차이를 반영한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개발, 노후준비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강화체계 계획에 반영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실버주택의 공급확대,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2천호의 전세주택의 공급과, 노후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하였고, 노인학대의 예방체계강화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대응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학대피해노인의 양로시설 입소 등의 보호기반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의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및 기술창업센터의 설치운영 확대로 중고령자의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6

장

전라북도 복지시설 유형별 수요분석

-
1. 아동복지시설 수요
 2. 노인복지시설 수요
 3. 장애인복지시설 수요
 4. 기타복지시설(지역사회복지기관) 수요추정

VI. 전라북도 복지시설 유형별 수요분석

1. 아동복지시설 수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생활시설에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리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쉼터 등이 있다. 이들 시설 중 대부분의 시설은 아동의 복지수요보다는 정책수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로서 지역아동의 복지욕구에 따른 적정공급이 요구되는 시설은 아니다. 가령,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등은 복지수요보다는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수요가 고려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의 증가 혹은 감소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아동복지욕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요보호아동의 발생율과 적정 보호율 등의 중요지표를 통해서 향후 복지시설의 추가적인 건립이나 조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은 요보호아동의 유동적 변화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로의 통합 등의 정책적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전라북도는 아직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시도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시설이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시설의 설치는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6-1〉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시설유형	수요형태	연령계층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복지수요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복지수요	요보호아동
	아동일시보호시설	정책수요	요보호아동 0~18세(에외 24세)
	아동보호치료시설	정책수요	문제행동아동, 요보호아동(학대피해, 정서장애)
이용시설	자립지원시설	정책수요	시설퇴소아동 18세이상 퇴소아동
	공동생활가정(쉼터)	정책수요	학내피해아동 0세~18세
	아동상담소	정책수요	일반아동
	지역아동센터	복지수요	일반아동 (방과후 돌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수요	학내피해아동

가. 아동복지시설 대상 인구 추이

전라북도의 아동복지시설의 주요 인구집단은 0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인구이다. 이중 아동이용시설과 아동생활시설은 전 연령대의 아동이 주요 수요집단에 해당되고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8세에서 13세까지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요 수요집단에 해당된다.

각각의 각 시설별 아동인구 추이를 보면,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수요대상 아동은 2008년 42.1만명에서 2018년 31.1만명으로 약 11만명 정도 감소하였고, 8세에서 13세까지의 지역아동센터 잠재적 이용아동은 15.2만명에서 9.9만명으로 1.1천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시설의 잠재적 이용대상인 18세 미만 아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세 미만 아동수의 급격한 감소는 아동복지시설의 잠재적 수요의 감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축소 혹은 감소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생활시설은 소규모화의 추세 그리고 시설병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인해 향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6-2〉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수요집단 추이

구분	연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역 아동 센터	0세	15,251	14,659	15,416	15,662	15,695	14,191	13,761	13,771	12,433	11,096	9,775
	1세	17,057	16,035	15,348	16,356	16,384	16,503	14,838	14,399	14,370	12,857	11,484
	2세	15,568	17,261	16,185	15,484	16,456	16,499	16,608	14,924	14,538	14,378	12,829
	3세	15,825	15,689	17,360	16,344	15,614	16,587	16,628	16,627	15,037	14,545	14,397
	4세	17,099	15,953	15,810	17,493	16,422	15,724	16,690	16,691	16,724	14,978	14,531
	5세	18,063	17,190	16,059	15,894	17,596	16,502	15,844	16,739	16,821	16,692	14,949
	6세	18,739	18,100	17,303	16,111	15,983	17,703	16,630	15,845	16,811	16,766	16,650
	7세	21,511	18,799	18,199	17,437	16,185	16,093	17,827	16,738	15,929	16,795	16,750
	8세	24,288	21,528	18,894	18,289	17,494	16,228	16,170	17,879	16,809	15,940	16,752
	9세	23,674	24,239	21,618	18,971	18,344	17,529	16,311	16,211	17,900	16,770	15,873
	10세	25,075	23,680	24,348	21,690	19,000	18,380	17,577	16,327	16,250	17,866	16,675
	11세	25,584	25,080	23,700	24,399	21,709	19,071	18,381	17,581	16,340	16,234	17,805
	12세	26,436	25,534	25,055	23,673	24,370	21,682	19,126	18,380	17,580	16,329	16,187
	13세	27,214	26,486	25,581	25,066	23,707	24,416	21,691	19,140	18,438	17,553	16,255
	14세	27,311	27,182	26,502	25,571	25,037	23,736	24,439	21,714	19,160	18,394	17,515
	15세	26,561	27,233	27,129	26,427	25,490	25,018	23,714	24,419	21,647	19,110	18,350
	16세	26,856	26,567	27,222	27,151	26,458	25,577	25,035	23,791	24,536	21,734	19,082
	17세	25,660	26,731	26,577	27,182	27,143	26,473	25,550	25,026	23,760	24,445	21,620
	18세	23,809	25,397	26,607	26,485	27,052	27,068	26,346	25,455	24,920	23,656	24,257
0세~18세 전체 아동		421,581	413,343	404,913	395,685	386,139	374,980	363,166	351,657	340,003	326,138	311,736
8세~13세 전체 아동		152,271	146,547	139,196	132,088	124,624	117,306	109,256	105,518	103,317	100,692	99,547

〈표6-3〉 전라북도 빈곤아동 현황 및 추이

구분	연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세	252	270	278	280	298	206	176	167	210	179	176	
	1세	442	382	412	356	350	340	263	246	278	267	227	
	2세	493	488	482	445	392	371	365	292	329	304	275	
	3세	574	530	524	524	447	396	380	397	389	355	328	
	4세	763	615	595	571	529	456	408	415	534	389	367	
	5세	918	798	693	633	582	506	459	443	543	528	416	
	6세	1,129	945	878	730	633	574	526	492	534	557	550	
	7세	1,338	1,165	1,014	929	736	624	590	572	1,305	1,108	1,068	
지역 아동 센터	아동 생활 시설	8세	1,531	1,402	1,276	1,048	937	729	619	27	1,430	1,374	1,123
	아동 생활 시설	9세	1,792	1,609	1,518	1,322	1,041	907	720	22	1,411	1,500	1,286
	아동 생활 시설	10세	1,943	1,869	1,715	1,539	1,318	1,032	891	16	1,485	1,447	1,404
	아동 생활 시설	11세	2,180	1,982	1,989	1,751	1,510	1,295	1,036	602	1,614	1,547	1,364
	아동 생활 시설	12세	2,323	2,248	2,125	2,018	1,736	1,469	1,298	629	1,835	1,698	1,480
	아동 생활 시설	13세	2,488	2,385	2,380	2,165	1,977	1,686	1,471	747	2,034	1,930	1,659
	아동 생활 시설	14세	2,624	2,564	2,497	2,412	2,111	1,936	1,670	886	2,395	2,099	1,824
	아동 생활 시설	15세	2,720	2,684	2,715	2,546	2,403	2,046	1,937	1,069	2,650	2,476	2,000
	아동 생활 시설	16세	2,674	2,831	2,782	2,744	2,541	2,320	1,999	1,315	2,992	2,879	2,412
	아동 생활 시설	17세	2,649	2,692	2,885	2,751	2,661	2,385	2,228	1,466	3,187	3,006	2,689
	아동 생활 시설	18세	2,518	2,509	2,630	2,712	2,483	2,383	2,210	1,688	3,054	2,992	2,605
	0세~18세 전체 아동	31,351	29,968	29,388	27,476	24,685	21,661	19,246	11,491	28,209	26,635	23,253	
	8세~13세 전체 아동	12,257	11,495	11,003	9,843	8,519	7,118	6,035	2,043	9,809	9,496	8,316	
	0세~18세 아동 빈곤율	7.11	7.11	6.79	6.24	5.61	5.13	3.16	8.02	7.83	7.13		
	8세~13세 아동 빈곤율	7.55	7.51	7.07	6.45	5.71	5.14	1.87	9.30	9.19	8.26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이용아동이 저소득 빈곤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빈곤아동은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8세 미만의 전체 빈곤아동은 2007년 3.1만명에서 2017년 2.3만명으로 약 8천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빈곤아동도 2007년 1.2만명에서 2017년 8.3천명으로 약 3.9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빈곤아동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아동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전체 아동 대비 빈곤아동의 비율을 보면, 18세 미만 전체 아동의 빈곤율은 2008년 7.1%에서 2017년 7.1%로 유동적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8세에서 13세까지의 지역아동센터 잠재적 이용아동의 빈곤율은 2008년 7.55%에서 2017년 8.2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빈곤아동의 절대적인 양적 수치는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지만 아동의 빈곤율은 여전히 약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높은 빈곤율은 향후 아동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생활시설의 잠재적 이용수요의 증가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빈곤아동의 잠재적 추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6-4〉 전라북도 빈곤아동 현황 및 추이

구분	연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지역 아동 센터	0세	1.77	1.90	1.82	1.90	1.31	1.24	1.21	1.52	1.44	1.59	1.57
	1세	2.24	2.57	2.32	2.14	2.08	1.59	1.66	1.93	1.86	1.77	2.01
	2세	3.13	2.79	2.75	2.53	2.25	2.21	1.76	2.20	2.09	1.91	2.36
	3세	3.35	3.34	3.02	2.73	2.54	2.29	2.39	2.34	2.36	2.26	2.66
	4세	3.60	3.73	3.61	3.02	2.78	2.59	2.49	3.20	2.33	2.45	2.98
	5세	4.42	4.03	3.94	3.66	2.88	2.78	2.80	3.24	3.14	2.49	3.34
	6세	5.04	4.85	4.22	3.93	3.59	2.97	2.96	3.37	3.31	3.28	3.75
	7세	5.42	5.39	5.10	4.22	3.86	3.67	3.21	7.80	6.96	6.36	5.20
	8세	5.77	5.93	5.55	5.12	4.17	3.81	0.17	8.00	8.17	7.05	5.37
	9세	6.80	6.26	6.12	5.49	4.94	4.11	0.13	8.70	8.38	7.67	5.86
	10세	7.45	7.24	6.32	6.08	5.43	4.85	0.09	9.10	8.90	7.86	6.33
	11세	7.75	7.93	7.39	6.19	5.97	5.43	3.28	9.18	9.47	8.40	7.10
	12세	8.50	8.32	8.05	7.33	6.03	5.99	3.29	9.98	9.66	9.06	7.62
	13세	8.76	8.99	8.46	7.89	7.11	6.02	3.44	10.63	10.47	9.45	8.12
	14세	9.39	9.19	9.10	8.26	7.73	7.04	3.63	11.03	10.96	9.92	8.62
	15세	10.11	9.97	9.38	9.09	8.03	7.74	4.51	10.85	11.44	10.47	9.16
	16세	10.54	10.47	10.08	9.36	8.77	7.82	5.25	12.58	11.73	11.10	9.77
	17세	10.49	10.79	10.35	9.79	8.79	8.42	5.74	12.73	12.65	11.00	10.08
	18세	10.54	10.36	10.19	9.38	8.81	8.16	6.41	12.00	12.01	11.01	9.89
0세-18세 평균률 = 6.41		7.11	7.11	6.79	6.24	5.61	5.13	3.16	8.02	7.83	7.13	6.41
8세-13세 평균률 = 6.81		7.55	7.51	7.07	6.45	5.71	5.14	1.87	9.30	9.19	8.26	6.81

아동의 연령대별 빈곤아동의 비율을 추정해 보면, 전체적으로 빈곤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4세에서 18세 구간으로 최소 8.6%에서 최대 10.1%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이용시설의 주 이용대상인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도 빈곤율이 최소 5.37%에서 최대 8.12%로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 연령과 빈곤 등의 변수가 활용되지만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요보호아동 출현율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은 2000년 391명에서 2017년 287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보호아동의 감소추세는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요보호아동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수의 감소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요보호아동 발생율은 2000년 1.59만 명에서 2017년 4.8천명으로 약 1.1만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요보호아동의 증감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2000년 391명에서 2017년 287명으로 104명(26.60%)이 감소하였고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평균 요보호아동의 감소율인 69.5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은 감소하였지만 전국 평균에 비추어보면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6-5〉 지역별 요보호아동 발생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수)	증 율
계	15,986	21,816	22,341	21,882	20,357	18,468	16,008	11,394	11,672	10,800	9,960	8,436	8,003	6,834	6,014	4,975	5,226	4,816	11,090	69,63
서울	8,057	14,233	14,669	14,731	13,553	12,045	8,826	3,742	3,419	3,634	3,144	2,530	2,428	2,119	2,065	1,480	1,829	1,298	6,764	83,95
부산	869	732	791	758	794	632	514	474	757	386	437	356	347	448	288	258	184	175	694	79,86
대구	378	300	373	470	650	531	423	399	446	312	313	248	212	191	187	221	187	223	155	41,01
인천	114	198	158	120	132	162	140	413	620	360	374	328	410	459	288	280	242	270	-156	-13,64
광주	1,038	827	861	800	908	715	759	1,152	517	620	739	380	322	230	189	144	161	119	919	88,54
대전	89	147	456	353	308	404	408	230	747	704	706	755	702	518	317	110	91	105	-16	-17,98
울산	50	43	74	69	77	44	85	127	201	151	201	169	149	84	67	111	96	101	-51	-10,20
세종	-	-	-	-	-	-	-	-	-	-	-	-	6	5	1	10	6	6		
경기	2,067	1,950	1,812	1,506	1,158	1,192	1,360	1,294	1,549	1,201	1,130	912	1,066	658	689	682	610	799	1,268	61,34
강원	301	369	468	505	410	476	286	433	528	342	340	341	285	278	330	335	323	241	60	19,93
충북	165	262	227	144	76	157	268	267	378	307	338	468	275	224	171	181	251	161	4	2,42
충남	655	480	505	530	315	302	444	356	264	259	196	277	215	202	151	189	140	213	422	67,48
전북	391	448	332	198	316	407	548	456	460	465	496	413	375	304	292	252	311	287	104	26,60
전남	509	541	363	518	488	662	915	964	710	577	641	453	362	371	340	269	274	316	198	37,92
경북	361	330	423	322	308	254	250	384	351	453	290	327	293	280	231	159	187	239	122	33,80
경남	395	447	369	348	471	353	584	596	509	514	430	333	438	345	328	251	266	210	185	46,84
제주	497	509	460	510	413	132	198	107	216	215	185	146	118	118	80	53	68	88	409	82,29

자료 : 통계청(요보호아동 현황 연도별 재구성)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 추이를 보면, 요보호아동이 증가한 지역 이를테면 인천, 대전, 울산 등의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시도 중에서도 요보호아동의 감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여전히 요보호아동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의 발생율을 보면, 2008년에는 0.11%였지만 2013년에는 0.08%로 0.1%대가 무너진 이후 2016년에 다시 0.09%대로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 아동수의 감소 그리고 요보호아동 수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 요호아동의 발생률도 향후 지속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보호아동의 감소는 요보호아동의 이용시설인 아동 생활시설의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아동생활시설의 정원충족율의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표6-6〉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발생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아동	421,581	413,343	404,913	395,685	386,139	374,980	363,166	351,657	340,003	326,138
요보호아동	460	465	496	413	375	304	292	252	311	287
요보호아동 발생율	0.11	0.11	0.12	0.10	0.10	0.08	0.08	0.07	0.09	0.09

〈표6-7〉 아동복지시설 정원 입소자 및 추이

구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773	8,567	8,911	8,387	8,026	6,435	6,564	5,874	6,770	6,742	6,188	5,870	5,427	4,401	4,822	4,331	4,462	5,543
서울	3,698	4,003	4,807	4,332	4,224	3,179	3,285	2,887	3,728	3,786	2,995	2,994	2,342	1,925	2,205	1,982	1,807	1,639
부산	619	609	699	651	656	592	525	513	338	257	325	332	335	152	140	148	104	170
대구	356	339	261	291	270	262	211	241	204	182	155	166	122	102	136	165	207	270
인천	185	177	144	113	118	162	112	158	500	192	193	216	209	107	179	172	210	186
광주	267	278	274	299	261	168	215	171	151	151	165	139	126	120	155	91	141	175
대전	486	353	308	284	233	177	304	244	626	233	351	377	403	379	309	302	239	363
울산	56	33	38	43	32	16	15	25	92	21	22	14	20	24	36	30	40	69
세종	-	-	-	-	-	-	-	-	-	-	-	-	4	3	5	9	6	5
경기	1,380	896	868	860	834	641	594	655	262	900	904	603	840	678	689	619	624	1,021
강원	214	162	149	186	122	129	83	71	68	70	83	47	45	61	69	121	138	163
충북	70	143	95	95	153	150	229	116	46	92	133	151	119	136	179	143	120	226
충남	190	212	208	230	165	110	106	86	99	123	81	98	94	91	115	122	129	166
전북	373	323	255	176	257	238	210	170	144	142	154	155	193	193	159	166	247	345
전남	366	476	330	395	321	284	304	178	206	243	307	293	294	194	178	162	206	303
경북	171	246	219	179	87	108	127	138	99	101	103	112	97	94	109	77	87	151
경남	237	228	165	175	211	177	179	177	149	137	142	119	133	98	108	4	127	194
제주	105	89	91	78	82	42	65	44	58	112	75	54	51	44	51	18	30	97

자료 : 보건복지부(2018) 각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보고 재정리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퇴소자 추이를 보면, 입소자는 2000년 323명에서 2017년 345명으로 약 22명(6.8%p) 정도 감소하였고, 퇴소자는 같은 기간 338명에서 398명으로 약 50명(14.7%p) 정도 증가하였다.

〈표6-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현황 및 추이

구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753	8,688	9,043	8,245	7,831	6,298	6,898	6,265	7,204	7,148	6,655	6,478	6,034	5,048	5,431	4,960	4,774	6,325
서울	3,837	4,125	4,830	4,180	4,277	3,148	3,357	2,951	3,808	3,850	3,085	3,075	2,440	1,822	2,209	2,039	1,834	1,891
부산	602	535	795	755	634	652	662	583	471	383	394	365	416	315	333	287	214	306
대구	394	321	281	276	242	234	275	253	253	218	216	194	160	172	149	176	212	277
인천	183	180	146	134	121	135	125	157	435	202	209	230	228	140	220	203	209	223
광주	242	247	288	279	240	157	201	188	105	169	183	194	162	120	157	144	153	210
대전	450	431	365	289	230	179	334	271	630	212	360	424	421	385	329	352	236	375
울산	37	28	23	23	35	22	28	31	102	21	18	31	21	19	28	20	46	56
세종	-	-	-	-	-	-	-	-	-	-	-	-	9	3	10	9	11	18
경기	1,276	871	816	846	763	560	596	726	334	931	889	747	885	839	773	701	672	1,178
강원	201	171	158	186	100	123	107	57	107	79	75	110	83	80	114	127	125	203
충북	46	116	76	98	119	82	171	142	68	137	164	160	156	187	202	147	163	231
충남	187	197	199	184	169	129	131	105	105	125	136	107	117	121	165	109	130	145
전북	376	338	304	204	219	243	235	213	208	174	193	189	213	242	180	215	229	398
전남	388	511	322	389	334	304	297	236	259	249	384	316	340	258	205	190	238	335
경북	192	300	210	206	64	99	147	142	102	111	103	117	143	124	135	128	133	148
경남	246	229	172	127	214	183	164	151	154	165	168	155	180	174	154	78	136	240
제주	96	88	58	69	70	48	68	59	63	122	78	64	60	47	68	35	33	91

자료 : 보건복지부(2018) 각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보고 재정리

〈그림6-1〉 이동복지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 추이



〈표6-9〉 이동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및 추이

구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840	17,720	18,676	18,818	19,014	19,151	18,817	18,426	17,992	17,586	17,119	16,523	15,916	15,239	14,630	14,001	13,689	12,789
서울	3,606	3,484	3,418	3,570	3,517	3,548	3,476	3,412	3,331	3,239	3,153	3,072	2,990	3,063	3,059	3,002	2,975	2,737
부산	1,607	1,681	2,630	2,526	2,548	2,488	2,351	2,281	2,158	2,032	1,963	1,930	1,849	1,684	1,491	1,352	1,242	1,106
대구	1,134	1,152	1,085	1,100	1,128	1,156	1,092	1,080	1,021	985	924	886	858	788	775	764	759	757
인천	683	680	675	654	651	678	665	666	661	721	707	693	674	642	601	570	571	531
광주	708	739	760	780	801	812	826	809	809	765	747	694	663	663	661	608	596	563
대전	774	696	639	634	637	635	605	578	647	668	653	618	600	594	574	524	527	512
울산	105	110	127	147	144	138	125	119	118	118	122	105	104	109	117	127	121	127
세종	-	-	-	-	-	-	-	-	-	-	-	-	-	47	47	42	42	27
경기	1,910	1,936	1,993	2,007	2,078	2,159	2,157	2,086	2,059	2,015	2,030	1,886	1,836	1,671	1,587	1,505	1,457	1,252
강원	586	577	555	555	577	583	559	573	524	517	525	462	424	405	360	354	367	334
충북	568	595	707	704	738	806	864	838	816	771	740	731	694	647	624	620	577	549
충남	810	825	878	924	920	901	876	857	851	849	794	785	702	673	623	636	635	634
전북	1,228	1,213	1,107	1,079	1,117	1,112	1,087	1,044	980	948	909	875	855	806	785	736	754	696
전남	1,613	1,578	1,577	1,583	1,570	1,550	1,557	1,499	1,446	1,440	1,364	1,339	1,285	1,221	1,194	1,166	1,134	1,100
경북	1,049	995	978	951	974	983	963	959	956	946	946	941	895	867	841	790	744	714
경남	1,169	1,168	1,201	1,249	1,247	1,241	1,256	1,282	1,277	1,244	1,217	1,181	1,134	1,056	1,010	936	927	878
제주	290	291	346	355	367	361	358	343	338	328	325	315	306	303	286	269	266	272

자료 : 보건복지부(2018) 각연도 이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보고 재정리

나. 아동복지시설 대상 인구 추계

아동복지시설의 연령별 인구추이를 통계청의 인구추계로 추정해보면, 아동생활시설의 대상연령인 18세 이하 아동의 인구는 2020년 30.3만명에서 2030년 26.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아동인 8세에서 13세 아동도 2020년 9.6만명에서 2030년 8.2만명으로 약 1.4만명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잠재적 이용아동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동의 연령감소가 두드러지는 연령구간은 8세에부터 13세까지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16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연령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의 아동인구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아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의 잠재적 수요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6-10〉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대상아동 인구추계

구분	연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증감수	증감률	
지역 아동 센터	아동 생활 시설	0세	12,765	12,680	12,623	12,603	12,609	12,628	12,642	12,636	12,597	12,513	12,382	383	3.0
		1세	12,956	12,844	12,760	12,706	12,687	12,695	12,715	12,729	12,724	12,684	12,599	357	2.8
		2세	13,196	13,053	12,943	12,860	12,807	12,790	12,799	12,820	12,835	12,830	12,789	407	3.1
		3세	13,164	13,285	13,140	13,031	12,949	12,897	12,881	12,892	12,914	12,930	12,925	239	1.8
		4세	13,650	13,245	13,361	13,216	13,109	13,028	12,978	12,962	12,975	12,997	13,013	637	4.7
		5세	14,634	13,726	13,324	13,437	13,291	13,186	13,106	13,056	13,042	13,056	13,078	1,556	10.6
		6세	14,609	14,709	13,808	13,408	13,518	13,372	13,269	13,189	13,140	13,128	13,143	1,466	10.0
		7세	15,880	14,674	14,776	13,880	13,483	13,591	13,444	13,341	13,262	13,215	13,204	2,676	16.9
	아동 이용 시설	8세	16,399	15,928	14,724	14,828	13,936	13,542	13,646	13,499	13,397	13,317	13,271	3,128	19.1
		9세	16,837	16,438	15,968	14,766	14,871	13,982	13,591	13,692	13,544	13,442	13,361	3,476	20.6
		10세	15,336	16,869	16,467	15,998	14,800	14,905	14,020	13,630	13,728	13,579	13,479	1,857	12.1
		11세	15,750	15,374	16,906	16,502	16,036	14,839	14,944	14,061	13,673	13,768	13,619	2,131	13.5
		12세	16,880	15,803	15,426	16,958	16,552	16,088	14,891	14,995	14,115	13,728	13,821	3,059	18.1
		13세	16,187	16,920	15,842	15,465	16,997	16,589	16,126	14,929	15,033	14,157	13,770	2,417	14.9
		14세	15,590	16,204	16,940	15,862	15,484	17,015	16,605	16,144	14,948	15,053	14,180	1,410	9.0
		15세	16,187	15,594	16,213	16,952	15,875	15,496	17,026	16,613	16,153	14,959	15,066	1,121	6.9
		16세	17,226	16,197	15,605	16,227	16,968	15,891	15,511	17,039	16,624	16,166	14,974	2,252	13.1
		17세	17,996	17,225	16,200	15,608	16,233	16,975	15,898	15,518	17,045	16,626	16,169	1,827	10.2
		18세	19,305	17,907	17,151	16,135	15,547	16,176	16,912	15,830	15,453	16,979	16,543	2,762	14.3
0세-18세 전체 아동		303,793	294,547	288,675	284,177	280,442	277,752	275,685	273,004	269,575	267,202	265,127	268,666	12.7	
8세-13세 전체 아동		96,357	97,389	97,332	95,333	94,517	93,192	89,945	87,218	84,806	83,490	81,991	14,366	14.9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재구성

〈표6-11〉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대상아동연령 빈곤아동 추정

구분	연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증감수	증감율
	0세	200	199	198	198	198	198	199	198	198	196	194	-6	-3.0
	1세	261	259	257	256	256	256	256	256	256	256	254	-7	-2.7
	2세	312	309	306	304	303	302	303	303	303	303	302	-10	-3.2
	3세	350	354	350	347	345	343	343	343	344	344	344	-6	-1.7
	4세	407	395	398	394	391	388	387	386	387	387	388	-19	-4.7
	5세	488	458	445	449	444	440	437	436	435	436	437	-51	-10.5
	6세	548	552	518	503	507	502	498	495	493	493	493	-55	-10.0
	7세	825	763	768	721	701	706	699	693	689	687	686	-139	-16.8
지역 아동 센터	8세	881	856	791	797	749	728	733	725	720	716	713	-168	-19.1
	9세	987	963	936	865	871	819	796	802	794	788	783	-204	-20.7
	10세	971	1068	1043	1013	937	944	888	863	869	860	854	-117	-12.0
	11세	1118	1091	1200	1171	1138	1053	1061	998	970	977	967	-151	-13.5
	12세	1287	1205	1176	1293	1262	1226	1135	1143	1076	1046	1053	-234	-18.2
	13세	1315	1374	1287	1256	1381	1347	1310	1213	1221	1150	1118	-197	-15.0
	14세	1344	1397	1461	1368	1335	1467	1432	1392	1289	1298	1223	-121	-9.0
	15세	1482	1428	1485	1553	1454	1419	1559	1522	1479	1370	1380	-102	-6.9
	16세	1683	1582	1525	1585	1658	1552	1515	1665	1624	1579	1463	-220	-13.1
	17세	1813	1735	1632	1573	1635	1710	1602	1563	1717	1675	1629	-184	-10.1
	18세	1908	1770	1696	1595	1537	1599	1672	1565	1528	1679	1635	-273	-14.3
	0세~18세 전체 아동	19,483	18,891	18,514	18,225	17,986	17,813	17,681	17,509	17,289	17,137	17,004	-2,479	-12.7
	8세~13세 전체 아동	6,557	6,627	6,623	6,487	6,432	6,342	6,121	5,935	5,771	5,682	5,580	-977	-14.9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의 빈곤아동을 현재의 빈곤율로 추정해 보면, 0세에서부터 18세 까지의 아동중 빈곤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은 약 1.9만명에서 2030년 1.7만명으로 약 2 천명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8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기초수급아동은 2020년 6.6 천명에서 2030년 5.6천명으로 약 1.0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잠재적 이용수요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의 입소자는 2008년 170명에서 2017년 247명으로 증가하였고, 아동시설의 퇴소자도 같은 기간 213명에서 229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아동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6-12〉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전체아동	421,581	413,343	404,913	395,685	386,139	374,980	363,166	351,657	340,003	326,138	-
아동시설 입소자	170	144	142	154	155	193	193	159	166	247	172.3
아동시설 퇴소자	213	208	174	193	189	213	242	180	215	229	205.6
아동시설 순이동	-43	-64	-32	-39	-34	-20	-49	-21	-49	18	-33.3
현 아동시설 생활자	980	948	909	875	855	806	785	736	754	696	834.4
평균 입소율	0.23	0.23	0.22	0.22	0.22	0.21	0.22	0.21	0.22	0.21	0.22

〈표6-13〉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추이

시도별	기정보호												
	소계		시설입소										
	소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2008년	460(100.0)	230	(50.0)	142	(30.9)	0	(0.0)	0	(0.0)	88	(19.1)	221	(48.0)
2009년	465(100.0)	191	(41.1)	136	(29.2)	0	(0.0)	0	(0.0)	55	(11.8)	266	(57.2)
2010년	496(100.0)	200	(40.3)	134	(27.0)	0	(0.0)	1	(0.2)	65	(13.1)	253	(51.0)
2011년	413(100.0)	205	(49.6)	131	(31.7)	0	(0.0)	1	(0.2)	73	(17.7)	161	(39.0)
2012년	375(100.0)	204	(54.4)	105	(28.0)	0	(0.0)	0	(0.0)	99	(26.4)	155	(41.3)
2013년	304(100.0)	165	(54.3)	99	(32.6)	1	(0.3)	9	(3.0)	56	(18.4)	105	(34.5)
2014년	292(100.0)	168	(57.5)	135	(46.2)	2	(0.7)	1	(0.3)	30	(10.3)	92	(31.5)
2015년	252(100.0)	155	(61.5)	115	(45.6)	4	(1.6)	0	(0.0)	36	(14.3)	86	(34.1)
2016년	311(100.0)	219	(70.4)	119	(38.3)	24	(7.7)	0	(0.0)	76	(24.4)	59	(19.0)
2017년	287(100.0)	148	(51.6)	76	(26.5)	0	(0.0)	0	(0.0)	72	(25.1)	85	(29.6)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자료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 추이를 보면, 전체 요보호아동 중 시설입소자는 2017년 말 기준 148명으로 아동시설의 입소율은 51.6% 수준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시설입소아동의 비율은 최소 41.1%에서 최대 70.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양육시설 입소자는 전체 요보호아동의 2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보호아동 중 시설입소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73명 정도이고, 이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이외에 시설입소자는 평균 186명정도이고 가정보호자는 160명 정도이다. 다만, 시설입소자는 매년 유동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령, 시설입소자는 2012년까지 200명대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200명 이하로 감소, 그리고 2016년에는 다시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6-14〉 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율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요보호 아동 발생 총치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456	460	465	496	413	375	304	292	252	311	287	373.73
	귀가 및 연고자 인도	6	9	8	43	47	16	34	32	11	33	54	26.64
	보호조치(소계)	450	451	457	453	366	359	270	260	241	278	233	347.09
	시설입소	165	230	191	200	205	204	165	168	155	219	148	186.36
요보호아동 발생률 및 조치율	가정보호	285	221	266	253	161	155	105	92	86	59	85	160.73
	요보호아동 발생률	0.109	0.112	0.122	0.104	0.097	0.081	0.080	0.072	0.091	0.088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1.3	2.0	1.7	8.7	11.4	4.3	11.2	11.0	4.4	10.6	18.8	-
	보호조치(소계)	98.7	98.0	98.3	91.3	88.6	95.7	88.8	89.0	95.6	89.4	81.2	-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조치율	시설입소	36.7	51.0	41.8	44.2	56.0	56.8	61.1	64.6	64.3	78.8	63.5	-
	가정보호	63.3	49.0	58.2	55.8	44.0	43.2	38.9	35.4	35.7	21.2	36.5	-

다. 아동복지시설 수요분석

아동복지시설의 수요는 정책적 욕구는 우선 배제하고 아동복지시설 이용율 그리고 향후 이용의향 등 아동시설에 대한 직접적 욕구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아동양육가정의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율은 18.7%정도이고 방과후 학교의 경우 48.8%의 이용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는 7.12점으로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이용만족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6-15〉 전라북도 아동가구의 아동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만족정도

구분	이용유무(이용경험)			양육부담 경감정도(최대 10점)			만족정도(최대 10점)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14.8	14.0	14.5	5.64	6.60	5.94	6.61	6.78	6.66
드림스타트센터	5.9	18.0	9.5	6.09	6.30	6.19	6.56	6.27	6.40
지역아동센터	18.9	18.4	18.7	6.81	6.20	6.61	7.22	6.91	7.12
초등돌봄교실	29.4	53.1	36.3	6.21	6.79	6.48	6.67	7.32	6.98
방과후학교	46.3	55.1	48.8	6.08	6.07	6.08	6.34	6.82	6.5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3	9.8	6.0	5.80	5.71	5.75	5.86	6.14	6.00

자료 : 전북연구원(2018) 도민복지욕구조사 RAW DATA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하여 이용경험 및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경험은 대체로 미수급 가구보다는 수급가구의 아동이 약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이용만족도의 경우도 수급가구가 미수급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부 이용자의 경우 비수급가구의 아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빈곤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표6-16〉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 및 이용만족도 정도

구분	이용유무		양육부담 경감정도			이용 만족도			
	없음	있음	줄어들지 않음	부담을 덜어냄	평균	불만족	만족	평균	
수급 여부	미수급가구	82.9	17.1	32.0	68.0	6.44	32.1	67.8	6.82
	수급가구	70.6	29.4	20.0	80.0	7.20	0.0	100.0	8.20
지역	동부	89.0	11.0	35.6	64.3	6.29	46.2	53.9	6.85
	읍면부	70.4	29.6	23.5	76.5	6.88	14.3	85.7	7.29
전체	81.3	18.7	29.0	71.0	6.61	26.4	73.6	7.12	

자료 : 전북연구원(2018) 도민복지욕구조사 RAW DATA

〈표6-17〉 부모없이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 및 혼자 있는 시간

구분	부모없이 혼자 있는 아동(우무)		혼자 있는 시간						
	있음	없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지역	도시	32.4	67.6	2.8	30.6	50.0	13.9	2.8	0.0
	농촌	50.0	50.0	4.3	17.4	43.5	17.4	0.0	13.0
빈곤	빈곤	54.5	45.5		28.6	14.3	28.6	14.3	14.3
	비빈곤	35.8	64.2	3.9	25.5	51.0	13.7	2.0	3.9
+ 지역	전체	37.2	62.8	3.4	25.4	47.5	15.3	1.7	5.1
	도시	50.0	50.0		33.3		33.3	33.3	
	농촌	60.0	40.0		25.0		25.0		25.0
전체		54.5	45.5		28.6	14.3	28.6	14.3	14.3

자료 : 전북연구원(2018) 도민복지구조조사 RAW DATA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용시설로서 나홀로 아동이 사실상 정책수요의 대상이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부모없이 홀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은 54.5%정도이고 이중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와 3시간 정도가 28.6%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잠재수요로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인프라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아동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습지도 23.3%, 진로지도 22.6% 다음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시하고 있어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의 유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가수요의 분석에서는 이들 유사시설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방과후 돌봄시설로는 여성 가족부의 청소년이카데미,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정책동향이나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6-18〉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 유형

구분	학습 지도	학교 부적응	문제 행동	방과후 돌봄	진로 지도	여가 활동 부족	게임 중독	자녀 건강	기타
지역	도시	26.9	1.1		12.9	25.8	10.8	6.5	11.8
	농촌	14.3		2.4	23.8	14.3	21.4	9.5	9.5
빈곤	빈곤	36.4				9.1	27.3	27.3	
	비빈곤	22.1	0.8	0.8	18.0	23.8	12.3	4.9	12.3
	전체	23.3	0.8	0.8	16.5	22.6	13.5	6.8	11.3

자료 : 전북연구원(2018) 도민복지구조조사 RAW DATA

〈표6-19〉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아동상담소	전용시설	개인양육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0	12,789	242	11,665	11	497	12	221	12	279	3	127	6	5	17	113
서울	49	2,737	36	2,330	3	155	3	74	5	77	2	101	0	0	1	4
부산	21	1,106	19	1,078	0	0	1	26	1	2	0	0	0	0	0	0
대구	23	757	18	643	2	55	2	38	1	21	0	0	0	0	0	0
인천	10	531	9	500	0	0	0	0	1	31	0	0	5	1	0	0
광주	12	563	10	504	0	0	1	15	1	44	0	0	0	1	0	0
대전	14	512	12	386	1	113	1	13	0	0	0	0	0	0	0	0
울산	1	127	1	127	0	0	0	0	0	0	0	0	0	0	0	0
세종	1	27	1	27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28	1,252	25	1,116	1	40	0	0	2	96	0	0	1	0	6	60
강원	10	334	8	300	0	0	0	0	1	8	1	26	0	0	3	15
충북	13	549	11	502	1	32	1	15	0	0	0	0	2	1	2	2
충남	14	634	13	617	0	0	1	17	0	0	0	0	0	0	0	0
전북	16	696	14	616	1	66	1	14	0	0	0	0	0	0	0	0
전남	23	1,100	21	1,074	1	17	1	9	0	0	0	0	0	0	2	10
경북	15	714	15	714	0	0	0	0	0	0	0	0	0	0	3	20
경남	25	878	24	859	1	19	0	0	0	0	0	0	0	1	1	2
제주	5	272	5	272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아동복지시설 현황(일람표)

한편, 전라북도의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이 총 14개소에 총 616명이 생활하고 있고, 보호치료시설은 1개소에 총 66명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자립시설도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이용아동이 14명이다. 이외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표6-20〉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 현황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7,850	12,789	15,866	11,665	643	497	362	221	754	279	225	127		
서울	3,786	2,737	2,857	2,330	175	155	95	74	469	77	190	101		
부산	1,529	1,106	1,485	1,078	0	0	29	26	15	2	0	0		
대구	1,135	757	973	643	72	55	60	38	30	21	0	0		
인천	679	531	629	500	0	0	0	0	50	31	0	0		
광주	731	563	651	504	0	0	30	15	50	44	0	0		
대전	796	512	612	386	150	113	34	13	0	0	0	0		
울산	150	127	150	127	0	0	0	0	0	0	0	0		
세종	48	27	48	27	0	0	0	0	0	0	0	0		
경기	1,568	1,252	1,418	1,116	40	40	0	0	110	96	0	0		
강원	509	334	444	300	0	0	0	0	30	8	35	26		
충북	791	549	731	502	36	32	24	15	0	0	0	0		
충남	811	634	781	617	0	0	30	17	0	0	0	0		
전북	877	696	777	616	70	66	30	14	0	0	0	0		
전남	1,675	1,100	1,575	1,074	70	17	30	9	0	0	0	0		
경북	1,121	714	1,121	714	0	0	0	0	0	0	0	0		
경남	1,356	878	1,326	859	30	19	0	0	0	0	0	0		
제주	288	272	288	272	0	0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아동복지시설 현황(일람표)

〈표6-21〉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정원총률을 현황)

구분	시설명	지역	2018년			2017년			2016년			구분
			정원	현원	총족율	정원	현원	총족율	정원	현원	총족율	
전체			877	680	77.54	877	696	79.36	892	735	82.40	
전주	양육 전주영아원	전주	39	36	92.31	39	35	89.74	39	25	64.10	
	양육 삼성휴먼빌	전주	45	40	88.89	45	40	88.89	52	32	61.54	
	양육 호성보육원	전주	80	56	70.00	80	59	73.75	58	43	74.14	
	전체		1041	812	75.67	1041	830	78.515	1041	835	63.71	
군산	양육 모세스영아원	군산	32	29	90.63	32	25	78.13	30	15	50.00	
	양육 일맥원	군산	80	58	72.50	80	58	72.50	56	37	66.07	
	양육 삼성애육원	군산	38	34	89.47	38	34	89.47	36	19	52.78	
	양육 구세군산후생원	군산	54	38	70.37	54	41	75.93	43	22	51.16	
	전체		204	159	69.79	204	158	81.60	165	93	52.55	
의안	양육 기독삼애원	의산	50	47	94.00	50	49	98.00	58	31	53.45	
	양육 이리보육원	의산	54	49	90.74	54	44	81.48	52	25	48.08	
	양육 시문육아원	의산	54	44	81.48	54	44	81.48	46	29	63.04	
	전체		158	140	76.22	158	137	70.47	156	85	64.45	
정읍	양육 정읍애육원	정읍	80	57	71.25	80	60	75.0	62	30	48.39	
완주	양육 선덕보육원	완주	55	34	61.82	55	39	70.91	39	14	35.90	
고창	양육 고창행복원	고창	60	40	66.67	60	43	71.67	47	27	57.45	
	양육 요얼원	고창	56	44	78.57	56	45	80.36	48	30	62.50	
	전체		116	84	90.47	116	88	89.05	95	57	67.55	
고창	치료 희망샘학교	고창	70	61	87.14	70	66	94.29	70	52	74.29	
전주	자립 삼성자립 생활관	전주	30	13	43.33	30	14	46.67	30	17	56.67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각연도) 재구성

전라북도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주요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주, 군산, 익산 등 총 9개 지역이고, 이중 대부분의 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이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의 정원총률율은 82.4%로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총 2개의 시설은 정원총률율이 50%미만이다.

〈표6-22〉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생활이동 현황

구분	시설수	총사자수	정원	수 용 인 원			아 동 현 황							
				계	남	여	계	미 취 학						
								0-3미만	3-6미만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계	16	305	877	696	393	303	696	34	106	174	154	164	31	33
아동양육시설	14	277	777	616	340	276	616	34	106	174	133	148	20	1
아동보호치료시설	1	25	70	66	48	18	66	0	0	0	21	16	0	29
아동자립지원시설	1	3	30	14	5	9	14	0	0	0	0	0	11	3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아동전용시설														
개인양육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아동복지시설 현황(일람표)

라. 아동복지시설 필요시설 수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은 전술한 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모수가 되는 요보호아동의 발생 수를 추정해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요보호아동 발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2020년 약 289명에서 2030년 약 252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귀식을 적용할 경우 2020년 요보호아동은 183명에서 2030년 90명으로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요보호아동의 발생율과 함께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가 평균 약 53%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보호아동 전체가 시설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보호아동 중 시설입소 희망 혹은 불가피하게 시설입소가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시설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의 현재 평균 정원이 약 60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원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율을 고려하여 수용한계를 설정하고 향후 요보호아동의 발생율과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율 등을 고려하여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에 따른 향후 시설의 적정개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요보호아동과 시설입소율 등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면 일시보호시설과 장애아동시설은 특정수요 혹은 정책수요에 따라 지역 간 설치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책수요로 판단하여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설치를 통한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지역별 수 요보다는 광역단위에서 시설보호 혹은 가정보호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보호아동의 직접적인 욕구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시군 혹은 광역단위의 1개소 정도의 설치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6-23〉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발생 추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전체아동	303,793	294,547	288,675	284,177	280,442	277,752	275,685	273,004	269,575	267,202	265,127
평균(2008~2017년) <u>요보호아동</u> 발생율	289	280	274	270	266	264	262	259	256	254	252
회귀식	<u>요보호아동</u> 발생율	183	160	146	135	127	120	115	109	100	95
	<u>요보호아동</u> 발생율	0.06	0.05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3

〈표6-24〉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수요추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요보호 아동 수	평균 발생율 기준 요보호아동	289명	280명	274명	270명	266명	264명	262명	259명	256명	254명
	회귀방정식 기준 요보호아동	183명	160명	146명	135명	127명	120명	115명	109명	100명	95명
요보호 아동 시설입소	평균 발생율 기준 요보호아동	153명	148명	145명	143명	141명	140명	139명	137명	136명	135명
	회귀방정식 기준 요보호아동	97명	85명	77명	72명	67명	64명	61명	58명	53명	50명
요보호 아동 전체 보호	평균적용 추가 수요 시설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3개소	3개소	2개소							
미충원 적용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2개소	1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0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요보호 아동 중 시설보호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1개소									
미충원 적용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2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2개소	-2개소	-2개소	-3개소						

전라북도의 아동복지시설의 수요를 요보호아동 발생율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율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적정시설의 수를 추정해 보면, 요보호아동 전체의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추가 시설 수는 최소 3개소에서 5개소정도이고 이 같은 추가 필요시설 수는 아동 인구의 지속적이 감소로 인해 2030년에는 최소 2개소에서 4개소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거승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충족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최소 0개소에서 최대 2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현재의 시설보다도 2개소를 축소하거나 최대 1개소 정도만 추가하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전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하지 않고 일부는 가정 위탁이나 원가정 복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입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율을 기준으로 향후 아동복지시설의 추가 시설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를 추정해 보면, 미충원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최소 1개소에서 2개소 정도가 향후에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의 미충원율을 지금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최소 2개소에 최대 3개소는 축소하는 것 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6-25〉 전라북도 공동생활가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요보호 이동 수 [⑧]	평균 발생을 기준 요보호이동	289명	280명	274명	270명	266명	264명	262명	259명	256명	254명	252명
	회귀방정식 기준 요보호이동	183명	160명	146명	135명	127명	120명	115명	109명	100명	95명	90명
요보호 이동시설입소[⑥] (공동생활가정)	평균 발생을 기준 요보호이동	52명	51명	50명	49명	48명	48명	47명	47명	46명	46명	46명
	회귀방정식 기준 요보호이동	33명	29명	26명	24명	23명	22명	21명	20명	18명	17명	16명
추가 요보호 이동 전체 보호 [⑧기준]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41개소	40개소	39개소	39개소	38개소	38개소	37개소	37개소	37개소	36개소	36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26개소	23개소	21개소	19개소	18개소	17개소	16개소	16개소	14개소	14개소	13개소
미충원 적용 추가시설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34개소	32개소	31개소	31개소	30개소	30개소	29개소	29개소	29개소	28개소	28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18개소	15개소	13개소	12개소	10개소	9개소	9개소	8개소	7개소	6개소	5개소
추가 수요 시설 보호 [⑥]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7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5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미충원 적용 추가시설	평균적용 추가 시설 수	0개소	0개소	-1개소								
	회귀방정식 적용 추가 시설 수	-3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중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필요한 시설수를 아동복지시설의 추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해 보면, 요보호이동 전체를 대상으로 추계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26개소에서 최대 4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미충원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미충원시설의 부족한 생활인원을 감안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18개소에서 34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생활가정도 아동양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필요한 시설의 개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충원 시설을 감안할 경우 2030년에 공동생활 가정은 최소 5개소에서 최대 28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보호이동의 발생 이후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보호 형태로 요보호이동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이동의 비율도 일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요보호이동 중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율을 기준으로 추가시설 수를 파악해 보면, 2020년에는 최소 5개소에서 최대 7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중 미충원 시설의 정원부족분을 감안할 경우 최소 2020년에는 최소 3개소에서 2030년 최대 5개소 정도는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6-26〉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추가 수요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관련 지표 추정	전체아동	96357	97389	97332	95333	94517	93192	89945	87218	84806	83490
	빈곤아동	6,557	6,627	6,623	6,487	6,432	6,342	6,121	5,935	5,771	5,682
	나홀로아동(전체)	52,515	53,077	53,046	51,956	51,512	50,790	49,020	47,534	46,219	45,502
	나홀로아동(3시간이상)	30,038	30,360	30,342	29,719	29,465	29,052	28,039	27,189	26,437	26,027
필요 시설수	나홀로아동 전체 기준*	427	428	428	425	424	422	417	413	410	408
	나홀로아동 3시간 기준*	366	367	367	365	364	363	360	358	356	354
	빈곤아동 기준	262	265	265	259	257	254	245	237	231	227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주* 나홀로 아동기준 지역아동센터 추가시설 수는 나홀로아동 중 빈곤아동비율(18-13세)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수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수를 합산하여 축예

방과후 돌봄이용시설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수요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과후 돌봄제 공자가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동(나홀로 아동)의 규모 그리고 빈곤아동의 규모 등의 변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나홀로 아동을 기준점으로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는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수요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나홀로 아동 그리고 빈곤아동을 기준점으로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추정해 보면, 현재 돌봄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나홀로 아동과 여기에 빈곤한 아동의 비율은 전체 아동의 약 4.6%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6-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돌봄수요아동 계층별 현황 추정



자료 : 이충섭 외(2018) 전라북도 복지욕구조사 Raw data 분석

〈표6-2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추가 수요

	A집단	B집단	D집단	C집단
대상아동 전체인구	8,316명	8316명	91231명	91231명
대상아동	54.5%	45.5%	64.2%	35.8%
대상아동	4,532명	3784명	58570	32661명
필요시설 수	181개소	151개소	2,343개소	1,306개소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는 나흘로 아동이면서 빈곤한 아동으로 국가와 가족의 돌봄서비스에서 누락된 약 4.5천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정량적으로 나흘로 아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최소 80여개 이상은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설치 혹은 현재 아동양육시설의 돌봄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흘로 아동이면서 빈곤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도 광범위하게는 지역아동센터의 잠재적 수요에 해당된다. 이 계층에 해당되는 아동은 약 3.3천명정도로 전체 아동의 약 32.8%에 해당된다. 물론 나흘로 아동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빈곤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외의 방과후 돌봄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직접적인 수요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계층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총 285개소이고 이는 아동인구 천명당 1.225개소로 전국 평균인 0.673개소보다는 많지만 방과후 돌봄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광주(1.463개소), 전남(1.699개소)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추가설치 혹은 아동양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표6-28〉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주요 현황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 센터 현황	센타수	4,189	450	208	198	182	306	145	54	12	783	168	185	240	285	379	267	261	66
	비율	100	10.7	5	4.7	4.3	7.3	3.5	1.3	0.3	18.7	4	4.4	5.7	6.8	9	6.4	6.2	1.6
	전체아동 인구(만명)	622 만	104 만	36 만	30 만	35 만	21 만	20 만	15 만	4 만	167 만	18 만	19 만	26 만	23 만	22 만	30 만	42 만	9 만
	아동인구당 센타수 (천명기준)	0.673	0.432	0.576	0.652	0.513	1.463	0.739	0.362	0.299	0.470	0.922	0.952	0.929	1.225	1.699	0.897	0.621	0.747
2017년 신규 센터	센타수	102	20	4	1	2	4	1	3	0	22	4	5	11	3	8	7	6	1
	비율	100	19.6	3.9	1	2	3.9	1	2.9	0	21.6	3.9	4.9	10.8	2.9	7.8	6.9	5.9	1

2. 노인복지시설 수요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로 노인복지시설은 일상생활수행이 가능한 노인과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노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이 결정된다.

노인복지시설은 이용연령도 60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하여 시설이 운영된다. 가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등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추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연령에 대한 추계 그리고 각 노인의 각 복지수요에 따른 욕구기준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시설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주거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있는 노인 중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표6-29〉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종류	변경후	수요형태	대상	연령계층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복지수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빈곤노인, 부양의무자없는 노인 등)	60세~65세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복지수요		
	노인복지주택	정책수요	단독취사 및 독립주거가 가능한 노인	60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복지수요	노인성질환을 노인	65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복지수요	(치매, 중풍, 일상생활 장애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복지수요	교양, 취미,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욕구가 있는	60세 이상
	경로당	복지수요	건강한 노인	65세 이상
	노인교실	복지수요		60세 이상
제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복지수요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목욕서비스	복지수요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수요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자	
	주야간보호서비스	복지수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65세 이상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수요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제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수요	기본부터 리목까지의 서비스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서비스가 필요한 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책수요	학대피해노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정책수요	노인일자리 수요가 있는 건강한 노인	60세 이상

다음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는 달리 의료복지시설은 몸이 불편한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노인의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가정이나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대상을 중심으로 시설의 수요가 추정될 수 있다. 이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보호만큼의 와상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지만 보호대상자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노인돌봄시설의 수요는 현재 노인 중에서 돌봄서비스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에 대한 현황 그리고 장애노인 중 공적 및 사적 돌봄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계층을 분류하여 원하는 돌봄서비스의 유형, 즉 재가와 시설보호의 형태로 그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한 시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인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수를 파악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의 규모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다만, 돌봄보다는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은 수요로 인한 추정보다는 타시도 및 시군과의 비교를 통한 적정성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노인의 욕구에 따른 시설의 설치보다는 시군당 1개소 혹은 광역자치단체 1개 지역당 1개소 등 정량적 기준으로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 시군구 단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고령노인의 이용수요보다는 정량적으로 특정인구 규모에 따른 설치개수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같은 기준하에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이용시설의 적성성을 평가할 때는 인구규모에 더하여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노인복지관이 인구당 시설 수가 적정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유형에 해당하고 특히, 경로당도 도시와 농촌별로 시설수에 있어 다소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간 인구대비 시설수를 기준으로 적정성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구 추이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약 3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5%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08년 약 27.2만명에서 2018년 36.8만명으로 약 9만명정도가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현재 19.5%로 2001년 8.8%보다도 약 두배 정도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법정 노인연령인 65세부터 이용가능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60세부터 복지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노인인구의 추계 혹은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노인에 대한 수요 점검 치 향후 추계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이나 와상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추정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여기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을 돌볼수 있는 지원체계 즉,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의 제도적 지원 여부에 대한 분석도 교차하여 검증하는 것이 정확한 복지시설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노인을 건강정도와 소득정도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수혜여부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표6-30〉 노인인구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전체	7.36	7.70	8.07	8.49	8.86	9.30	9.87	10.23	10.58	10.90	11.24	11.74	12.22	12.70	13.15	13.53	14.21	14.76	7.40
서울	5.71	6.00	6.36	6.78	7.19	7.67	8.29	8.73	9.17	9.72	10.19	10.84	11.45	12.04	12.60	13.05	13.80	14.44	8.73
부산	6.42	6.83	7.27	7.80	8.32	8.92	9.63	10.20	10.78	11.26	11.77	12.50	13.25	13.98	14.65	15.32	16.29	17.14	10.72
대구	6.23	6.56	6.92	7.38	7.78	8.26	8.86	9.33	9.73	10.04	10.37	10.94	11.56	12.17	12.71	13.24	14.04	14.74	8.51
인천	5.68	5.93	6.25	6.57	6.87	7.24	7.69	8.02	8.33	8.62	8.94	9.39	9.81	10.26	10.69	11.02	11.70	12.27	6.59
광주	5.84	6.09	6.41	6.75	7.09	7.52	8.05	8.33	8.66	8.97	9.32	9.85	10.31	10.83	11.30	11.75	12.36	12.83	6.99
대전	5.72	5.97	6.26	6.59	6.86	7.21	7.72	8.05	8.39	8.66	8.96	9.38	9.83	10.34	10.90	11.33	12.03	12.65	6.93
울산	4.23	4.45	4.71	5.03	5.31	5.62	6.02	6.29	6.57	6.82	7.09	7.47	7.91	8.34	8.79	9.28	10.01	10.72	6.49
세종	-	-	-	-	-	-	-	-	-	-	-	-	15.22	14.70	12.67	10.62	9.96	9.59	9.29
경기	5.94	6.19	6.48	6.79	7.06	7.40	7.84	8.14	8.42	8.67	8.98	9.39	9.77	10.15	10.53	10.81	11.40	11.87	5.93
강원	9.77	10.33	10.91	11.52	12.13	12.75	13.45	13.92	14.36	14.81	15.18	15.71	16.18	16.57	16.89	17.16	18.06	18.75	8.98
충북	9.54	9.97	10.41	10.93	11.33	11.77	12.36	12.67	12.97	13.20	13.40	13.75	14.13	14.50	14.82	15.12	15.83	16.37	6.83
충남	11.75	12.28	12.75	13.06	13.34	13.74	14.31	14.55	14.78	14.87	14.99	15.27	15.64	16.04	16.42	16.70	17.15	17.52	5.77
전북	10.70	11.32	11.76	12.46	12.93	13.49	14.32	14.67	14.97	15.22	15.58	16.21	16.70	17.24	17.84	18.30	18.94	19.51	8.81
전남	12.58	13.35	14.11	14.88	15.58	16.31	17.23	17.63	17.97	18.29	18.61	19.19	19.64	20.14	20.53	20.95	21.54	21.94	9.36
경북	11.23	11.74	12.30	12.94	13.39	13.85	14.57	15.05	15.44	15.57	15.72	16.21	16.76	17.30	17.75	18.23	19.05	19.78	8.55
경남	8.80	9.15	9.49	9.89	10.25	10.65	11.09	11.36	11.63	11.81	12.07	12.50	12.95	13.40	13.79	14.24	14.92	15.51	6.71
제주	8.33	8.72	9.15	9.60	10.01	10.51	11.04	11.45	11.86	12.19	12.60	13.01	13.36	13.57	13.76	13.90	14.17	14.42	6.09

자료 : 통계청(2018) e-지방지표

〈표6-31〉 전라북도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구분	연령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재가복지센터	60-64	89,184	98,338	100,851	102,153	101,913	102,022	106,160	112,217	118,749	125,135	132,457
	65-69	93,633	90,189	88,659	86,811	84,112	87,492	91,901	98,716	99,944	99,781	99,878
	70-74	78,621	80,777	80,050	82,446	89,843	88,225	85,317	83,782	82,388	80,349	83,523
	75-79	52,125	55,959	60,570	64,173	66,807	69,316	71,862	71,225	73,568	80,641	79,342
	80-84	28,525	30,955	33,914	36,130	38,154	40,745	44,223	48,181	51,298	53,751	55,907
	85-89	14,142	14,299	14,611	15,397	16,840	18,176	20,205	22,256	24,021	25,614	27,578
	90-94	4,102	4,393	4,957	5,244	5,992	6,821	6,969	7,089	7,470	8,332	9,108
	95-99	910	926	1,155	1,237	1,316	1,407	1,546	1,686	1,817	2,108	2,326
	100+	173	184	457	481	522	582	603	639	697	706	748
	60세 이상 노인	361,415	371,020	385,224	394,072	406,499	414,786	428,786	445,741	459,952	476,417	490,867
	65세 이상 노인	272,231	277,682	284,373	291,919	303,586	312,764	322,626	333,524	341,203	351,282	358,410

자료 : 통계청(2018) e-지방자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를 연령대별로 추정해 보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수요계층에 해당되는 연령층은 2008년 27.2만명에서 2018년 36.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빈곤노인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라북도 전체 60세 이상의 빈곤노인은 2017년 말 기준 2.4만명이고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은 3.0만명이다. 전라북도의 60세 이상 빈곤노인은 2007년 2.9만명에서 2017년 2.4만명으로 약 5만명 정도가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빈곤노인도 2007년 3.5만명에서 2017년 3.0만명으로 약 5만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빈곤노인의 감소는 양로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표6-32〉 전라북도 빈곤노인 현황 및 추이

구분	연령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시설	60-64	5,296	5,212	5,296	5,397	5,110	4,737	4,452	4,631	5,480	5,728	6,096
	65-69	7,731	7,004	6,482	6,229	5,561	5,011	4,870	4,979	5,832	5,782	5,735
	70-74	8,194	7,777	7,444	7,009	6,539	6,545	6,073	5,631	6,028	5,565	5,123
	75-79	6,624	6,487	6,452	6,569	6,203	5,900	5,646	5,439	5,605	5,528	5,751
	80-84	4,270	4,221	4,291	4,412	4,143	3,987	3,970	3,981	4,305	4,271	4,178
	85-89	2,184	2,343	2,170	2,121	2,019	2,002	2,008	2,122	2,299	2,301	2,258
	90-94	663	705	746	735	682	759	821	738	761	793	854
	95-99	146	144	138	140	154	155	171	181	185	182	223
	100+	40	43	41	33	28	25	29	29	32	39	40
	60세 이상 노인	35,148	33,936	33,060	32,645	30,439	29,121	28,040	27,731	30,527	30,189	30,258
	65세 이상 노인	29,852	28,724	27,764	27,248	25,329	24,384	23,588	23,100	25,047	24,461	24,162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재구성

〈표6-33〉 전라북도 빈곤노인 비율 및 추이

		연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시설	60~64	5.84	5.67	5.35	5.00	4.65	4.36	4.36	4.88	4.82	4.87	4.98
		65~69	7.48	7.19	7.03	6.41	5.96	5.57	5.42	5.91	5.79	5.75	6.25
		70~74	9.89	9.22	8.76	7.93	7.28	6.88	6.60	7.19	6.75	6.38	7.69
		75~79	12.45	11.53	10.85	9.67	8.83	8.15	7.57	7.87	7.51	7.13	9.15
		80~84	14.80	13.86	13.01	11.47	10.45	9.74	9.00	8.94	8.33	7.77	10.74
		85~89	16.57	15.18	14.52	13.11	11.89	11.05	10.50	10.33	9.58	8.82	12.15
		90~94	17.19	16.98	14.83	13.01	12.67	12.04	10.59	10.81	10.62	10.25	12.90
		95~99	15.82	14.90	12.12	12.45	11.78	12.15	11.71	10.97	10.02	10.58	12.25
		100+	24.86	22.28	7.22	5.82	4.79	4.98	4.81	5.01	5.60	5.67	9.10
		60세 이상 노인	9.39	8.91	8.47	7.72	7.18	6.76	6.47	6.85	6.56	6.35	7.47
		65세 이상 노인	10.55	10.00	9.58	8.68	8.03	7.54	7.16	7.51	7.17	6.88	8.31

전북의 빈곤노인의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전체 노인의 약 6.9%정도이다. 전라북도의 빈곤노인의 구성비는 2008년 10.0%에서 2017년 6.9%로 약 3.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빈곤노인은 9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경우 빈곤노인이 10%를 상회하고 있고 70세 이하의 노인은 전체 노인의 6% 내외의 비율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인구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2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노인은 약 5.1만명에서 2025년 6.0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6.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노인도 2020년에는 3.7만명 그리고 2025년에는 4.5만명, 2030년에는 5.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세 잇아 빈곤노인의 경우 2020년 약 3.8만명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약 5.1만명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할 경우에는 2020년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3.1만명, 그리고 2025년 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추정치는 수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정책의 유동적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만

〈표6-34〉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관련 지표 추정	60세 이상 노인	511,081	533,640	550,456	569,655	584,107	601,074	618,391	634,848	650,877	670,616
	65세 이상 노인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60세 이상 빈곤노인	38,178	39,863	41,119	42,553	43,633	44,900	46,194	47,423	48,621	50,095
	65세 이상 빈곤노인	30,873	31,969	33,106	34,374	35,723	37,412	39,173	40,477	41,972	43,079

〈표6-35〉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계

		연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재기복지센터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60-64	139,560	148,933	152,069	156,008	154,229	150,870	146,995	147,762	145,798	152,220	153,692
		65-69	105,476	111,576	117,046	125,884	133,630	140,480	150,031	153,461	157,591	156,038	152,931
		70-74	89,284	93,890	94,078	93,892	97,452	102,822	109,210	114,964	123,799	131,660	138,745
		75-79	74,630	73,038	72,870	73,793	76,714	82,769	86,998	87,581	87,807	91,392	96,931
		80-84	57,347	57,841	62,563	65,078	63,547	62,600	61,298	61,776	63,104	65,789	71,136
		85-89	31,439	33,957	35,986	37,538	39,418	40,381	40,973	44,766	46,751	45,778	45,240
		90-94	10,828	11,799	12,833	13,940	15,187	16,818	18,186	19,344	20,278	21,429	22,121
		95-99	2,176	2,291	2,647	3,062	3,481	3,872	4,202	4,603	5,047	5,524	6,152
		100+	281	315	364	460	449	462	498	591	702	786	873
		60세 이상 노인	511,081	533,640	550,456	569,655	584,107	601,074	618,391	634,848	650,877	670,616	687,821
		65세 이상 노인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를 노인복지관의 이용연령대를 기준으로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60세에서 64세의 노인이 13.9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세~69세 노인이 10.5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어 60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이 전체 노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은 대체로 60세~70세의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비중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인구구성비에서 80세 이상이 고령인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설의 잠재적 인구계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빈곤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양로시설과 재기노인복지시설의 주된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시설의 적정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빈곤노인의 인구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표6-36〉 전라북도 빈곤 노인인구 추계

		연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재기복지센터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60-64	6,950	7,417	7,573	7,769	7,681	7,513	7,320	7,359	7,261	7,581	7,654
		65-69	6,592	6,974	7,315	7,868	8,352	8,780	9,377	9,591	9,849	9,752	9,558
		70-74	6,866	7,220	7,235	7,220	7,494	7,907	8,398	8,841	9,520	10,125	10,669
		75-79	6,834	6,683	6,668	6,752	7,019	7,573	7,960	8,014	8,034	8,362	8,869
		80-84	6,159	6,212	6,719	6,989	6,825	6,723	6,583	6,635	6,777	7,066	7,640
		85-89	3,820	4,126	4,372	4,561	4,789	4,906	4,978	5,439	5,680	5,562	5,497
		90-94	1,397	1,522	1,655	1,798	1,959	2,170	2,346	2,495	2,616	2,764	2,854
		95-99	267	281	324	375	426	474	515	564	618	677	754
		100+	26	29	33	42	41	42	45	54	64	72	79
		60세 이상 노인	38,178	39,863	41,119	42,553	43,633	44,900	46,194	47,423	48,621	50,095	51,380
		65세 이상 노인	30,873	31,969	33,106	34,374	35,723	37,412	39,173	40,477	41,972	43,079	44,386

나. 노인복지시설 수요분석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는 와상노인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주로 일상생활장애노인(ADL, IADL) 그리고 치매노인 등 노인성질환자 등으로 파악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의 8.48%인 약 4.1만명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노인은 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경우 전체 치매노인의 35.24%를 차지하고 있고, 80세에서 84세의 노인이 전체 치매노인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치매노인의 절반이상은 80세 이상의 고령노령에서 발견되고 있다.

치매노인은 국가의 제도적 돌봄체계인 장기요양보험의 주된 수혜대상자이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증가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증가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의 증가를 수반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등은 향후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의 유병율에 기초하여 적정 시설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치매노인은 전체적으로 유병률 기준으로 약 8.49%로 약 4.1만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분류되고 있고, 연령대별로 보면, 8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치매노인의 35.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6-37〉 전라북도 치매노인 현황

구분	치매 유병율	전체 치매 환자수	성별		연령별 치매노인수						연령별 치매노인 구성비					
			남자	여자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세 이상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세 이상
전북	8.48	40688	14748	25943	790	1380	3131	9523	1152 8	1433 9	1.94	3.39	7.70	23.40	28.33	35.24
전주	7.13	8875	3416	5460	231	387	817	2133	2407	2900	2.60	4.36	9.21	24.03	27.12	32.68
군산	7.39	4692	1745	2947	117	197	433	1111	1230	1605	2.49	4.20	9.23	23.68	26.21	34.21
의산	8.06	5723	2081	3643	127	211	447	1317	1564	2057	2.22	3.69	7.81	23.01	27.33	35.94
정읍	9.53	3505	1212	2293	52	96	244	820	1049	1245	1.48	2.74	6.96	23.40	29.93	35.52
남원	9.71	2673	947	1726	39	74	176	603	794	987	1.46	2.77	6.58	22.56	29.70	36.92
김제	9.93	3201	1129	2072	46	86	207	704	922	1236	1.44	2.69	6.47	21.99	28.80	38.61
완주	8.75	2306	840	1467	44	76	170	529	664	823	1.91	3.30	7.37	22.94	28.79	35.69
진안	9.97	1062	379	684	15	28	71	239	317	392	1.41	2.64	6.69	22.50	29.85	36.91
무주	10.11	995	356	639	14	24	60	238	293	366	1.41	2.41	6.03	23.92	29.45	36.78
장수	9.94	910	322	588	12	25	55	216	273	328	1.32	2.75	6.04	23.74	30.00	36.04
임실	10.59	1281	460	820	16	31	76	293	386	479	1.25	2.42	5.93	22.87	30.13	37.39
순창	10.29	1192	412	780	15	28	76	298	358	417	1.26	2.35	6.38	25.00	30.03	34.98
고창	9.80	2252	753	1499	31	59	154	554	662	793	1.38	2.62	6.84	24.60	29.40	35.21
부안	9.44	2021	696	1325	31	58	145	468	609	711	1.53	2.87	7.17	23.16	30.13	35.18

자료 : 중앙치매센터(2017) 전국 치매현황 재구성

〈표6-38〉 치매노인 추정치 비교

구분	노인실태조사(2017)				치매역학조사(2016)			
	조사대상 노인수	표본수	전체노인 대비 치매비율	인지장애자(MMSE-DS) 비율	조사노인수	치매유병률 (%)	최대표준 오차	상대표준 오차
합계	10,299	1,458	14.2	100	3,703	9.80%	0.0041	4.20
서울	1,886	266	14.1	18.3	728	8.80%	0.0093	10.50
부산	786	106	13.5	7.3	143	8.70%	0.0209	24.00
대구	490	77	15.7	5.3	131	9.10%	0.0218	24.00
인천	485	53	10.9	3.6	201	9.60%	0.0176	18.40
광주	260	31	11.9	2.1	115	9.30%	0.0233	25.10
대전	257	27	10.5	1.9	89	9.50%	0.0265	27.90
울산	163	21	12.9	1.4	148	8.60%	0.0205	23.90
세종	37	3	8.1	0.2				
경기	2,068	361	17.5	24.8	685	9.70%	0.0096	9.80
강원	391	46	11.8	3.2	168	10.50%	0.0193	18.40
충북	356	51	14.3	3.5	123	10.60%	0.0225	21.30
충남	511	101	19.8	7	229	11.00%	0.0165	15.00
전북	494	40	8.1	2.8	131	10.70%	0.0218	20.40
전남	561	57	10.2	3.9	117	11.00%	0.0231	21.00
경북	720	100	13.9	6.9	178	10.70%	0.0187	17.50
경남	705	98	13.9	6.7	376	10.20%	0.0129	12.60
제주	130	19	14.6	1.3	141	10.50%	0.021	2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노인실태조사, 중앙치매센터(2017) 치매역학조사 재구성

치매노인의 지역별 추정치를 노인생활실태조사와 치매역학조사의 결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치매노인의 비율이 전체 노인의 약 1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치매역학조사에서는 9.8%로 제시되고 있어 두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지만 치매역학조사의 치매유병률 기준으로는 10.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노인의 비율은 향후 돌봄서비스 및 돌봄시설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노인생활실태조사 그리고 치매역학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노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조사로 치매노인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어 치매역학조사보다는 정확도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역간에도 치매노인의 비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노인 중 치매노인의 비율은 19.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라북도와 세종시는 전체 노인의 8.0%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역간의 치매노인의 비율에 있어 격차가 약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치매노인 추정 시 참고해야 한다.

〈표6-39〉 치매노인 유병률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60-64	18,258	19,351	20,764	22,246	23,354	24,875	25,796	26,200	23,854	21,053
65-69	30,708	31,800	32,790	34,073	36,979	40,294	51,677	57,086	59,555	53,304
70-74	66,417	67,599	69,204	72,851	76,846	80,748	97,964	137,668	156,945	143,638
75-79	166,807	177,606	187,262	187,816	188,953	183,527	212,222	272,473	426,102	451,875
80-84	183,324	196,311	208,058	221,340	230,996	239,924	274,551	314,559	585,133	687,319
85+	210,969	230,652	251,632	275,149	303,059	331,603	447,563	585,865	948,823	1,690,457
전체	676,483	723,319	769,710	813,475	860,187	900,971	1,109,773	1,393,851	2,200,412	3,047,646
전체 65세 이상	658,225	703,968	748,946	791,229	836,833	876,096	1,083,977	1,367,651	2,176,558	3,026,593
전체 60세 이상	676,483	723,319	769,710	813,475	860,187	900,971	1,109,773	1,393,851	2,200,412	3,047,646
유병률 65세 이상	9.73	9.95	10.15	10.28	10.29	10.25	10.32	10.56	12.71	16.09
유병률 60세 이상	6.93	7.06	7.15	7.18	7.2	7.15	7.56	8.1	10.51	13.8

자료 : 중앙치매센터(2016) 치매역학조사 보고서

치매유병률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유병률은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의 약 10.28%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2020년에는 10.29% 그리고 2050년에는 16.09%정도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지체 근거하면 전라북도도 2020년에는 전체 노인의 약 18% 내외 정도가 치매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의 증가는 인지장애로 인한 장애노인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추정을 위해 관내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장애노인의 수를 추정해 보면, 전체 노인의 약 6.3%정도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ADL)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6-40〉 전라북도 ADL 장애노인

구분	웃입기 전국	세수 전국	목욕 전국	사워하기 전국	식사하기 전국	이동하여 밖으로 나가기 전국	화장실 이동 대소변 전국	대소변 조절하기 전국	전체 전국	추정 노인 수	
										60세이상	65세이상
연령	65세-69세	1.2	.9	2.3	.5	.4	.6	1.1	3.0		
	70세-74세	1.5	1.7	1.5	.8	3.4	2.5	.8	.8	2.1	.8
	75세-79세	3.2	1.9	3.2	2.8	6.3	5.7	1.9	.9	2.2	.9
	80세 이상	8.1	6.5	8.2	7.2	18.4	14.4	3.5	4.0	2.9	2.4
독거 유부	독거구 노인부부	1.6	1.7	6.0	3.6	.5	.3	.6	3.8	9.0	3.6
	기혼동거	2.6	1.7	2.5	2.0	5.2	4.0	1.2	.7	.8	.3
	전체	5.6	8.5	5.4	8.5	10.5	13.4	3.0	6.1	2.6	4.9
전북 노인수	8,602	9,319	19,713	5,018	3,584	5,018	5,018	5,018	22,580		

〈표6-41〉 전라북도 IADL 장애노인

구분	물단장 하기	집안일 준비	식사 준비	발래	약 챙겨 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 구매 돈계산	전화 걸기 받기	교통 수단 이용	전체	총정 노인 수		
												60세이상	65세이상	
연령	65세~69세	2.8	2.1	2.1	.7	.7	.7	.7	1.4	1.4	3.5	17,180	12,544	
	70세~74세	1.7	5.9	5.0	4.2	.8	6.7	1.7	4.2	6.7	5.9	11.8	57,922	42,292
	75세~79세	1.9	7.5	7.5	6.6	1.9	9.4	3.7	1.9	12.1	9.4	22.6	110,936	81,001
	80세 이상	12.0	27.4	24.8	21.8	7.2	29.0	12.8	17.7	34.4	26.6	46.0	225,799	164,869
독거 유무	독거가구	.9	8.3	8.3	6.4	.9	21.1	1.8	3.6	20.0	10.9	30.0	147,260	107,523
	노인부부	3.0	7.6	7.0	6.6	1.3	5.3	2.6	4.0	7.6	7.3	12.6	61,849	45,160
	가족동거	11.0	25.6	22.0	20.7	8.5	19.5	14.6	17.1	24.4	23.2	36.6	179,657	131,178
전체		3.8	10.8	9.7	8.9	2.4	11.2	4.5	6.1	13.2	10.7	20.4	100,137	73,116
전북	추정장애인수	13,620	38,708	34,766	31,898	8,602	40,142	16,128	21,863	47,310	38,350	73,116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실태조사 Raw data분석

또한, 전라북도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 장애가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20.4%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노인은 60세 이상의 경우 10만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7.3만명 정도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값은 거동불편에 따른 장기요양신청자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장기요양신청자는 65세 이상의 경우 약 6.9만명정도로 IADL장애인 약 7.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제도적으로는 장기요양신청 노인 약 6.9만명에서 최대 7.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장기요양신청자 중에서 사실상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가 전라북도는 약 1.4만명 정도로 나머지 4.7만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노인 중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노인은 최소 1.4만명에서 최대 2.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요양시설의 추가 시설은 사각지대로 분류된 최소 1.4만명~최대 2.6만명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 수로 추정된다.

〈표6-42〉 장기요양신청자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64,424	136,471	61,317	41,666	48,791	28,588	26,481	13,558	38,23	192,253	39,580	34,681	54,455	59,244	65,842	74,113	71,577	12,054
65세 미만	48,666	7,760	3,515	2,437	3,235	1,250	1,542	927	163	11,203	2,114	1,694	2,055	2,367	1,914	2,947	2,990	553
65세 이상	915,758	128,711	57,802	39,229	45,556	27,338	24,889	12,611	3,660	181,050	37,466	32,987	52,400	53,877	63,928	71,166	68,557	11,501

〈표6-43〉 장기요양신청자 각 등급별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8,015	110,121	48,007	33,352	40,988	23,267	21,432	10,375	2,986	158,317	32,861	28,097	44,412	49,122	55,094	60,808	57,826	9,950
1등급	43,849	8,639	2,887	1,794	2,177	899	1,134	719	177	9,995	2,429	1,713	2,179	1,583	1,755	2,518	2,405	846
2등급	82,039	13,546	4,914	3,759	4,567	1,573	2,004	1,273	345	17,644	4,311	3,599	4,859	3,324	4,577	5,425	5,106	1,213
3등급	208,055	2,201	11,959	8,804	11,901	4,826	5,261	3,288	788	46,321	9,303	7,578	10,697	9,196	11,078	14,429	12,651	2,774
4등급	243,618	32,484	15,448	9,653	13,200	7,469	6,624	2,894	957	47,474	8,664	7,983	14,438	16,002	18,525	19,847	19,281	2,675
5등급	47,304	6,496	1,937	2,278	2,066	1,308	1,521	421	178	10,666	1,364	1,826	2,948	3,501	2,956	3,855	3,440	543
인구 지원	6,639	978	267	301	309	154	215	52	31	1,514	246	264	380	420	469	542	411	86
등급외	160,511	5,777	10,595	6,763	6,768	7,038	4,673	1,728	510	24,703	6,544	5,134	8,911	15,096	15,734	14,192	14,532	1,8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장기요양통계

장기요양신청자의 각 등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장기요양수급자는 1급과 2급의 증증장애인인 4.9천명이고 나머지 3급에서 5급까지의 장애노인은 2.8만명 정도이다. 따라서 전술한 실태조사 분석에서 제시된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장애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노인의 경우 잠재적인 장기요양시설의 수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6-44〉 전라북도 장기요양수급자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4,814	16,757	17,263	18,940	21,550	24,420	27,625	31,456	33,606
1등급	1,423	1,526	1,336	1,286	1,323	1,285	1,443	1,519	1,583
2등급	2,998	3,144	2,911	2,801	2,737	2,858	2,935	3,250	3,324
3등급	10,393	12,087	13,016	14,853	8,419	8,395	8,597	8,815	9,196
4등급	-	-	-	-	8,432	10,654	12,611	14,900	16,002
5등급	-	-	-	-	639	1,228	2,039	2,972	3,501

장기요양신청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체로 장기요양등급자의 다수가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는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하여 장기요양등급자가 6.9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5.3천명, 군산 4.3천명 등 의 순으로 이들 세지역의 장기요양등급자는 1.65만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등급자 3.4만명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도 장기요양수급자의 규모에 비례하여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에 총 598개의 기관이 밀집해 있고, 이들 시설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1,087개소의 55.01%를 차지하고 있다.

〈표6-45〉 장기요양등급별 판정 현황(65세 이상)

전북	장기요양 등급자 현황							장기요양기관 현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계		시설		재가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북	34,026	1,583	3,324	9,196	16,002	3,501	420	1,087	12,246	231	7,792	856	4,454	
전주시	6,937	425	776	2020	2958	679	79	262	2,636	40	1,228	222	1,408	
군산시	4,298	235	429	1,237	1,906	422	69	144	1,921	30	1,370	114	551	
익산시	5,275	240	533	1,475	2,285	675	67	192	2,353	49	1,526	143	827	
정읍시	2,964	121	225	709	1,590	300	19	91	611	16	413	75	198	
남원시	2,136	91	220	581	1,026	185	33	61	736	12	602	49	134	
김제시	2,751	123	235	690	1,367	306	30	84	787	21	555	63	232	
원주시	1,858	71	213	488	883	183	20	50	1,047	16	712	34	335	
진안군	846	42	78	195	398	122	11	19	262	9	211	10	51	
무주군	729	29	93	246	297	50	14	21	308	7	218	14	90	
장수군	640	20	64	166	325	59	6	18	194	5	101	13	93	
임실군	1,013	30	74	290	536	81	2	24	254	5	149	19	105	
순창군	1,006	31	85	255	566	63	6	27	196	4	138	23	58	
고창군	2,017	53	143	445	1,205	133	38	43	547	8	284	35	263	
부안군	1,556	72	156	399	660	243	26	51	394	9	285	42	10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장기요양통계

다음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수요추정을 위해 현재의 이용율과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로당이 경우 현재 이용율은 39.7%정도이고 노인복지관은 전체 노인의 9.0%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역별로는 이용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의 이용율은 57.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지역 노인은 경로당의 이용율이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향후 이용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로당은 47.9%,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18.7%의 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46〉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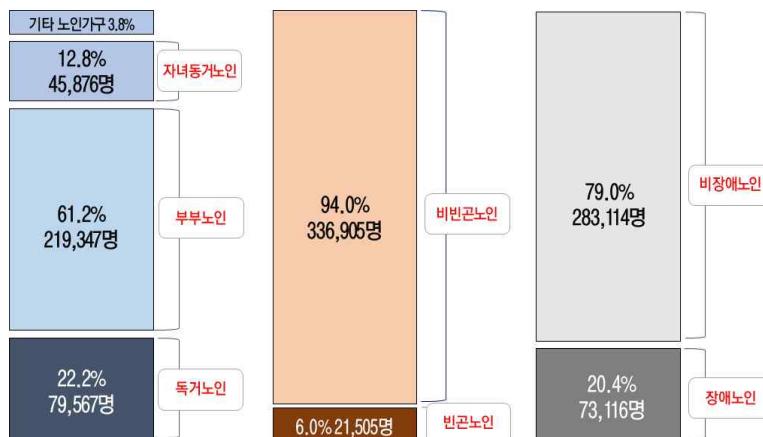
구분	노인기구					연령구분				도시·농촌		전체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기타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도시	농촌		
이용율	경로당	59.1	34.1	38.1	14.3	59.1	34.1	38.1	14.3	16.1	57.7	39.7
	노인복지관	8.2	10.2	6.3		8.4	10.2	8.4	9.0	12.3	6.5	9.0
향후 이용의향	경로당	65.5	43.8	41.0	30.8	40.1	46.2	49.5	58.3	24.8	65.9	47.9
	노인복지관	17.3	20.5	9.7	30.8	23.9	23.1	13.5	11.3	27.1	12.2	18.7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실태조사 Raw data분석

전술한 돌봄수에 대한 개괄적인 노인수요에 기초하여 각 영역별로 노인의 특성별 수요를 세부적으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북도의 60세 이상 노인 중 빈곤노인을 추정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20년에는 3.8만명에서 2030년에는 5.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20년에는 3.1만명에서 2030년에는 4.4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빈곤노인은 노인인구대비 빈곤율의 추이와 함께 제도적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는 빈곤노인의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노인의 수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의 노인시설 추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특성별 현황을 추계해 보면,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22.2%정도로 추정되고 부부노인 61.2%, 그리고 자녀동거노인 12.8%로 추정된다. 경제적 빈곤여부로 분석해보면, 빈곤노인인 전체 노인의 약 6.0%로 추정되고 비빈곤노인은 약 94.0%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장애노인(IADL 기준)은 전체 노인의 약 20.4%로 추정되고 비장애인은 79.0%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중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인은 독거노인이면서 빈곤노인 그리고 장애노인인 최소 6.0%에서 최대 22.2%정도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독거노인이면서 빈곤한 노인 그리고 빈곤하면서도 장애가 있는 노인, 흔히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면서 장애가 있는 노인 등이 향후 노인양로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이 된다.

〈그림6-3〉 전라북도 노인인구 특성별 추정인구



노인인구의 규모로 추정해 보면, 독거노인은 약 7.9만명 정도이고 빈곤노인은 약 2.1만명, 장애노인은 7.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최소 빈곤한 노인 2.1만명에서 최대 독거노인인 7.9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독거노인이면서 장애가 있는 노인 그리고 빈곤하면서 장애가 있는 노인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향후 전북의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추계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전술한 노인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특성별 인구규모와 현재 시설의 정원 규모에 기초하여 적정 시설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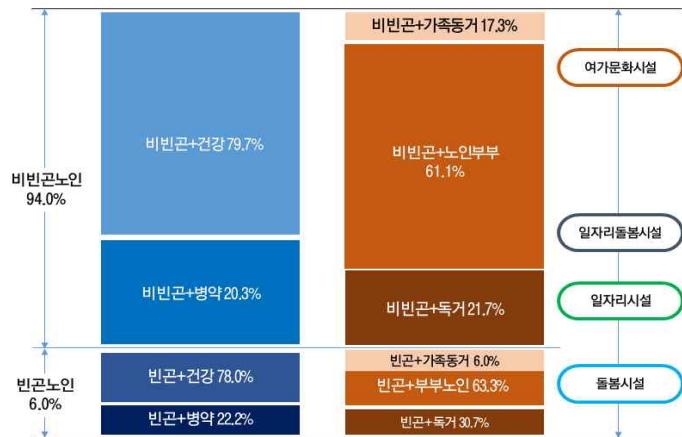
노인복지시설의 추정을 위해서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수요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는 빈곤여부, 건강여부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 혹은 독거유무에 따라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잠재적 이용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전라북도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크게 8개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중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서 병약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은 재가복지센터와 노인양로시설의 수요에 해당되고 비빈곤노인 중 병약한 노인과 독거노인은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 등의 수요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빈곤하지도 않고 건강한 노인 그리고 빈곤하지 않으면서 돌봄지원이 가능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그리고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요에 해당된다.

〈그림6-4〉 노인상태별 노인복지시설 추정기준



〈그림6-5〉 전라북도 노인상태별 노인인구수 추정



전라북도의 노인인구집단별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요 추정을 위해 각 집단별 노인인구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우선 빈곤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6.0%로 추정되고 이중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22.2%, 빈곤하지만 건강한 노인은 78.0%로 추정된다. 또한 빈곤하면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30.7%로 추정되고 빈곤하면서 부부만 생활하는 노인은 63.3%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인구집단 규모로 각 특성별 노인인구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가장 정책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빈곤하면서 몸이 좋지 않은 인구집단으로 이 유형의 추정노인은 약 4,774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1.33%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빈곤하면서 부부가 독거노인 혹은 부부노인인 경우는 각각 전체 노인의 1.84%, 그리고 3.279% 정도로 추정된다.

〈표6-47〉 전라북도 노인상태별 노인인구수 추정

구분	빈곤 + 병약	빈곤 + 건강	빈곤 + 독거	빈곤 + 부부노인	빈곤 + 가족동거	비빈곤 + 병약	비빈곤 + 건강	비빈곤 + 독거	비빈곤 + 노인부부	비빈곤 + 가족동거
비율	1.33%	4.68%	1.84%	3.79%	0.36%	19.08%	74.91%	20.38%	57.38%	16.25%
추정노인	4,774명	16,775명	6,602명	13,613명	1,290명	68,392명	268,513명	73,108명	205,849명	58,285명
시설유형	요양시설	양로시설	양로시설 재가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시설			
정책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표6-48〉 농촌지역 돌봄수요 추정

구분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노인가구	전체	
	전체인구	494698	1103401	344049	93647	2,035,795
장애인비율	ADL장애	2.6	5.0	11.1	26.3	
	IADL장애	30.0	12.6	35.9	36.8	
장애인수	ADL장애	41,060	73,928	49,543	17,793	183,222
	IADL장애	170,176	201,922	135,555	27,251	535,41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노인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ADL(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ADL 기준으로 돌봄제공자가 없는 독거노인은 약 4.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IADL기준으로는 약 17만명정도가 독거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기준으로 현재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돌봄사각지대를 분류해 보면, 최소 2.1천명(ADL기준)에서 최대 2.1만명 정도가 돌봄이 필요할 정도고 장애가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 특히, 노인양로시설과 재가복지시설 그리고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돌봄시설의 추가 시설 수요는 최대 2.1천명에서 최대 2.1만명까지의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6-49〉 전라북도 노인돌봄 시각지대 규모 추정

구분	장애인	도움유무	도움제공자	비율	
ADL 장애 6.2% 183,222명	도움 (90.2%) 20,044명	① 가족도움 ② 비동거가족 ③ 이웃친지 ④ 간병인(가시도우미) ⑤ 요양보험(요양보호사) ⑥ 노인돌봄서비스	74.7		
			52.4		
			8.9		
			-		
			24.0		
			2.7		
돌봄서비스 수요 358,410명	④ 미도움 (9.8%)	2,178명			
IADL 장애 20.4 535,414명	도움 (71.2%) 52,058명	① 가족도움 ② 비동거가족 ③ 이웃친지 ④ 간병인(가시도우미) ⑤ 요양보험(요양보호사) ⑥ 노인돌봄서비스	70.8		
			47.1		
			14.2		
			-		
			12.3		
			1.0		
⑥ 미도움(28.8%)		21,057명			
돌봄서비스 시각지대 규모추정(④+⑥)		23,235(6.48%)			

다. 노인복지시설 공급현황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의 공급현황을 보면, 노인양로시설은 총 11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7개소, 노인복지주택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노인양로시설은 총 정원이 544명으로 이중 현원은 439명이다. 노인양로시설의 정원충족율은 80.6%정도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전체 저원 61명 중 현원은 32명으로 정원충족율은 52.4%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모두 정원충족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요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의 정원충족율을 보면, 전국 전체 양로시설은 68.3%이고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원충족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충족율은 52.5%로 전국 평균 공동생활가정 정원충족율인 69.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입소대상이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중에서 소득이 낮은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대상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표6-50〉 노인복지시설 현황

65세 이상 노인인구 지역 (2017.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 설 수	입소인원(세대)			시 설 수	입소인원			시 설 수	입소인원			시 설 수	세대			
		정원 (분양)	현원 (입주)	충족률		정원 (분양)	현원 (입주)	충족률		정원 (분양)	현원 (입주)	충족률		정원 (분양)	입주	충족률	
합계	7,356,106	404	19,652	14,376	73.2	252	12,562	8,575	68.3	119	1,092	697	63.8	33	5,998	5,104	85.1
서울	1,359,901	22	2,905	2,449	84.3	10	1,187	854	71.9	2	18	14	77.8	10	1,700	1,581	93.0
부산	565,527	7	621	497	80.0	6	328	261	79.6	0	0	0		1	293	236	80.5
대구	347,459	6	473	260	55.0	6	473	260	55.0	0	0	0		0	0	0	0
인천	345,024	25	1,226	885	72.2	19	710	440	62.0	4	36	21	58.3	2	480	424	88.3
광주	180,862	3	176	115	65.3	3	176	115	65.3	0	0	0		0	0	0	0
대전	180,667	8	283	115	40.6	3	247	92	37.2	5	36	23	63.9	0	0	0	0
울산	116,633	2	88	51	58.0	2	88	51	58.0	0	0	0		0	0	0	0
세종	26,851	4	196	144	73.5	3	96	54	56.3	0	0	0		1	100	90	90.0
경기	1,467,835	132	6,889	4,919	71.4	83	4,384	3,068	70.0	38	325	187	57.5	11	2,180	1,664	76.3
강원	279,976	32	718	486	67.7	15	437	334	76.4	15	125	85	68.0	2	156	67	42.9
충북	252,434	38	786	553	70.4	19	626	449	71.7	19	160	104	65.0	0	0	0	0
충남	362,946	21	584	356	61.0	9	381	203	53.3	11	98	67	68.4	1	105	86	81.9
전북	351,282	22	1,489	1,348	90.5	11	544	439	80.7	7	61	32	52.5	4	884	877	99.2
전남	408,451	29	976	702	71.9	18	799	571	71.5	11	177	131	74.0	0	0	0	0
경북	512,681	34	1,355	896	66.1	29	1219	801	65.7	4	36	16	44.4	1	100	79	79.0
경남	504,460	17	797	526	66.0	14	777	509	65.5	3	20	17	85.0	0	0	0	0
제주	93,117	2	90	74	82.2	2	90	74	82.2	0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노인복지시설 편람

〈표6-5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수 (개)	입소정원 (명)	입소현원 (명)	정원 총률	시설수 (개)	입소정원 (명)	입소현원 (명)	정원 총률	시설수 (개)	입소정원 (명)	입소현원 (명)	정원 총률
2008년	16	1,062	653	61.49	14	603	478	79.27	1	9	1	11.11
2009년	17	921	669	72.64	14	603	475	78.77	2	18	12	66.67
2010년	16	908	645	71.04	13	593	467	78.75	2	15	13	86.67
2011년	18	923	742	80.39	13	601	469	78.04	3	25	13	52.00
2012년	19	925	752	81.30	10	569	446	78.38	7	59	37	62.71
2013년	17	1,064	744	69.92	11	583	450	77.19	4	34	15	44.12
2014년	22	1,508	1,156	76.66	11	546	409	74.91	8	69	34	49.28
2015년	20	1,496	1,182	79.01	11	551	418	75.86	6	52	27	51.92
2016년	20	1,489	9	0.60	11	544	-	-	6	52	9	17.31
2017년	21	1,491	1,319	88.46	11	544	439	80.70	6	52	25	48.0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장기요양보험통계

전부의 노인양로시설의 입소현원을 보면, 2008년에는 478명에서 2017년에는 439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2008년 1명에서 2017년 25명으로 시기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노인양로시설의 시설도 2008년 총 14개소에서 2017년 11개소로 감소하였고, 입소정원도 2008년 603명에서 2017년 544명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수를 보면, 재가시설이 2018년 기준 856개소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이 231개소이고 이들 시설은 2014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이다.

〈표6-52〉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가	시설								
계	11,658	4,867	12,902	5,083	14,211	5,187	15,073	5,304	15,390	5,284
서울	2,047	538	2,253	553	2,426	531	2,516	524	2,551	525
부산	741	122	802	121	889	121	939	116	975	112
대구	622	252	676	261	775	257	808	257	808	247
인천	639	305	732	338	823	346	870	355	876	354
광주	426	105	467	107	524	102	562	100	570	98
대전	449	112	501	115	536	120	548	119	566	123
울산	159	43	168	44	181	44	193	46	204	45
세종	24	11	29	11	35	9	41	10	42	10
경기	2,375	1,459	2,658	1,533	2,963	1,599	3,173	1,680	3,266	1,675
강원	392	262	429	286	448	300	465	305	464	307
충북	313	247	361	259	409	272	456	282	471	282
충남	541	259	597	271	663	285	729	297	753	299
전북	651	227	722	223	782	228	839	235	856	231
전남	634	286	700	297	777	299	818	303	842	304
경북	790	346	869	369	963	376	1,049	382	1,051	380
경남	727	231	802	228	874	232	935	229	962	228
제주	128	62	136	67	133	66	132	64	133	6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장기요양보험통계

〈표6-53〉 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상태별 현황

구분	주거형태별 수급자 수										주거형태별 수급자 비율					
	계	자택	노인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양로 시설	요양 병원	기타	자택	노인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양로 시설	요양 병원	기타	
합계	585,287	390,701	109,731	10,718	981	1,101	60,940	11,115	66.8	18.7	1.8	0.2	0.2	10.4	1.9	
서울	89,812	61,787	14,641	2,120	360	155	8,939	1,810	68.8	16.3	2.4	0.4	0.2	10.0	2.0	
부산	34,595	24,284	3,579	149	10	56	5,873	644	70.2	10.3	0.4	0.0	0.2	17.0	1.9	
대구	24,489	16,108	3,979	910	71	15	2,679	727	65.8	16.2	3.7	0.3	0.1	10.9	3.0	
인천	32,005	20,585	7,186	580	46	65	3,057	486	64.3	22.5	1.8	0.1	0.2	9.6	1.5	
광주	15,348	10,964	2,129	132	7	17	1,890	209	71.4	13.9	0.9	0.0	0.1	12.3	1.4	
대전	15,679	10,478	2,930	225	2	27	1,780	237	66.8	18.7	1.4	0.0	0.2	11.4	1.5	
울산	8,085	5,289	1,170	104	3	4	1,331	184	65.4	14.5	1.3	0.0	0.0	16.5	2.3	
세종	2,292	1,480	435	23	4	22	288	40	64.6	19.0	1.0	0.2	1.0	12.6	1.7	
경기	125,041	79,343	28,853	2,670	254	290	11,444	2,187	63.5	23.1	2.1	0.2	0.2	9.2	1.7	
강원	24,941	16,193	5,952	628	30	61	1,488	589	64.9	23.9	2.5	0.1	0.2	6.0	2.4	
충북	21,276	12,925	5,104	595	24	84	1,958	586	60.7	24.0	2.8	0.1	0.4	9.2	2.8	
충남	32,465	22,178	5,868	603	19	44	3,219	534	68.3	18.1	1.9	0.1	0.1	9.9	1.6	
전북	31,456	21,486	5,051	349	29	31	3,865	645	68.3	16.1	1.1	0.1	0.1	12.3	2.1	
전남	36,688	25,685	5,832	579	40	80	3,728	744	70.0	15.9	1.6	0.1	0.2	10.2	2.0	
경북	43,507	29,908	7,935	757	60	64	4,062	721	68.7	18.2	1.7	0.1	0.1	9.3	1.7	
경남	39,822	27,524	6,509	274	19	75	4,802	619	69.1	16.3	0.7	0.0	0.2	12.1	1.6	
제주	7,786	4,484	2,578	20	3	11	537	153	57.6	33.1	0.3	0.0	0.1	6.9	2.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장기요양보험통계

〈표6-54〉 장기요양수급자 주요질병 및 증상현황

구분	계	차매	증풍 (노출증)	차매 + 증풍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좌 골통	호흡 곤란	난청	백내장 등 시각장애	콜절 등 으로 인한 후유증	암	기타	질병 없음
합계	585,287	203,610	86,331	47,401	7,671	8,721	50,256	71,637	2,985	892	7,233	46,975	10,509	37,617	3,449
서울	89,812	32,276	14,366	7,151	1,398	1,497	5,710	9,093	405	89	938	7,825	1,863	6,636	565
부산	34,595	10,753	5,237	3,079	238	426	2,878	4,629	134	40	484	2,953	709	2,902	133
대구	24,489	8,893	3,631	2,410	188	270	1,719	2,890	104	20	297	1,931	372	1,685	79
인천	32,005	10,501	5,426	2,370	531	619	2,787	4,106	153	54	343	2,589	657	1,684	185
광주	15,348	4,589	2,191	931	126	256	1,773	2,554	88	21	208	1,214	317	1,003	77
대전	15,679	5,365	2,264	1,494	275	266	1,254	2,179	74	8	155	1,058	266	919	102
울산	8,085	3,078	1,123	814	46	67	618	916	42	4	119	473	132	619	34
세종	2,292	904	298	189	70	42	184	181	8	0	22	190	45	147	12
경기	125,041	46,226	18,876	10,860	2,060	2,170	8,514	12,099	553	210	1,484	10,923	2,392	7,643	1,031
강원	24,941	8,080	4,155	2,033	282	386	2,147	3,026	169	53	319	2,110	427	1,642	112
충북	21,276	7,748	3,155	1,981	298	328	1,876	2,328	115	32	240	1,676	322	1,078	99
충남	32,465	11,750	4,350	2,310	446	478	3,138	4,470	189	56	366	2,486	569	1,692	165
전북	31,456	9,452	4,582	2,560	399	387	3,587	5,027	149	38	394	2,338	512	1,807	224
전남	36,688	11,998	4,452	1,865	689	548	4,912	6,170	216	98	551	2,184	570	2,191	244
경북	43,507	15,373	5,941	3,474	354	469	4,442	5,562	350	68	559	3,281	672	2,783	179
경남	39,822	13,532	5,232	3,131	231	422	3,909	5,837	192	99	636	3,076	603	2,768	154
제주	7,786	3,092	1,052	749	40	90	808	570	44	2	118	668	81	418	54

〈표6-55〉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형태별 현황 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상태별 현황

구분	주거상태별 수급자									주거상태별 수급자 구성비								
	계	주택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양로 시설	요양 병원	기타	주택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양로 시설	요양 병원	기타	
2010년	14,814	9,410	1,583	1,786	163	26	39	1,427	380	63.5	10.7	12.1	1.1	0.2	0.3	9.6	2.6	
2011년	16,757	10,649	1,914	1,906	255	8	37	1,732	256	63.5	11.4	11.4	1.5	0.0	0.2	10.3	1.5	
2012년	17,263	10,787	2,184	1,808	289	2	43	1,877	273	62.5	12.7	10.5	1.7	0.0	0.2	10.9	1.6	
2013년	18,940	11,966	3,004	1,161	331	7	38	2,073	360	63.2	15.9	6.1	1.7	0.0	0.2	10.9	1.9	
2014년	21,550	13,934	4,388		382	16	44	2,425	361	64.7	20.4		1.8	0.1	0.2	11.3	1.7	
2015년	24,420	16,137	4,469		387	20	24	2,927	456	66.1	18.3		1.6	0.1	0.1	12.0	1.9	
2016년	27,625	18,434	4,780		351	14	26	3,446	574	66.7	17.3		1.3	0.1	0.1	12.5	2.1	
2017년	31,456	21,486	5,051		349	29	31	3,865	645	68.3	16.1		1.1	0.1	0.1	12.3	2.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장기요양보험통계

요양시설의 적정수요 추정을 위해 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형태별 현황을 보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수급자는 5.1천명으로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16.1%정도이고, 요양병원은 3.8천명으로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장기요양수급자는 자택 이용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재가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은 2008년 43개소에서 2017년 149개소로 증가했고, 단기보호시설은 2008년 33개소에서 2017년 3개소로 크게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08년 16개소에서 2017년 7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증가로 인해 정원수도 단기보호시설은 감소하고 주야간보호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6-56〉 전라북도 재가복지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정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설수	주야간보호	43	57	63	63	71	80	95	111	129	149
	단기보호	33	72	8	5	5	4	5	4	3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	30	43	54	61	71	75	71	66	70
정원수	주야간보호	768	1,063	1,125	1,131	1,312	1,495	1,825	2,422	3,180	3,777
	단기보호	194	400	93	43	43	33	38	28	20	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3	251	362	450	495	598	637	609	566	601
현원수	주야간보호	-	-	26	8	2	7	16	20	14	29
	단기보호	-	-	163	255	289	331	382	387	351	34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장기요양보험통계

라. 노인복지시설 공급현황

전라북도의 장기요양시설 중에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의 수요를 장기요양노인의 추정노인에 기초하여 추정해 보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평균증가율 적용시 2020년 기준 최소 49개소에서 최대 48개소에서 최대 55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2020년 최소 및 최대가 2개소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시설이 정원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공동 및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율을 적용할 경우 공동생활가정은 2023년 이후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2021년 이후에나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술한 이 같은 추정치는 정책의 환경변화가 없다는 전제에서 추정된 수요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는 시설의 입소대상 및 그에 따른 시설의 추가수요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의 이용자 등급의 변화 그리고 제도변화에 따른 등급내 판정자가 많을 경우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하다.

〈표6-57〉 전라북도 장기요양시설 필요시설 수 추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전체노인	346,833	356,636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장기요양노인 (평균증가율 적용)	-	-	30,093	31,161	32,269	33,505	34,820	3,6467	38,183	39,454	40,911	41,990	43,264
장기요양노인 ³⁾ (회귀식추정)	-	-	34,425	37,568	40,828	44,464	48,332	53,176	58,226	61,965	66,252	69,426	73,175
공동 생활 가정	임소노인 추정 (평균증가율 기준)	현재 정원	436	452	468	486	505	529	554	572	593	609	627
임소노인 정원추정 (회귀추정식 기준)	601명	499	545	592	645	701	771	844	898	961	1007	1061	
단기 보호 시설	임소노인 추정 (평균증가율 기준)	현재 정원	21	22	23	23	24	26	27	28	29	29	30
임소노인 정원추정 (회귀추정식 기준)	601명	24	26	29	31	34	37	41	43	46	49	51	
필요 시설수	공동생활가정(최소)	현재	48개소	50개소	52개소	54개소	56개소	59개소	62개소	64개소	66개소	68개소	70개소
	공동생활가정(최대)	70개소	55개소	61개소	66개소	72개소	78개소	86개소	94개소	100개소	107개소	112개소	118개소
	단기보호시설(최소)	현재 정원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단기보호시설(최대)	3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3) 국회예산정책처(2015)의 다중회귀식을 활용한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추계에서는 2030년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율은 전체 노인의 약 6.03%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율과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이용율의 변수만으로 회귀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증가는 다소 과대하게 추정된 면이 있음

〈표6-58〉 전라북도 노인양로시설 향후 필요시설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전체노인	60세(+) 511,081명 65세(+) 371,521명	533,640명 384,707명	550,456명 398,387명	569,655명 413,647명	584,107명 429,878명	601,074명 450,204명	618,391명 471,396명	634,848명 487,086명	650,877명 505,079명	670,616명 518,396명	687,821명 534,129명
빈곤노인	60세(+) 38,178명 65세(+) 30,873명	39,863명 31,969명	41,119명 33,106명	42,553명 34,374명	43,633명 35,723명	44,900명 37,412명	46,194명 39,173명	47,423명 40,477명	48,621명 41,972명	50,095명 43,079명	51,380명 44,386명
빈곤 + 건강노인	60세(+) 29,779명 65세(+) 24,081명	31,093명 24,936명	32,073명 25,823명	33,191명 26,812명	34,034명 27,864명	35,022명 29,181명	36,031명 30,555명	36,990명 31,572명	37,924명 32,738명	39,074명 33,602명	40,076명 34,621명
빈곤+건강 + 시설희망	60세(+) 13,103명 65세(+) 10,596명	13,681명 10,972명	14,112명 11,362명	14,604명 11,797명	14,975명 12,260명	15,410명 12,840명	15,854명 13,444명	16,276명 13,892명	16,687명 14,405명	17,193명 14,785명	17,634명 15,233명
빈곤+건강 + 입소율	60세(+) 417명 65세(+) 337명	435명 349명	449명 362명	465명 375명	476명 390명	490명 409명	504명 428명	518명 442명	531명 458명	547명 470명	561명 485명
시설희망 기준 필요시설 수	60세(+) 262개소 65세(+) 212개소	274개소 219개소	282개소 227개소	292개소 236개소	299개소 245개소	308개소 257개소	317개소 269개소	326개소 278개소	334개소 288개소	344개소 296개소	353개소 305개소
실입소율 기준(1.4) 필요시설 수	60세(+) 8.3개소 65세(+) 6.7개소	8.7개소 7.0개소	9.0개소 7.2개소	9.3개소 7.5개소	9.5개소 7.8개소	9.8개소 8.2개소	10.1개소 8.6개소	10.4개소 8.8개소	10.6개소 9.2개소	10.9개소 9.4개소	11.2개소 9.7개소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양로시설도 필요한 시설수를 추정해 보면, 빈곤하면서도 건강한 노인 중에서 양로시설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로시설은 2020년 기준 약 최소 212개소에서 최대 262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양로시설 입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희망 노인을 기준으로 노인양로시설을 추계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추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노인양로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존하고 있고, 다수 노인의 현실적 욕구와 정서적 기대감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보다는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양로시설의 추가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양로시설의 입소희망율에 더하여 실입소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노인양로시설은 2020년 최소 6.7개소에서 최대 8.3개소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최소 9.7개소에서 최대 11.2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시설의 추가시설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추정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자 중 요양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 두변수가 모두 정책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장기적인 대상인구수를 추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 수는 통계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추계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도의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여 장기요양 대상 노인수를 추정하는 방식과 노인인구의 증가율과 장기요양적용대상자의 증가율을 변수로 회귀식을 도출하여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향후 10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노인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장기요양노인 대상자 수는 2030년 기준으로 약 4.2 만명에서 최대 7.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6-59〉 전리북도 장기요양시설 필요시설 수 추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전체노인	346,883	356,636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장기요양노인 (평균증가율 적용)	-	-	30,093	31,161	32,269	33,505	34,820	3,6467	38,183	39,454	40,911	41,990	43,264
장기요양노인 ⁴⁾ (회귀식추정)	-	-	34,425	37,568	40,828	44,464	48,332	53,176	58,226	61,965	66,252	69,426	73,175
장기요양시설 정원추정 (평균증가율 기준)			7,293	7,351	7,411	7,478	7,549	7,638	7,731	7,800	7,879	7,938	8,007
장기요양시설 정원추정 (회귀추정식 기준)			7,528	7,698	7,875	8,072	8,281	8,544	8,818	9,020	9,253	9,425	9,628
(중앙) 요양시설 입소노인추정 (평균입소율)	5,925	6,136	6,354	6,597	6,856	7,180	7,518	7,768	8,055	8,268	8,519		
(최소) 요양시설 입소노인 추정 (회귀식)	5,010	5,105	5,204	5,314	5,431	5,578	5,731	5,844	5,974	6,070	6,184		
(최대) 요양시설 입소노인추정 (평균입소율)	6,778	7,397	8,039	8,755	9,517	10,470	11,465	12,201	13,045	13,670	14,408		
(중앙) 요양시설 입소노인 추정 (회귀식)	5,396	5,676	5,967	6,291	6,635	7,067	7,517	7,850	8,232	8,515	8,849		
추가 평균정원(최소+최대) 입소 노인 평균입소(최소+최대)	7,411	7,525	7,643	7,775	7,915	8,091	8,275	8,410	8,566	8,682	8,818		
필요시설수	33개소 과잉	29개소 과잉	25개소 과잉	21개소 과잉	16개소 과잉	10개소 과잉	4개소 과잉	적정	5개소 획중	9개소 획중	13개소 획중		

자료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계 각연도 재분석

4) 국회예산정책처(2015)의 다중회귀식을 활용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추계에서는 2030년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율은 전체 노인의 약 6.03%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율과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이용율의 변수만으로 회귀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증가는 다소 과대하게 추정된 면이 있음

장기요양노인 중 요양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추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8년간의 요양 시설 입소자의 연평균 입소율과 장기요양노인의 증가율과 요양시설 입소율 추이를 변수로 회귀식을 도출하여 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각각의 기준들마다 입소 노인의 규모에 있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종적인 장기요양시설의 추가시설 수는 평균증가율과 회귀식으로 산출된 추정치의 평균값으로 추정하였다. 이 같은 산식으로 장기요양시설의 필요시설 수를 추정해 보면, 장기요양시설은 2026년도까지는 현재의 요양시설의 규모만으로 충분히 수용가능하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요양시설의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는 현재의 장기요양시설 설치개수보다도 33개소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2030년에는 이와 반대로 13개소 정도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이용수요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필요시설수를 추정해 보면, 우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이용희망자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변수가 된다. 2017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중 전북권만 별로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이용율과 향후 이용수를 기준 시 관내 경로당은 최소 4.9천개에서 최대 5.9천개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설치된 경로당 수가 약 6천개소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율을 기준으로 2023년 이전까지는 경로당의 추가적인 설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설치수를 기준으로 적정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60〉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연도		이용율/ 이용희망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현재	이용율		노인복지관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향후	경로당	39.7	147,494	152,729	158,160	164,218	170,662	178,731	187,144	193,373	200,516	205,803	212,049
	노인복지관	9	33,437	34,624	35,855	37,228	38,689	40,518	42,426	43,838	45,457	46,656	48,072
경로당 수요	경로당	47.9	177,959	184,275	190,827	198,137	205,912	215,648	225,799	233,314	241,933	248,312	255,848
	노인복지관	18.7	69,474	71,940	74,498	77,352	80,387	84,188	88,151	91,085	94,450	96,940	99,882
노인복지관	현 이용율 기준	4,916	5,091	5,272	5,474	5,689	5,958	6,238	6,446	6,684	6,860	7,068	
	향 후 이용율 기준	6,695	5,932	6,142	6,361	6,605	6,864	7,188	7,527	7,777	8,064	8,277	8,528

〈표6-61〉 전라북도 지역별 경로당 이용수요 및 필요시설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경로당 이용수요	전체	-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전주	-	23,686	24,750	25,851	27,008	28,314	29,963	31,589	32,773	34,193	35,159	36,394
	군산	-	11,812	12,307	12,857	13,467	14,053	14,761	15,500	16,073	16,702	17,184	17,697
	익산	-	13,491	14,087	14,684	15,325	16,016	16,855	17,732	18,362	19,125	19,663	20,303
	정읍	-	7,147	7,302	7,479	7,698	7,911	8,179	8,498	8,732	8,976	9,186	9,412
	남원	-	5,426	5,568	5,712	5,879	6,055	6,308	6,557	6,746	6,955	7,093	7,283
	김제	-	6,312	6,460	6,597	6,776	6,955	7,186	7,441	7,618	7,811	7,963	8,143
	완주	-	13,984	14,644	15,251	15,964	16,701	17,625	18,659	19,448	20,299	21,021	21,804
	진안	-	5,419	5,533	5,658	5,820	5,990	6,228	6,509	6,693	6,912	7,093	7,301
	무주	-	5,165	5,292	5,439	5,618	5,786	5,991	6,229	6,424	6,622	6,763	6,947
경로당 필요 개수	장수	-	4,732	4,850	4,970	5,118	5,272	5,495	5,696	5,862	6,042	6,182	6,372
	임실	-	6,210	6,339	6,475	6,604	6,774	7,035	7,270	7,453	7,671	7,849	8,050
	순창	-	6,056	6,192	6,335	6,504	6,684	6,954	7,216	7,417	7,654	7,838	8,047
	고창	-	11,965	12,226	12,530	12,866	13,279	13,704	14,196	14,563	14,980	15,310	15,692
	부안	-	10,945	11,179	11,424	11,740	12,073	12,434	12,848	13,169	13,519	13,809	14,099
	전주	611	790	825	862	900	944	999	1,053	1,092	1,140	1,172	1,213
	군산	515	394	410	429	449	468	492	517	536	557	573	590
	익산	676	450	470	489	511	534	562	591	612	637	655	677
	정읍	694	238	243	249	257	264	273	283	291	299	306	314
	남원	491	181	186	190	196	202	210	219	225	232	236	243
경로당 설치 필요 개수	김제	622	210	215	220	226	232	240	248	254	260	265	271
	설치	437	466	488	508	532	557	587	622	648	677	701	727
	필요	327	181	184	189	194	200	208	217	223	230	236	243
	개수	270	172	176	181	187	193	200	208	214	221	225	232
	장수	275	158	162	166	171	176	183	190	195	201	206	212
	임실	343	207	211	216	220	226	234	242	248	256	262	268
	순창	372	202	206	211	217	223	232	241	247	255	261	268
	고창	590	399	408	418	429	443	457	473	485	499	510	523
	부안	472	365	373	381	391	402	414	428	439	451	460	470

전라북도의 경로당은 전체 총량에서는 현재의 이용률 혹은 향후 이용률을 기준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 지역별로 설치개수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분석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향후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별로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경로당의 적정수요를 추정해보면, 우선 도시지역은 경로당의 향후 이용율이 24.8%, 농촌지역은 65.9%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농촌지역은 경로당 이외에는 복지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다수 노인의 경로당 이용율과 향후 이용희망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설치된 경로당 중 향후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전주와 완주군은 2020년 기준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과 익산도 현재 수준에서는 경로당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향후에는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부 지역은 향후 수요를 감안할 경우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수요

가. 장애인인구의 현황 및 추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한다. 장애인생활시설은 또다시 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요양시설, 영유아 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시설 등이 있고, 특정 장애유형(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이 있다.

〈표6-0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종류	변경후	수요형태	대상	연령계층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수요	장애인종별(중복장애인포함) 전체 등록장애인	전연령
	중장장애인요양시설	복지수요	1급~2급 중증장애인	전연령
	장애인영유아 생활시설	복지수요	6세 미만 장애영유아	6세 미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책수요	중증 및 경증 등 모든 등록장애인	전연령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정책수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복지수요	전체 등록장애인(최소 10인으로 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복지수요	장애인종별(중복장애인포함) 전체 등록장애인	"
	장애인체육시설	정책수요	전체 등록장애인비장애인(장애인 50% 이용)	"
	장애인수련시설	정책수요		"
	장애인쉼터	정책수요		"
	수화통역센터	정책수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
	점자도서관	정책수요	시각장애인	"
	장애인보호직업장	정책수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근로직업장	정책수요	직업능력을 있지만 이동이나 접근성이 제약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

* 장애인유료복지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한편, 장애인의 출현율과 등록율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인구는 2017년 기준 약 267만명이고 이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등록장애인은 266.8만명으로 등록율은 약 94.1%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등록율은 2005년 77.7%에서 2011년 93.8%, 2014년 91.7% 그리고 2017년 94.1%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요는 수요추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한 추계이다. 등록장애인의 추계를 위해서는 장애출현율이 중요 변수이다.

〈표6-63〉 장애인 출현율 및 등록률 추이

구 분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장애 추정 인구수	214만 명	268만 명	273만 명	267만 명
장애 출현율	4.59%	5.61%	5.59%	5.39%
장애 등록률	77.7%	93.8%	91.7%	94.1%
후천적 장애발생률	89.0%	90.5%	88.9%	88.1%
65세 이상 장애인구	32.5%	38.8%	43.3%	46.6%
장애인구 중 1인 가구	11.0%	17.4%	24.3%	26.4%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재구성

다만, 장애출현율의 경우 지역마도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장애출현율에 대한 조사는 지역단위에서 제시되지 않아 전국단위의 출현율 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향후 장애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분석된 장애출현율은 5.39%로 이는 최초로 조사된 1995년 2.37%보다도 약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장애출현율은 2005년까지는 5% 이내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5%를 상회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가 각각 0.52%, 시각장애 0.51% 등의 순이다. 대체로 지체장애가 다른 장애 유형보다도 장애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인 사로고 인한 장애가 3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6-64〉 장애인출현율 추이

장애유형별	1995		2000		2005		2011		2014		2017	
	추정수(명)	출현율(%)										
전체	1,028,837	2.37	1,449,496	3.09	2,148,686	4.59	2,683,477	5.61	2,726,910	5.59	2,668,411	5.39
지체장애	608,760	1.40	556,861	1.19	933,553	1.99	1,303,032	2.72	1,319,132	2.71	1,242,785	2.51
뇌병변장애	-	-	109,866	0.23	150,756	0.32	280,180	0.59	234,675	0.48	258,121	0.52
시각장애	57,541	0.13	163,309	0.35	198,456	0.42	245,917	0.51	257,492	0.53	252,046	0.51
청각장애	111,461	0.26	109,503	0.23	185,911	0.40	240,695	0.50	245,935	0.50	256,018	0.52
언어장애	22,264	0.05	12,956	0.03	10,538	0.02	17,010	0.04	15,252	0.03	15,790	0.03
자폐증장애	32,069	0.07	57,780	0.12	56,268	0.12	131,648	0.28	173,296	0.36	187,300	0.38
지폐증장애	-	-	4,626	0.01	3,212	0.01	5,880	0.01	10,572	0.02	13,215	0.03
정신장애	-	-	64,953	0.14	82,492	0.18	109,817	0.23	112,632	0.23	111,031	0.22
신경장애	-	-	21,685	0.05	29,720	0.06	48,741	0.10	60,790	0.12	72,722	0.15
심장장애	-	-	36,221	0.08	35,184	0.08	17,852	0.04	8,331	0.02	6,176	0.01
호흡기장애	-	-	-	-	23,484	0.05	17,068	0.04	14,965	0.03	11,485	0.02
간장애	-	-	-	-	9,975	0.02	8,314	0.02	11,162	0.02	10,609	0.02
인면장애	-	-	-	-	3,223	0.01	2,111	0.00	2,702	0.01	3,073	0.01
장류요로장애	-	-	-	-	12,614	0.03	14,096	0.03	14,833	0.03	14,309	0.03
노년증장애	-	-	-	-	11,235	0.02	9,895	0.02	6,610	0.01	8,299	0.02
중복장애	196,742	0.45	311,736	0.66	402,065	0.86	231,222	0.48	238,532	0.49	205,431	0.42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재구성

〈표6-65〉 장애인구 및 출현율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고
장애인구수	268만명	273만명	267만명	
장애출현율	5.61%	5.59%	5.39%	
장애등록률	93.8%	91.7%	94.1%	
65세 이상 인구	38.8%	43.3%	46.6%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17.4%	24.3%	26.4%	장애인구 중 1인 가구 증가
후천적 장애발생율	90.5%	88.9%	88.1%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경향 2017년(질환 56.0%, 사고 32.1%) 2014년(질환 56.2%, 사고 32.7%) 2011년(질환 55.1%, 사고 35.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장애인실태조사

다만, 후천적 장애발생율은 2011년 90.5%에서 2017년 88.1%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후천적 장애발생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 질환이 56.0%, 사고가 32.1%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보면, 등록장애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후천적 장애 중에서 사고로 인한 장애보다는 질환에 의한 장애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18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5만명으로 이중 전라북도는 13.1만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표6-66〉 등록장애인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계	1,294,254	1,454,215	1,610,994	1,789,443	1,957,326	2,104,889	2,246,95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80	2,490,406	2,511,051	2,545,637	2,555,876	99.80
서울	213,121	239,647	267,365	297,087	324,560	346,275	368,955	401,638	414,522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8,245	391,027	391,753	392,920	84.36
부산	91,242	101,728	113,369	125,936	138,501	148,145	156,966	168,493	172,765	171,729	170,743	169,750	168,663	168,084	168,950	171,384	173,820	90.50
대구	63,598	71,066	77,896	85,265	93,481	100,082	106,448	113,509	117,141	117,183	116,839	116,567	115,983	115,694	117,111	119,766	123,070	93.51
인천	70,442	77,922	84,955	93,869	102,789	108,823	116,697	126,878	131,815	132,732	133,467	133,778	133,855	134,191	135,623	138,304	141,771	101.26
광주	35,037	38,967	43,717	48,485	53,506	57,280	61,575	66,191	68,518	68,675	68,534	68,372	68,288	68,079	68,569	69,233	69,884	99.46
대전	36,336	40,853	45,239	50,555	55,854	59,978	64,348	68,884	71,164	71,626	71,647	71,441	71,198	70,890	71,425	72,180	72,927	100.70
울산	23,475	26,820	30,698	34,864	38,730	40,758	44,402	47,210	49,013	48,926	48,982	71,441	49,014	49,326	49,533	50,205	50,640	115.72
세종	-	-	-	-	-	-	-	-	-	-	-	7,081	7,202	7,943	9,079	9,845	10,623	11,404
경기	237,285	237,382	305,037	342,153	379,985	407,247	435,688	477,021	500,704	505,052	505,519	506,464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47,386	130.69
강원	55,549	61,528	66,863	73,112	79,468	85,594	91,448	97,604	101,067	101,283	100,579	99,660	98,970	98,324	98,928	99,959	100,683	81.27
충북	48,144	53,922	59,965	67,086	73,923	79,826	85,097	90,958	94,654	94,855	94,137	93,563	93,612	93,536	94,688	95,844	97,086	101.66
충남	67,701	75,313	83,589	92,634	101,815	107,895	116,908	125,556	130,846	131,108	124,872	124,561	124,721	124,801	126,406	128,503	131,910	94.84
전북	77,122	84,431	91,959	101,029	109,189	116,141	120,481	130,807	134,235	134,133	130,054	132,006	130,932	129,769	130,345	131,303	131,746	70.83
전남	81,010	89,706	97,925	107,899	117,699	125,731	134,898	144,039	147,918	146,524	145,788	144,324	143,128	141,837	141,578	142,174	142,213	75.55
경북	88,250	98,103	108,654	119,814	132,381	143,009	151,889	164,885	170,398	170,479	169,699	168,836	168,650	168,089	169,643	172,533	176,550	100.06
경남	90,178	102,998	114,129	127,411	141,227	151,785	162,753	175,198	180,880	181,044	180,285	179,530	179,276	179,070	180,665	183,510	186,016	106.28
제주	15,764	17,829	19,634	22,244	24,218	26,320	28,393	30,676	31,874	32,216	32,405	32,673	32,989	33,510	34,278	35,104	35,840	127.35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등록장애인현황

〈표6-67〉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천명,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록장애인수	2,247	2,419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2,586
증가율	6.3	7.1	3.9	0.1	-0.3	-0.4	-0.3	-0.2	0.8	1.4	1.5%

연도별로 등록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등록장애인은 224.7만명이었지만 2018년 258.6만명으로 약 30만명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등록장애인의 증가는 2008년부터 2010년사이에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의 구성비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0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95%가 장애인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장애인이 7.17%로 약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등록장애인은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8개 시도 중에서 전남 7.55%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남도와 함께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6-68〉 등록장애인 구성비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계	2.68	3.01	3.32	3.67	4.02	4.27	4.54	4.88	4.98	4.97	4.93	4.89	4.86	4.83	4.86	4.92	4.99	2.31	
서울	2.09	2.36	2.63	2.92	3.19	3.40	3.62	3.93	4.02	4.02	4.00	3.98	3.95	3.92	3.94	3.97	4.02	1.94	
부산	2.45	2.76	3.09	3.46	3.83	4.13	4.40	4.76	4.84	4.84	4.83	4.81	4.79	4.78	4.83	4.94	5.05	2.60	
대구	2.52	2.81	3.09	3.40	3.75	4.01	4.27	4.56	4.66	4.67	4.66	4.66	4.65	4.65	4.71	4.84	5.00	2.48	
인천	2.73	3.03	3.29	3.61	3.92	4.08	4.33	4.68	4.78	4.74	4.69	4.65	4.61	4.59	4.61	4.69	4.80	2.07	
광주	2.51	2.79	3.12	3.46	3.80	4.05	4.33	4.62	4.71	4.69	4.66	4.64	4.63	4.62	4.67	4.73	4.79	2.28	
대전	2.56	2.85	3.13	3.48	3.81	4.06	4.35	4.64	4.73	4.73	4.70	4.66	4.65	4.67	4.72	4.80	4.89	2.33	
울산	2.20	2.50	2.84	3.21	3.55	3.71	3.99	4.23	4.35	4.31	4.27	4.18	4.20	4.20	4.23	4.31	4.38	2.18	
세종												6.26	5.90	5.09	4.31	4.05	3.79	3.63	3.63
경기	2.39	2.68	2.92	3.20	3.48	3.67	3.86	4.16	4.25	4.23	4.18	4.14	4.11	4.10	4.11	4.14	4.19	1.80	
강원	3.61	4.03	4.39	4.83	5.28	5.69	6.06	6.45	6.61	6.59	6.54	6.46	6.41	6.35	6.38	6.45	6.53	2.92	
충북	3.23	3.62	4.03	4.51	4.95	5.30	5.60	5.95	6.11	6.07	6.01	5.95	5.93	5.91	5.95	6.01	6.07	2.85	
충남	3.55	3.94	4.28	4.72	5.16	5.41	5.79	6.16	6.29	6.24	6.16	6.08	6.05	6.01	6.03	6.07	6.20	2.66	
전북	3.95	4.32	4.82	5.36	5.84	6.24	6.49	7.05	7.18	7.16	7.10	7.05	7.00	6.94	6.99	7.08	7.17	3.23	
전남	3.94	4.45	4.93	5.48	6.06	6.52	7.03	7.53	7.71	7.65	7.63	7.57	7.51	7.43	7.44	7.50	7.55	3.61	
경북	3.20	3.61	4.03	4.46	4.92	5.33	5.68	6.18	6.33	6.32	6.29	6.25	6.24	6.22	6.28	6.41	6.60	3.39	
경남	2.89	3.28	3.63	4.03	4.45	4.75	5.06	5.39	5.50	5.47	5.43	5.39	5.35	5.32	5.35	5.43	5.51	2.63	
제주	2.86	3.23	3.54	3.99	4.34	4.71	5.06	5.45	5.58	5.59	5.55	5.50	5.43	5.37	5.34	5.37	5.37	2.51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등록장애인현황

〈표6-69〉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및 추정수

구분	2005		2011		2014		2017		
	등록장애인수 (명)	추정수 (명)	등록율 (%)	등록장애인수 (명)	추정수 (명)	등록율 (%)	등록장애인수 (명)	추정수 (명)	등록율 (%)
계	1,699,329	2,148,686	79.1	2,517,312	2,683,477	93.8	2,501,112	2,726,910	91.7
자체장애	923,183	1,005,618	91.8	1,337,722	1,338,554	99.9	1,309,285	1,353,753	96.7
뇌병변장애	154,614	270,853	57.1	261,746	333,798	78.4	253,493	308,100	82.3
시각장애	180,526	221,166	81.6	249,259	259,986	95.9	253,095	278,172	91.0
청각장애	151,184	229,159	66.0	260,403	281,878	92.4	255,399	281,983	90.6
언어장애	13,874	20,947	66.2	17,207	21,277	80.9	17,830	21,700	82.2
지적장애	123,868	125,563	98.7	161,249	176,110	91.6	178,866	207,703	86.1
자폐성장애	8,754	23,478	37.3	14,888	16,916	88.0	18,133	19,868	91.3
장신장애	59,223	91,253	64.9	95,821	115,151	83.2	95,675	117,428	81.5
신체장애	40,288	40,355	99.8	57,142	58,702	97.3	66,551	72,132	92.3
심성장애	12,226	42,007	29.1	12,864	18,573	69.3	6,928	8,499	81.5
호흡기장애	10,815	30,186	35.8	15,551	19,316	80.5	13,150	16,055	81.9
간증장애	4,583	13,443	34.1	7,920	9,292	85.2	9,194	11,842	77.6
안면장애	1,311	4,394	29.8	2,696	2,434	110.8	2,696	3,019	89.3
질환으로	8,848	15,508	57.1	13,072	16,790	77.9	13,546	16,815	80.6
노전증	6,032	14,756	40.9	9,772	14,701	66.5	7,271	9,841	73.9

자료 : 통계청(2018). 등록장애인현황 재구성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약 12만명이던 등록장애인은 2011년 기준 약 13.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체장애인이 6.6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언어장애인 1.7만명, 뇌병변장애인 1.2만명 등의 순이다.

〈표6-70〉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연도별 추이

연도	증가율 (%)	계 (명)	자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류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2008년	3.7	120,481	65,566	12,069	11,170	12,848	107	1,596	427	546	216	509	610	8,927	354	5,536
2009년	8.6	130,807	71,659	13,038	11,774	14,341	115	1,759	404	550	237	534	626	9,560	423	5,787
2010년	2.6	134,235	73,347	13,322	12,006	15,211	123	1,847	355	530	243	564	629	9,914	454	5,690
2011년	0.003	134,239	73,063	13,339	12,078	15,237	123	1,906	294	515	267	552	588	10,300	476	5,501
2012년	-0.9	133,054	72,414	12,915	12,016	15,013	119	2,010	238	465	292	549	499	10,638	509	5,377
2013년	-0.7	132,006	71,618	12,547	12,061	14,730	115	2,135	220	435	297	557	471	10,920	542	5,358
2014년	-0.8	130,932	70,649	12,357	11,976	14,437	117	2,289	211	389	320	572	467	11,220	573	5,355
2015년	-0.9	129,741	69,454	12,272	11,866	14,230	118	2,429	181	372	343	560	453	11,468	607	5,388
2016년	0.46	130,345	68,350	12,258	11,772	15,572	114	2,568	176	377	363	556	446	11,702	637	5,454
2017년	0.73	131,303	67,516	12,274	11,693	16,858	114	2,733	164	375	408	579	432	11,974	692	5,491
2018년	0.01	131,746	66,299	12,118	11,583	18,390	115	2,934	161	423	361	601	429	12,140	721	5,471

자료 :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나.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인구 추계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2018년 기준 약 13.2만명으로 2007년 11.6만명에서 연평균 1.15%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심장, 신장 등의 내분비계 장애는 감소한 반면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지적장애와 신장장애, 간장애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접자도서관의 이용대상인 시각장애인은 2007년 1.1만명에서 2018년 약 1.2만명정도로 연평균 0.44% 증가하였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의 대상이 되는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각각의 장애유형이 연평균 3% 이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등록장애인보다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이들 장애유형의 다수가 노인이 차지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심장장애인은 2007년 436명에서 2018년 161명으로 연평균 8.65%나 감소하였고, 호흡기 장애도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3.8%p나 감소하였다. 기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장애인체육관 등의 수요 대상인구에 해당되는 모든 전체 장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 11.6만명에서 2018년 13.2만명으로 연평균 1.15%증가하였다.

〈표6-71〉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현황 및 추이

구분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지체	63,095	65,566	71,659	73,347	73,063	72,414	71,618	70,649	69,463	68,350	67,516	66,299	0.45
접자 도서관	시각	11,032	11,169	11,774	12,006	12,078	12,016	12,061	11,976	11,868	11,772	11,693	11,583	0.44
수화 통역 센터	청각	11,197	11,918	13,362	14,168	14,163	13,932	13,654	13,354	13,100	14,426	15,677	17,200	3.98
	언어	900	931	979	1,043	1,074	1,081	1,076	1,083	1,134	1,146	1,181	1,190	2.57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적	8,718	8,927	9,560	9,914	10,300	10,638	10,920	11,220	11,468	11,702	11,974	12,140	3.06
	뇌병변	11,496	12,068	13,038	13,322	13,339	12,915	12,547	12,357	12,274	12,258	12,274	12,118	0.48
	자폐	342	354	423	454	476	509	542	573	607	637	692	721	7.02
	정신	5,410	5,537	5,787	5,690	5,501	5,377	5,358	5,355	5,395	5,454	5,491	5,471	0.10
	신장	1,554	1,596	1,759	1,847	1,906	2,010	2,135	2,289	2,434	2,568	2,733	2,934	5.95
	심장	436	427	404	355	294	238	220	211	181	176	164	161	-8.66
	호흡기	553	546	550	530	515	465	435	389	372	363	375	361	-3.80
	간	215	216	237	243	267	292	297	320	343	377	408	423	6.35
	안면	100	107	115	123	123	119	115	117	118	114	114	115	1.28
	장부요로	488	509	534	564	552	549	557	572	559	556	579	601	1.91
	뇌전증	605	610	626	629	588	499	471	467	453	446	432	429	-3.08
전체 장애인		116,141	120,481	130,807	134,235	134,239	133,054	132,006	130,932	129,769	130,345	131,303	131,746	1.15
전체 인구 수(천명)		1,862	1,856	1,855	1,869	1,874	1,873	1,873	1,872	1,870	1,865	1,855	1,837	

〈표6-72〉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현황 및 추이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체	3.39	3.53	3.86	3.92	3.90	3.87	3.82	3.77	3.72	3.67	3.64	3.61
정지 도서관	시각	0.59	0.60	0.63	0.64	0.64	0.64	0.64	0.63	0.63	0.63	0.63
수화 통역 센터	청각	0.60	0.64	0.72	0.76	0.76	0.74	0.73	0.71	0.70	0.77	0.85
	언어	0.05	0.05	0.05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장애인복지관	지적	0.47	0.48	0.52	0.53	0.55	0.57	0.58	0.60	0.61	0.63	0.65
장애인보호작업장	뇌병변	0.62	0.65	0.70	0.71	0.71	0.69	0.67	0.66	0.66	0.66	0.66
장애인체육관	자폐	0.02	0.02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4	0.04
장애인요양시설	정신	0.29	0.30	0.31	0.30	0.29	0.29	0.29	0.29	0.29	0.30	0.30
장애인수련시설	신장	0.08	0.09	0.09	0.10	0.10	0.11	0.11	0.12	0.13	0.14	0.15
장애인거주시설	심장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호흡기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02
	간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안면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장루요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뇌전증	0.03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전체 장애인		6.24	6.49	7.05	7.18	7.16	7.10	7.05	7.00	6.94	6.99	7.08
												7.17

등록장애인의 향후 인구수를 연평균증가율과 장애출연율을 적용하여 추정해 보면, 2020년에는 약 13.6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15.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구성비를 보면, 장래에도 등록장애인의 다수는 지체장애인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6-73〉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현황 및 추이

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체	68,944	69,426	69,912	70,402	70,895	71,391	71,891	72,394	72,901	73,411	73,925
정지 도서관	시각	11,905	11,976	12,048	12,120	12,193	12,266	12,340	12,414	12,488	12,563
수화 통역 센터	청각	17,331	17,920	18,530	19,160	19,811	20,485	21,181	21,901	22,646	23,416
	언어	1,283	1,319	1,356	1,394	1,433	1,473	1,514	1,557	1,600	1,645
장애인복지관	지적	13,161	13,582	14,016	14,465	14,928	15,406	15,899	16,407	16,932	17,474
장애인보호작업장	뇌병변	12,534	12,621	12,710	12,799	12,888	12,978	13,069	13,161	13,253	13,346
장애인체육관	자폐	855	917	984	1,056	1,133	1,216	1,305	1,400	1,502	1,612
장애인요양시설	정신	5,507	5,513	5,519	5,524	5,530	5,535	5,541	5,546	5,552	5,557
장애인수련시설	신장	3,237	3,424	3,623	3,833	4,055	4,291	4,540	4,803	5,081	5,376
장애인거주시설	심장	122	111	101	91	83	75	68	62	56	51
	호흡기	334	321	309	297	286	275	265	255	245	236
	간	494	527	562	599	638	680	725	773	824	879
	안면	119	120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33
	장루요루	609	619	630	641	652	663	674	685	697	709
	뇌전증	391	378	365	353	342	330	319	309	299	289
전체 장애인		136,087	137,720	139,373	141,045	142,738	144,450	146,184	147,938	149,713	151,510
											153,328

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추정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추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변수는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현황을 추정하는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장애인 중에서 대부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그리고 거의 모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이 적합한 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가능하거나 대부분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작업장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적합하다.

이 같은 분류로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중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51.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의 14.7%의 장애인은 남의 도움없이 대부분의 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분류된다.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65.8%의 장애인을 제외한 34.2%의 장애인은 일부이든 혹은 대부분이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2.9%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추정을 위해서는 전술한 분류방식에 따라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에서 현재 타인의 도움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다.

〈표6-74〉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구분	시설작업유형	자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체성	정신	신장	호흡기	장류	뇌전증	전체
장애 유형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보호작업장	62.3	16.7	68	57.1		10		28.6	37.5		100	100	51.1
	대부분 혼자서 생활 · 장애인근로작업장	15.6	23.3	12	14.3		10		7.1	12.5				14.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16.8	26.7	16	17.1		55	25	35.7	50	100			22.1
	대부분 남의 도움필요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2.4	26.7	4	11.4	100	25	50	21.4					9.1
	거의모두 남의 도움 필요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6.7					25	7.1					2.9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장애 정도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8.3	11.1	45.2	58.1	68.6	77.4	51.1						
	대부분 혼자서 생활		22.2	12.9	14	15.7	11.3	14.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5	37	32.3	20.9	11.4	11.3	22.1						
	대부분 남의 도움필요	41.7	22.2	8.1	7	2.9		9.1						
	거의모두 남의 도움 필요	25	7.4	1.6		1.4		2.9						

〈표6-75〉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구분	도움제공자 유무			도움제공자 유형									
	미해당	있음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이웃	활동보조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5.0	75.0		50.0								25.0	100.0
2급	8.3	91.7		16.7				16.7				8.3	100.0
3급	11.1	79.6	9.3	27.8				7.4				7.4	9.3
4급	45.2	45.2	9.7	12.9				4.8				1.6	3.2
5급	58.1	34.9	7.0	18.6				9.3				23	4.7
6급	68.6	24.3	7.1	17.1				4.3					
전체	77.4	17.7	4.8	12.9				1.6					

장애유형별로 일상생활의 도움을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약 17.7%는 도움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8%로 추정된다. 특히,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은 도움제공자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도에 해당하는 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의 약 9.3%가 도움제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의 도움제공자는 배우자와 요양보호사였고, 3급의 중증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 일상생활수행에 있어 도움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이 13.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6-76〉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구분	도움제공자 유무			도움제공자 유형										
	미해당	있음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이웃	활동보조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전체
자체	62.3	30.5	7.2	18.6	1.2	4.2			.6	.6	4.8	.6	100.0	
뇌병변	16.7	70.0	13.3	20.0	6.7	10.0	3.3			3.3	3.3	23.3	100.0	
시각	68.0	28.0	4.0	8.0		8.0		4.0		8.0			100.0	
청각	57.1	34.3	8.6	22.9		8.6					29		100.0	
언어		100.0							100.0				100.0	
지적	10.0	90.0		10.0	60.0			5.0		10.0		5.0	100.0	
지체성		100.0				75.0				25.0			100.0	
정신	28.6	64.3	7.1	21.4	28.6	7.1				7.1			100.0	
신장	37.5	62.5		37.5				12.5			12.5		100.0	
호흡기		100.0											100.0	
장류요로	100.0												100.0	
노인증	100.0												100.0	
전체	51.1	41.7	7.2	17.9	7.5	5.2	.3	1.3	.3	23	.7	5.9	.3	100.0

〈표6-77〉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구분	도움제공자 유무			주요 도움제공자										
	미해당	있음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이웃	활동 보조인	간병인	요양 보호사	기타	전체
모든 일상생활 헌지가능	100.0			100.0										
대부분 일상생활 헌지가능		55.6	44.4	44.4	40.0	6.7	6.7					22		
일부 남의 도움 필요		97.1	2.9	2.9	36.8	20.6	11.8	1.5	44	1.5	5.9	13.2	1.5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00.0			32.1	17.9	10.7		3.6		7.1	3.6	25.0	
거의 모든일 도움 필요		100.0			33.3	11.1	22.2					11.1	22.2	
전체	51.1	41.7	7.2	58.3	17.9	7.5	5.2	.3	1.3	.3	2.3	.7	5.9	.3

한편,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도움제공자의 유무를 보면, 대부분 혹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도움제공자가 없다는 비율이 44.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도움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2.9%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약 2.9%정도가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을 현재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도움의 정도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거의 모든 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약 50% 정도가 현재의 도움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도움제공자의 유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도움제공의 충분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추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의 수요추정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현재 도움의 제공정도가 충분치 않은 장애인을 수요자로 추정하여 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6-78〉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필요정도)

구분	계속 도움 필요 여부			현재 도움 충분정도				
	미해당	도움필요	도움 불필요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모든 일상생활 헌지가능	100.0							100.0
대부분 일상생활 헌지가능	44.4	55.6		8.9	40.0	4.4	22	10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9	94.1	2.9	2.9	60.3	30.9	2.9	10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00.0		10.7	39.3	39.3	10.7	100.0
거의 모든일 도움 필요		100.0			55.6	22.2	22.2	100.0
전체	58.3	41.0	.7	2.9	24.4	11.7	2.6	100.0

〈표6-79〉 일상생활시 남의 도움 정도

구분	일상생활시 남의 도움 정도					일상생활 도움 유무	도움 충분도				
	모든 일상생활 혼자함	대부분 일상생활 혼자함	일부 일상생활 필요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거의모두 남의 도움 필요	있음	없음	매우 충분함	충분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1-2등급	10.6	18.2	34.8	25.8	10.6	81.8	7.6	6.1	30.3	36.4	9.1
장애인등급 3-4등급	50.5	13.3	27.6	7.6	1.0	41.0	8.6	1.0	32.4	7.6	
5-6등급	72.7	13.6	11.4	1.5	.8	21.2	6.1	2.3	15.2	2.3	1.5
신체적장애	56.6	15.9	17.8	7.0	2.7	35.7	7.8	1.9	23.3	8.5	1.9
장애인유형 정신적장애	15.8	7.9	44.7	26.3	5.3	81.6	2.6	10.5	31.6	31.6	7.9
내부기관장애	45.5	9.1	45.5			45.5	9.1		27.3	18.2	
전체	51.1	14.7	22.1	9.1	2.9	41.7	7.2	2.9	24.4	11.7	2.6

한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서는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22.1%,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9.1%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2.9%였다. 또한 장애인들 중에서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장애인이 7.2%정도였다. 특히, 1급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의 도움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인은 7.6%정도 수준이었다. 여기에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도 약 14%정도는 도움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살고싶은 주거유형으로는 일반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83.7%로 가장 높았고, 요양시설 6.5%, 유료복지주택 1.6%, 거주시설 1.0% 등의 순이었다. 일반주택 거주시 희망생활에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이 6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나 일상생활의 지원으로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도 11.4%정도였다.

〈표6-80〉 살고싶은 주거유형

구분	살고싶은 주거유형					일반주택 거주시 희망생활				
	일반주택 가정	공동생활 주택	유료복지 주택	거주시설	요양시설	기타	혼자 생활	가족과 생활	친구와 생활	국가/사회 일상생활 지원
1-2등급	83.3	3.0	1.5	7.6	4.5		4.5	56.1		22.7
장애인등급 3-4등급	79.0	1.0	2.9		6.7	10.5	9.5	57.1	1.9	10.5
5-6등급	88.6		1.5	1.5	4.5	3.8	10.6	69.7	2.3	6.1
신체적장애	82.9	.4	1.9	1.2	7.4	6.2	8.5	61.6	1.6	11.2
장애인유형 정신적장애	84.2	5.3			2.6	7.9	7.9	60.5	2.6	13.2
내부기관장애	100.0						18.2	72.7		9.1
전체	83.7	1.0	1.6	1.0	6.5	6.2	8.8	61.9	1.6	11.4

〈표6-81〉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이용률

구분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거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생활자원센터	재활 치료센터	점자 도서관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특별운송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장애인 재활 병의원	별달 장애인 지원센터
이용률 (%)	자체	7.2		1.2	.6	.6			2.4	.6		
	뇌병변	13.3	3.3	10.0	3.3	10.0	10.0		3.3	6.7		
	시각	12.0		4.0					8.0	4.0	4.0	
	청각	17.1		2.9				5.7	5.7			
	지적	10.0	45.0		5.0	5.0			10.0	5.0	15.0	
	지폐성		50.0	25.0	25.0				25.0		25.0	
	정신	7.1			7.1							
	신장		12.5						12.5			
	전체	1.0	12.1	.7	3.3	1.0	1.3	1.3	.7	4.2	.7	1.3
총정 장애인 수 (명)	전체(명)	1,313명	15,888명	919명	4,333명	1,313명	1,707명	1,707명	919명	5,515명	919명	1,707명
	시각							152명	82명			
	청각							24명	13명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률과 이용희망률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유형별 잠재적 추정이용 수를 산출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특별운송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있다.

향후 이용희망의사에 있어서는 장애인생활지원시설(특별운송), 장애인재활병원, 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다른 시설유형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82〉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이용희망률

구분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거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생활자원센터	재활 치료센터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특별운송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장애인 재활 병의원	별달 장애인 지원센터
이용 희망률 (%)	자체	1.8	4.2	3.0	5.4	7.2	6.6		28.7	1.2	18.0
	뇌병변	6.7	16.7	20.0	16.7	23.3	23.3		40.0	6.7	46.7
	시각	4.0	16.0		4.0	8.0	8.0		20.0	8.0	16.0
	청각	2.9	17.1	5.7	14.3	11.4	8.6	8.6	25.7	2.9	14.3
	지적	30.0	30.0	15.0	25.0	20.0	30.0		10.0	35.0	25.0
	지폐성	50.0	75.0	50.0	75.0	25.0	25.0		50.0	25.0	50.0
	정신	7.1			7.1	7.1	14.3		14.3	7.1	14.3
	신장	12.5							12.5	12.5	25.0
	호흡기								100.0		
대상 장애인	전체	5.5	10.1	5.9	9.4	10.1	10.4	1.0	26.7	5.5	20.8
	근로의사 있는 장애인		전체 장애인	일상능력 부족한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장애인 1~2급 (중증)		언어장애 청각장애	1급~2급 중증		별달장애인
	전체(명)	7,222명	13,262명	7747명	12342명	13262명	13656명	1,313명	3,5058명	7,222명	2,7311명
총정 장애인 (수)	시각							117명	3,122명		
	청각							19명	496명		
	설치시설 수	22개소	13개소	33개소	5개소	15개소	12개소	15개소			
생활(이용자 수)		527명	16.2만명	530명	26.6만명	10.1만명	5,631명	57,933명			

〈표6-83〉 일상생활 도움필요 장애인 추정

전체 장애인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 능력정도	도움주는사람여부	도움의 충분도
		모든 일상생활 혼자 함 (77.7%) 67,357명		
도움 없이	생활가능 (65.8%) 86,689명	대부분 일상생활 혼자 가능 (22.3%) 19,332명	도움주는사람 있음 (55.6%) 10,749명	도움이 충분함 (88.0%) 9,459명 도움이 부족함 (12.0%) 1,290명
			도움주는사람 없음 (44.4%) 8,583명	
131,746명				
			도움주는사람 있음 (97.1%) 28,307명	도움이 충분함 (65.2%) 18,456명 도움이 부족함 (34.8%) 9,851명
도움 있어야	생활가능 (34.1%) 45,057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6.7%) 12,030명	도움주는사람 없음 (2.9%) 845명	도움이 충분함 (50.0%) 6,015명 도움이 부족함 (50.0%) 6,015명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필요 (8.6%) 3,875명	도움주는사람 있음 (100.0%) 3,875명	도움이 충분함 (55.6%) 2,155명 도움이 부족함 (44.4%) 1,721명
			도움주는사람 없음(0%)	

장애인의 돌봄시설의 수요추정을 위해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를 추정해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4.1%로 추정되고 이중 도움제공자가 없거나 도움제공자가 있어도 도움이 부족한 경우를 추정해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최소 845명에서 최대 8.5천명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모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요보호장애인의 장애인시설 입소율을 기준으로 필요한 장애인시설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6-6〉 전라북도 장애인돌봄시설 수요



라.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2001년 14개소에서 2017년 61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연말 수용인원은 2001년 844명에서 2017년 1,76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시설의 소규모화라고 하는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전주와 익산, 그리고 정읍과 완주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3개소 이내로 설치되어 있다.

〈표6-84〉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및 생활자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4	14	14	16	22	35	45	50	51	40	52	51	50	51	51	51	61	
전주	-	-	-	3	3	4	4	5	5	5	5	5	5	5	5	5	13	
군산	-	-	-	1	2	2	3	4	5	3	5	4	4	4	4	4	3	
익산	-	-	-	5	5	6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정읍	-	-	-	3	4	7	7	8	8	5	8	9	8	8	8	8	8	
남원	-	-	-	-	-	1	1	1	2	2	2	2	2	2	2	2	2	
김제	-	-	-	1	1	2	2	2	2	3	3	3	3	3	3	3	4	
시설수	원주	-	-	-	3	4	8	9	9	9	4	9	8	8	9	8	8	
진안	-	-	-	-	-	1	1	2	1	-	1	1	1	1	1	1	1	
무주	-	-	-	-	-	-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	-	-	-	2	2	2	2	2	1	1	1	1	1	1	1	1	
임실	-	-	-	-	-	1	2	2	2	1	1	1	1	1	1	1	1	
순창	-	-	-	-	-	1	1	2	2	3	3	3	3	3	3	3	3	
고창	-	-	-	-	1	1	1	1	1	1	1	1	1	1	2	2	3	
부안	-	-	-	-	-	-	-	-	-	-	-	-	-	-	-	-	1	
전체	844	900	965	1,044	1,150	1,395	1,577	1,783	1,795	1,619	1,845	1,743	1,869	1,859	1,752	1,753	1,769	
전주	-	-	-	221	222	238	240	290	286	278	277	272	250	248	195	195	159	
군산	-	-	-	48	62	61	80	90	117	96	123	117	117	124	119	119	109	
익산	-	-	-	339	346	341	448	503	542	558	561	520	571	569	558	558	567	
정읍	-	-	-	174	197	275	283	306	310	242	310	321	312	321	308	308	333	
남원	-	-	-	-	-	-	9	21	25	42	62	55	65	68	64	64	61	
김제	-	-	-	65	66	98	96	110	60	49	50	58	67	61	61	61	70	
수용인원	원주	-	-	-	197	210	290	310	306	304	196	286	212	267	244	226	226	226
진안	-	-	-	-	-	4	2	11	9	-	7	14	30	30	29	30	30	
무주	-	-	-	-	-	-	11	20	26	33	34	34	35	34	31	31	31	
장수	-	-	-	-	18	21	28	26	4	2	4	7	7	9	13	13	13	
임실	-	-	-	-	-	22	25	27	26	19	29	28	28	30	30	30	29	
순창	-	-	-	-	-	15	15	26	36	54	52	56	70	71	68	68	68	
고창	-	-	-	-	29	30	30	47	50	50	50	49	50	50	50	50	67	
부안	-	-	-	-	-	-	-	-	-	-	-	-	-	-	-	-	6	

자료 : 전라북도(각연도) 내부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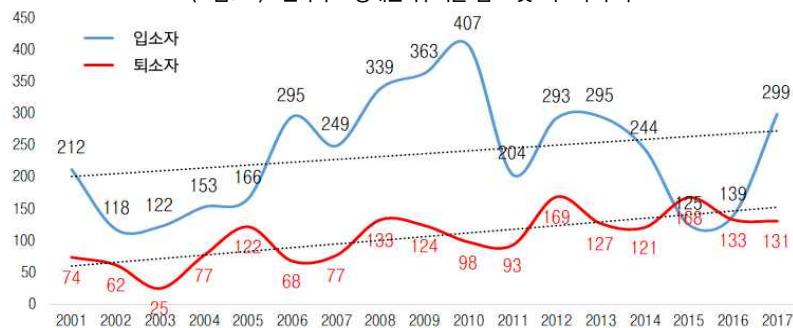
〈표6-85〉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및 생활자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전체	212	118	122	153	166	295	249	339	363	407	204	293	295	244	125	139	299	236.6	
전주	-	-	-	10	7	24	6	67	78	33	11	7	14	5	5	5	159	30.8	
군산	-	-	-	2	6	1	22	16	122	17	6	13	7	4	3	3	6	16.3	
익산	-	-	-	47	19	14	138	99	72	191	28	19	32	27	11	12	20	52.1	
정읍	-	-	-	53	71	87	26	47	22	11	22	30	22	41	37	41	10	37.1	
남원	-	-	-	-	-	9	13	12	21	22	7	72	45	2	2	6	19.2		
김제	-	-	-	4	2	44	-	16	-	50	50	58	43	20	6	7	9	25.8	
입소자	원주	-	-	-	37	14	74	37	22	9	5	12	23	14	17	15	16	22.2	
진안	-	-	-	-	-	4	-	9	9	-	7	15	30	19	2	8	8	11.1	
무주	-	-	-	-	-	-	1	9	10	33	34	34	2	34	31	34	34	23.3	
장수	-	-	-	-	-	18	3	7	-	2	4	7	7	9	4	4	15	7.3	
임실	-	-	-	-	-	19	3	4	3	19	-	28	28	1	4	1	1	10.1	
순창	-	-	-	-	-	15	-	19	21	21	6	3	21	19	5	6	6	12.9	
고창	-	-	-	-	-	29	10	-	18	5	4	2	49	3	3	-	3	12.6	
부안	-	-	-	-	-	-	-	-	-	-	-	-	-	-	-	6	6.0		
전체	74	62	25	77	122	68	77	133	124	98	93	169	127	121	168	133	131	106.0	
전주	-	-	-	19	6	8	4	17	9	11	12	19	21	-	62	49	24	20.1	
군산	-	-	-	3	2	1	3	6	5	6	5	9	7	7	6	5	5	5.0	
익산	-	-	-	33	17	18	31	44	33	27	25	20	20	20	23	18	26	25.4	
정읍	-	-	-	11	49	9	18	24	18	12	20	24	32	32	26	21	28	23.1	
남원	-	-	-	-	-	-	-	1	3	6	6	10	7	7	3	3	3	4.9	
김제	-	-	-	6	1	12	2	2	-	11	-	2	5	5	5	4	6	5.1	
퇴소자	원주	-	-	-	5	14	12	17	26	19	13	13	68	24	39	29	22	22	23.1
진안	-	-	-	-	-	-	2	-	-	-	2	1	1	-	2	-	8	2.7	
무주	-	-	-	-	-	-	-	-	-	1	2	4	1	2	3	3	3	2.4	
장수	-	-	-	-	-	16	-	-	2	22	-	-	-	-	-	-	1	10.3	
임실	-	-	-	-	-	-	-	-	2	3	-	-	3	-	3	3	2	2.7	
순창	-	-	-	-	-	-	-	8	10	7	6	1	7	7	4	3	3	5.6	
고창	-	-	-	-	-	17	8	-	1	2	4	2	8	2	2	2	0	4.2	
부안	-	-	-	-	-	-	-	-	-	-	-	-	-	-	-	0	0.0		

자료 : 전라북도(각연도) 내부자료 재구성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자 및 퇴소자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입소자는 299명이고 평균퇴소자는 106명으로 퇴소자보다는 입소자가 많은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소자와 퇴소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6-7〉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자 추이



마.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추정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의 직접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필요한 시설 수를 추정하였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탈시설 자립강화.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소규모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로의 전환 등에 있는 만큼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사회 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장애연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활시설과의 인근배치를 통해 이용장애인의 편의 도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향후 공급량 결정은 이 같은 정책동향을 감안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의 전체 장애인 중 평균 입소자와 퇴소자의 비율 그리고 전체 장애인 중 입소자와 퇴소자를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여 추정할 경우 2020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자는 최소 1,810명에서 최대 1,831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이 2.0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설도 공급규모에서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6-86〉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시설 수

구분	현재(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전체 장애인	136,087	137,720	139,373	141,045	142,738	144,450	146,184	147,938	149,713	151,510	153,328	
평균증가율	입소자 퇴소자 생활인원	299명 131명 1,769명	299 154 1,831	299 162 1,852	299 171 1,874	299 180 1,895	299 190 1,917	299 200 1,939	300 211 1,962	300 223 1,984	300 235 2,007	300 248 2,031
회귀식	입소자 퇴소자 생활인원	299명 131명 1,769명	255 131 1,831	255 133 1,852	256 135 1,874	257 138 1,895	257 140 1,917	258 142 1,939	259 145 1,962	260 147 1,984	260 150 2,007	261 152 2,031
평균증가율 적용 생활인원	2,015명	1,831 2,015명	1,852	1,874	1,895	1,917	1,939	1,962	1,984	2,007	2,031	2,054
회귀식 적용 생활인원		1,810	1,822	1,834	1,846	1,858	1,870	1,883	1,895	1,908	1,921	1,934
적정시설 수	61개소	61개소 60개소	62개소 61개소	62개소 61개소	63개소 62개소	64개소 62개소	65개소 63개소	65개소 63개소	66개소 64개소	67개소 64개소	68개소 64개소	68개소 64개소

전술한 생활인 추정치에 근거할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은 2021년도 이후에는 1개소에서 최대 7개소 정도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는 현재 장애인복지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추가시설에 대한 수요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 내 기타 시설 혹은 가정내 생활 등으로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필요시설 수를 추정해 보면, 우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필요시설에 대한 추정은 전체 장애인 중 도움제공자가 필요한 장애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추정치에 근거할 경우 2020년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이 297명 그리고 2030년에는 335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세분화하면 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입소 희망자는 2020년 약 19명에서 2030년 22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의 입소희망자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된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확충 혹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어려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신규설치는 최대한 제한하고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돌봄사각지대를 위한 최소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1개소 정도,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최소 4개소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6-87〉 전라북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필요시설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전체장애인	136,087	137,720	139,373	141,045	142,738	144,450	146,184	147,938	149,713	151,510	153,328
도움필요	46406	46963	47526	48096	48674	49257	49849	50447	51052	51665	52285
일부도움 필요 장애인	10256	10379	10503	10629	10757	10886	11017	11149	11283	11418	11555
도움제공자 없는 장애인	297	301	305	308	312	316	319	323	327	331	335
장애인시설입소 희망장애인	19	20	20	20	20	21	21	21	22	22	22
필요시설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0.6개소	0.7개소								

4. 기타복지시설(지역사회복지기관) 수요추정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양로시설 등 취약계층의 돌봄수요에 영향을 받는 전술한 시설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전체 지역주민을 이용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수요추정보다는 인구당 필요한 적정시설의 수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필요한 적정시설 수는 별도의 수요측정보다는 인구당 시설수로 정량화하고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주 이용자가 빈곤층이 다수 이용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수요 추정시 빈곤층을 표적집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잠재수요에 해당되는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는 2008년 185.5만명에서 2018년 183.6만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감소율은 연평균 0.1%p정도이지만 연령대별로는 10대~30대에의 아동청년층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88〉 전라북도 인구 현황 및 추이

구분	연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율
종합 사회복지관	0-4	80,800	79,597	80,119	81,339	80,571	79,504	78,525	76,412	73,102	67,854	63,016	-2.46
	5-9	106,275	99,856	92,073	86,702	85,602	84,055	82,782	83,412	84,270	82,963	80,974	-2.68
	10-14	131,620	127,962	125,186	120,399	113,823	107,285	101,214	93,142	87,768	86,376	84,437	-4.34
	15-19	126,401	129,365	132,602	133,790	132,153	130,806	127,245	124,671	119,853	113,580	106,361	-1.71
	20-24	116,515	113,792	112,123	114,210	116,194	118,776	121,652	124,468	124,667	123,592	120,700	0.35
	25-29	128,554	123,746	118,520	112,068	104,246	98,854	95,890	94,230	94,669	96,350	96,854	-2.79
	30-34	124,512	120,548	122,043	123,039	122,650	121,636	116,047	109,611	102,681	94,635	88,672	-3.34
	35-39	148,466	147,985	145,026	138,367	134,017	127,319	123,241	122,906	122,970	121,322	119,202	-2.17
	40-44	144,950	147,162	150,253	153,823	154,629	152,961	152,371	147,620	140,393	135,581	127,901	-1.24
	45-49	152,948	150,408	147,325	144,311	143,360	148,258	150,765	151,915	155,191	155,717	153,250	0.02
	50-54	131,264	137,508	146,115	153,087	155,349	155,784	153,614	148,692	145,516	144,160	148,505	1.24
	55-59	102,052	105,559	112,354	118,824	125,248	132,941	139,428	146,891	153,759	156,060	156,093	4.34
	60-64	89,184	93,338	100,851	102,153	101,913	102,022	106,160	112,217	118,749	125,135	132,457	4.03
	65-69	93,633	90,189	88,659	86,811	84,112	87,492	91,901	98,716	99,944	99,781	99,878	0.65
	70-74	78,621	80,777	80,050	82,446	89,843	88,225	85,317	83,782	82,388	80,349	83,523	0.61
	75-79	52,125	55,959	60,570	64,173	66,807	69,316	71,862	71,225	73,568	80,641	79,342	4.29
노인 복지관	80-84	28,525	30,955	33,914	36,130	38,154	40,745	44,223	48,181	51,298	53,751	55,907	6.96
	85-89	14,142	14,299	14,611	15,397	16,840	18,176	20,205	22,256	24,021	25,614	27,578	6.91
	90-94	4,102	4,393	4,957	5,244	5,992	6,821	6,969	7,039	7,470	8,332	9,108	8.30
	95-99	910	926	1,155	1,237	1,316	1,407	1,546	1,686	1,817	2,108	2,326	9.84
	100+	173	184	457	481	522	582	603	639	697	706	748	15.77
전체 인구		1,855,772	1,854,508	1,868,963	1,874,031	1,873,341	1,872,965	1,871,560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0.10

자료 : 통계청(2018) 주민등록인구 현황

〈표6-89〉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연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율
종합 사회복지관	0-4	2,524	2,285	2,291	2,176	2,016	1,769	1,592	1,517	1,740	1,494	1,373	-5.91
	5-9	6,708	5,919	5,379	4,662	3,929	3,340	2,914	2,738	5,223	5,067	4,443	-4.04
	10-14	11,558	11,048	10,706	9,885	8,652	7,418	6,366	5,483	9,363	8,721	7,731	-3.94
	15-19	12,513	12,667	12,987	12,803	12,093	10,854	10,162	9,374	13,768	13,000	11,308	-1.01
	20-24	4,362	4,366	4,590	4,665	4,635	4,432	4,303	4,434	4,977	5,001	4,644	0.63
	25-29	2,086	1,954	1,818	1,780	1,598	1,357	1,280	1,301	1,428	1,370	1,385	-4.01
	30-34	2,875	2,535	2,473	2,273	2,056	1,821	1,658	1,516	1,624	1,456	1,332	-7.41
	35-39	5,749	5,334	5,060	4,629	3,882	3,321	2,864	2,638	2,901	2,716	2,554	-7.79
	40-44	7,844	7,882	7,855	7,367	6,792	6,071	5,452	4,946	5,080	4,485	4,012	-6.48
	45-49	9,345	9,006	8,867	8,464	7,789	7,117	6,858	6,588	6,828	6,561	6,251	-3.94
	50-54	7,095	7,429	7,872	8,120	7,980	7,535	7,256	7,000	7,252	6,929	6,627	-0.68
	55-59	5,540	5,269	5,368	5,723	5,698	5,750	5,975	6,199	7,039	7,298	7,357	2.88
	60-64	5,296	5,212	5,296	5,397	5,110	4,737	4,452	4,631	5,480	5,728	6,096	1.42
	65-69	7,731	7,004	6,482	6,229	5,561	5,011	4,870	4,979	5,832	5,782	5,735	-2.94
	70-74	8,194	7,777	7,444	7,009	6,539	6,545	6,073	5,631	6,028	5,565	5,123	-4.59
	75-79	6,624	6,487	6,452	6,569	6,203	5,900	5,646	5,439	5,605	5,528	5,751	-1.40
노인 복지관	80-84	4,270	4,221	4,291	4,412	4,143	3,987	3,970	3,981	4,305	4,271	4,178	-0.22
	85-89	2,184	2,343	2,170	2,121	2,019	2,002	2,008	2,122	2,299	2,301	2,258	0.33
	90-94	663	705	746	735	682	759	821	738	761	793	854	2.56
	95-99	146	144	138	140	154	155	171	181	185	182	223	4.33
	100+	40	43	41	33	28	25	29	29	32	39	40	0.00
전체		113,347	109,630	108,326	105,192	97,559	89,906	84,720	81,465	97,750	94,287	89,275	-2.36

한편, 빈곤인구는 2007년 11.3만명에서 2017년 8.9만명으로 연평균 2.36%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빈곤인구는 감소했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6-90〉 전라북도 빈곤인구 비율 및 추이

구분	연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종합사회 복지관	0-4	2.83	2.88	2.72	2.48	2.20	2.00	1.93	2.28	2.04	2.02	2.34
	5-9	5.57	5.39	5.06	4.53	3.90	3.47	3.31	6.26	6.01	5.36	4.89
	10-14	8.39	8.37	7.90	7.19	6.52	5.93	5.42	10.05	9.94	8.95	7.87
	15-19	10.02	10.04	9.66	9.04	8.21	7.77	7.37	11.04	10.85	9.96	9.39
	20-24	3.75	4.03	4.16	4.06	3.81	3.62	3.64	4.00	4.01	3.76	3.88
	25-29	1.52	1.47	1.50	1.43	1.30	1.29	1.36	1.52	1.45	1.44	1.43
	30-34	2.04	2.05	1.86	1.67	1.48	1.36	1.31	1.48	1.42	1.41	1.61
	35-39	3.59	3.42	3.19	2.81	2.48	2.25	2.14	2.36	2.21	2.11	2.66
	40-44	5.44	5.34	4.90	4.42	3.93	3.56	3.25	3.44	3.19	2.96	4.04
	45-49	5.89	5.90	5.75	5.40	4.96	4.63	4.37	4.49	4.23	4.01	4.96
	50-54	5.66	5.72	5.56	5.21	4.85	4.66	4.56	4.88	4.76	4.60	5.05
	55-59	5.16	5.09	5.09	4.80	4.59	4.49	4.45	4.79	4.75	4.71	4.79
	60-64	5.84	5.67	5.35	5.00	4.65	4.36	4.36	4.88	4.82	4.87	4.98
	65-69	7.48	7.19	7.03	6.41	5.96	5.57	5.42	5.91	5.79	5.75	6.25
	70-74	9.89	9.22	8.76	7.93	7.28	6.88	6.60	7.19	6.75	6.38	7.69
	75-79	12.45	11.53	10.85	9.67	8.83	8.15	7.57	7.87	7.51	7.13	9.15
	80-84	14.80	13.86	13.01	11.47	10.45	9.74	9.00	8.94	8.33	7.77	10.74
	85-89	16.57	15.18	14.52	13.11	11.89	11.05	10.50	10.33	9.58	8.82	12.15
	90-94	17.19	16.98	14.83	13.01	12.67	12.04	10.59	10.81	10.62	10.25	12.90
	95-99	15.82	14.90	12.12	12.45	11.78	12.15	11.71	10.97	10.02	10.58	12.25
	100+	24.86	22.28	7.22	5.82	4.79	4.98	4.81	5.01	5.60	5.67	9.10
전체		5.91	5.84	5.63	5.21	4.80	4.52	4.35	5.23	5.06	4.81	5.14

〈표6-91〉 전라북도 인구 현황 및 추이

구분	연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율
종합 사회복지관	0-4	65,731	65,107	64,827	64,416	64,161	64,038	64,015	64,039	64,045	63,954	63,708	-0.31
	5-9	78,359	75,475	72,600	70,319	69,099	67,673	67,056	66,777	66,385	66,158	66,057	-1.69
	10-14	79,743	81,170	81,581	80,785	79,869	79,436	76,586	73,759	71,497	70,285	68,869	-1.46
	15-19	93,224	86,158	83,027	82,038	80,733	80,059	81,492	81,871	81,064	80,141	79,671	-1.56
	20-24	120,540	116,369	109,968	103,028	96,372	89,194	82,730	80,029	79,215	77,958	77,224	-4.36
	25-29	108,170	109,875	109,138	107,294	104,643	102,102	98,513	92,999	87,192	81,838	75,994	-3.47
	30-34	90,080	90,138	92,350	95,382	98,170	99,943	101,431	100,616	98,872	96,408	94,099	0.44
	35-39	111,539	105,821	99,637	94,778	91,769	91,820	91,910	94,162	97,237	99,990	101,726	-0.92
	40-44	121,816	122,145	123,541	122,677	120,928	115,264	109,506	103,252	98,330	95,368	95,490	-2.41
	45-49	147,091	141,344	136,045	131,004	125,380	124,648	125,266	126,929	126,313	124,659	118,944	-2.10
	50-54	147,927	150,559	152,130	154,273	152,413	149,620	143,860	138,547	133,509	127,978	127,421	-1.48
	55-59	148,206	144,149	144,939	142,860	149,221	150,490	153,269	155,049	157,303	155,461	152,638	0.30
	60-64	139,560	148,933	152,069	156,008	154,229	150,870	146,995	147,762	145,798	152,220	153,692	0.97
	65-69	105,476	111,576	117,046	125,884	133,630	140,480	150,031	153,461	157,591	156,038	152,931	3.78
	70-74	89,284	93,890	94,078	93,892	97,452	102,822	109,210	114,964	123,799	131,660	138,745	4.51
	75-79	74,690	73,038	72,870	73,793	76,714	82,769	86,998	87,581	87,807	91,392	96,931	2.64
노인 복지관	80-84	57,347	57,841	62,563	65,078	63,547	62,600	61,298	61,776	63,104	65,789	71,136	2.18
	85-89	31,439	33,957	35,986	37,538	39,418	40,381	40,973	44,766	46,751	45,778	45,240	3.71
	90-94	10,828	11,799	12,833	13,940	15,187	16,818	18,186	19,344	20,278	21,429	22,121	7.41
	95-99	2,176	2,291	2,647	3,062	3,481	3,872	4,202	4,603	5,047	5,524	6,152	10.95
	100+	281	315	364	460	449	462	498	591	702	786	873	12.00
	전체 인구	1,823,507	1,821,950	1,820,239	1,818,509	1,816,865	1,815,361	1,814,025	1,812,877	1,811,839	1,810,814	1,809,662	-0.10

한편,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82만명에서 2030년 181만정도로 감소하고 빈 곤인구도 정책의 유동적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구의 감소에 따라 같은 기간동안 9.4만명에서 9.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6-92〉 전라북도 빈곤인구 추계

구분	연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종합 사회복지관	0-4	1,536	1,522	1,515	1,506	1,500	1,497	1,496	1,497	1,497	1,495	1,489
	5-9	3,828	3,687	3,547	3,436	3,376	3,306	3,276	3,263	3,243	3,232	3,227
	10-14	6,272	6,384	6,416	6,354	6,282	6,248	6,023	5,801	5,623	5,528	5,417
	15-19	8,758	8,094	7,800	7,707	7,585	7,521	7,656	7,692	7,616	7,529	7,485
	20-24	4,683	4,521	4,272	4,003	3,744	3,465	3,214	3,109	3,077	3,029	3,000
	25-29	1,544	1,568	1,557	1,531	1,493	1,457	1,406	1,327	1,244	1,168	1,084
	30-34	1,449	1,450	1,485	1,534	1,579	1,607	1,631	1,618	1,590	1,550	1,513
	35-39	2,962	2,810	2,646	2,517	2,437	2,438	2,440	2,500	2,582	2,655	2,701
	40-44	4,924	4,938	4,994	4,959	4,889	4,660	4,427	4,174	3,975	3,855	3,860
	45-49	7,299	7,014	6,751	6,501	6,222	6,185	6,216	6,299	6,268	6,186	5,902
	50-54	7,464	7,596	7,676	7,784	7,690	7,549	7,258	6,990	6,736	6,457	6,429
	55-59	7,102	6,908	6,946	6,846	7,151	7,212	7,345	7,430	7,538	7,450	7,315
	60-64	6,954	7,421	7,577	7,773	7,684	7,517	7,324	7,362	7,264	7,584	7,658
	65-69	6,590	6,971	7,313	7,865	8,349	8,777	9,374	9,588	9,846	9,749	9,555
	70-74	6,865	7,219	7,233	7,219	7,493	7,906	8,397	8,839	9,519	10,123	10,668
	75-79	6,838	6,686	6,671	6,756	7,023	7,577	7,964	8,018	8,038	8,367	8,874
	80-84	6,157	6,210	6,717	6,987	6,823	6,721	6,581	6,633	6,775	7,063	7,638
	85-89	3,821	4,127	4,374	4,562	4,791	4,908	4,980	5,441	5,682	5,564	5,498
	90-94	1,396	1,522	1,655	1,798	1,959	2,169	2,345	2,495	2,615	2,764	2,853
	95-99	267	281	324	375	426	474	515	564	618	677	754
	100+	26	29	33	42	41	42	45	54	64	72	79
전체 인구		93,648	93,568	93,481	93,392	93,307	93,230	93,161	93,102	93,049	92,997	92,937

한편,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시설로서 대부분의 인구계층이 이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정계층의 이용수요보다는 인구수에 따른 적정시설의 규모로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타시도와 비교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시설규모가 적정한지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인구규모에 따른 복지시설이 적정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상대적 거리도로 전라북도의 4개 유형 사회복지시설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D_{ij} = X_{ij} / \text{Max}_j(X_{ij})$$

i : 노인여가복지시설(지역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요 및 공급변인

j : 해당지역

D_{ij} : 구하고자 하는 상대적 거리

X_{ij} : 해당지역 j 에 대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수요 및 공급변인 i 의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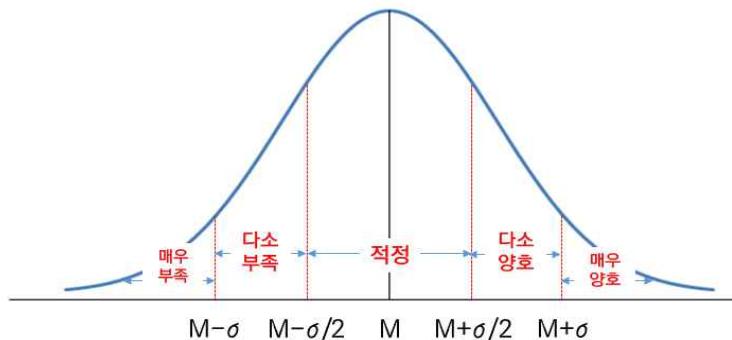
$\text{Max}_j(X_{ij})$: 해당지역 j 에 대한 복지시설 수요 및 공급변인 i 의 최대값

각 시설의 수요공급의 산출식은 시설의 주요 수요층에 대한 인구규모와 기설치된 복지시설의 시설개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서 산출하였다.

〈표6-93〉 주요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산출식

구분	지표 및 산출식	
노인여가시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인구의 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전체 인구수)*100] · 노인인구 수 ·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기초연금 수급자 수/전체 노인수)*100]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1000명당 노인복지관 수 · 노인 1000명당 경로당 수
장애인복지시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구 비율 [(등록장애인 총 수/전체 인구수)*100] · 장애인 인구 수 ·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전체 인구수)*100]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1000명당 장애인복지관 수
지역사회복지관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전체 인구수)*100] · 기초수급자 수 · 전체 인구 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만명당 사회복지관 수

〈그림6-8〉 사회복지이용시설 수요-공급격차에 따른 적정성 평가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전라북도에 각각 총 24개소 그리고 6,64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수요공급분석결과 적용시 부산, 대구 등과 함께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 24개소가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은 부산, 대구, 강원 등과 함께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외 지역사회복지관은 전라북도에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구, 인천, 전남 등과 함께 적정한 규모로 설치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6-94〉 주요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분석결과

구분	시설수	전국 시도	
		매우양호	울산
노인복지관	시설수 : 24개 · 시설수 : 24개 · 노인인구 천명당 시설수 0.07개소	다소양호	광주, 충북
		적정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소부족	서울, 세종, 경북, 경남
		매우부족	경기
경로당	시설수 : 6,648개 · 시설수 : 6,648개 · 노인인구 천명당 시설수 18.55개소	매우양호	경기
		다소양호	서울, 세종, 경북, 경남
		적정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소부족	광주, 충북
장애인복지관	시설수 : 24개 · 시설수 : 24개 · 노인인구 천명당 시설수 0.07개소	매우부족	울산
		매우양호	제주
		다소양호	대전, 세종, 충북
		적정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사회복지관	시설수 : 14개소 · 지역주민 천명당 시설수 0.11개소	다소부족	부산, 대구, 강원, 전북
		매우부족	경기
		매우양호	대전, 제주
		다소양호	광주, 세종, 강원
		적정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다소부족	경북
		매우부족	서울, 경기

〈표6-95〉 전라북도 시군별 주요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분석결과

구분	전북 시군	
노인복지관	매우양호	무주, 임실
	다소양호	진안, 장수
	적정	정읍, 남원, 순창, 고창
	다소부족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원주
경로당	매우부족	부안
	매우양호	진안, 장수, 순창
	다소양호	무주, 임실
	적정	정읍, 남원, 김제, 원주, 고창, 부안
장애인복지시설	다소부족	
	매우부족	전주, 군산, 익산
	매우양호	무주, 장수
	다소양호	진안
지역사회복지관	적정	정읍, 남원, 김제, 원주, 고창, 부안
	다소부족	전주, 군산, 익산, 임실, 순창
	매우부족	
	매우양호	김제, 고창, 부안
	다소양호	
	적정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다소부족	군산, 익산, 원주
	매우부족	전주

다음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주요 이용시설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관은 부안, 경로당은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전주, 군산, 익산,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 지역사회복지관전주를 포함하여 군산, 익산, 완주 등이 매우 부족하거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장

전문가조사결과

Jeonbuk Institute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전라북도의 유형별 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변화와 제도적 보완
 4.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개선방향
 5. 복지시설의 통합 및 연계성

VII. 전문가조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라북도의 민간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장기추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민간복지시설의 참여와 협의가 중요하다. 특히, 민간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복지시설의 운영과 주요 기능 및 사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의 실무자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의 현황 그리고 향후 복지시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 민간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복지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57명의 복지현장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을 보면, 지역별로는 시 단위 전문가가 144명(91.7%), 군단위 근무자가 13명(8.3%)이었고, 전문가의 근속기간으로는 3년 미만이 35명(22.3%), 5년~10년 미만 33명(21.0%), 3년~5년 미만과 10년~15년 미만 근속 근무자가 각각 28명(17.8%), 15년 이상 근속근무자가 22명(14.0%)등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4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시설의 주 대상자는 노인(35.0%), 장애인(26.1%), 지역주민(22.9%), 아동청소년(15.9%) 등의 순으로 많았고, 시설의 형태로는 이용시설이 87.3%, 생활시설 12.7%였다.

〈표7-1〉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지역	시 단위	144	91.7	근속 기간	3년 미만	35	22.3
	군 단위	13	8.3		3년~5년 미만	28	17.8
	합계	157	100.0		5년~10년 미만	33	21.0
시설 대상자	아동청소년	25	15.9		10년~15년 미만	28	17.8
	노인	55	35.0		15년 이상	22	14.0
	장애인	41	26.1		결측	11	7.0
	지역주민	36	22.9		합계	157	100.0
시설 형태	합계	157	100.0	연령	20대	32	20.4
	생활시설	20	12.7		30대	54	34.4
	이용시설	137	87.3		40대	42	26.8
	합계	157	100.0		50대 이상	16	10.2
					결측	13	8.3
					합계	157	100.0

2. 전라북도의 유형별 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전라북도의 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은 유형별 복지시설 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선 아동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69.8%)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동생활시설 또한 부족하다(85.8%)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인시설 전문가의 경우 아동이용시설의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7.7%로 다른 대상자시설 전문가의 70%를 상회하는 응답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2〉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이용시설						생활시설					
		매우 부족	부족 한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매우 부족	부족 한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지역	시 단위	11.0	58.1	30.1	.7	69.1	30.8	10.9	74.2	14.8		85.1	14.8
	군 단위	23.1	53.8	23.1		76.9	23.1	46.2	46.2	7.7		92.4	7.7
	아동청소년	20.0	64.0	16.0		84.0	16.0	17.4	78.3	4.3		95.7	4.3
대상자	노인	15.4	42.3	40.4	1.9	57.7	42.3	12.2	69.4	18.4		81.6	18.4
	장애인	10.5	63.2	26.3		73.7	26.3	22.9	62.9	14.3		85.8	14.3
	지역주민	2.9	70.6	26.5		73.5	26.5	5.9	79.4	14.7		85.3	14.7
시설	생활시설	20.0	65.0	15.0		85.0	15.0	11.8	82.4	5.9		94.2	5.9
형태	이용시설	10.9	56.6	31.8	.8	67.5	32.6	14.5	70.2	15.3		84.7	15.3
	전체	12.1	57.7	29.5	.7	69.8	30.2	14.2	71.6	14.2		85.8	14.2

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수의 적정성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가 55.4%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생활시설 또한 부족이 57.2%로 높게 나타났다.

〈표7-3〉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이용시설						생활시설					
		매우 부족	부족 한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매우 부족	부족 한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지역	시 단위	3.7	48.1	41.5	6.7	51.8	48.2	4.0	50.4	36.8	8.8	54.4	45.6
	군 단위		92.3	7.7		92.3	7.7		84.6	7.7	7.7	84.6	15.4
	아동청소년	4.3	60.9	21.7	13.0	65.2	34.7	4.5	72.7	13.6	9.1	77.2	22.7
대상자	노인	5.6	33.3	50.0	11.1	38.9	61.1	6.3	33.3	43.8	16.7	39.6	60.5
	장애인	2.7	67.6	29.7		70.3	29.7	2.9	58.8	35.3	2.9	61.7	38.2
	지역주민		58.8	41.2		58.8	41.2		64.7	32.4	2.9	64.7	35.3
시설	생활시설	11.1	50.0	33.3	5.6	61.1	38.9	6.3	56.3	25.0	12.5	62.6	37.5
형태	이용시설	2.3	52.3	39.2	6.2	54.6	45.4	3.3	53.3	35.2	8.2	56.6	43.4
	전체	3.4	52.0	38.5	6.1	55.4	44.6	3.6	53.6	34.1	8.7	57.2	42.8

〈표7-4〉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구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매우 부족	부족 한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매우 부족	부족 한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지역	시 단위	11.0	70.6	17.6	.7	81.6	18.3	10.9	65.1	24.0	76.0	24.0
	군 단위	30.8	69.2			100.0	0.0	50.0	41.7	8.3	91.7	8.3
대상자	이동청소년	18.2	81.8			100.0	0.0	29.2	70.8		100.0	0.0
	노인	13.2	69.8	17.0		83.0	17.0	4.1	69.4	26.5	73.5	26.5
시설 형태	장애인	15.0	72.5	12.5		87.5	12.5	25.7	48.6	25.7	74.3	25.7
	지역주민	5.9	61.8	29.4	2.9	67.7	32.3	6.1	63.6	30.3	69.7	30.3
사설	생활시설	17.6	64.7	17.6		82.3	17.6	22.2	66.7	11.1	88.9	11.1
형태	이용시설	12.1	71.2	15.9	.8	83.3	16.7	13.0	62.6	24.4	75.6	24.4
전체		12.8	70.5	16.1	.7	83.3	16.8	14.2	63.1	22.7	77.3	22.7

장애인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의 경우 부족이 83.3%로 많았고, 부족하다는 인식은 16.8%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7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시설 많다는 인식은 22.7%에 불과했다.

장애인 이용시설의 부족하다는 인식은 지역에서 큰 편차를 보였는데, 군 단위의 현장 종사자들이 시부지역보다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대상자와 시설의 형태의 차이와 관계없이 장애인이용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시설 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족이 80.1%로 많음 19.9%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단위로 보게되면 군 단위가 92.3%로 시 단위 78.9%에 비해 부족함이 높았고 시설형태별로는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부족함이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7-5〉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설 수의 적정성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많은 편	매우 많음	부족	많음	
지역	시 단위	7.2	71.7	21.0		78.9	21.0
	군 단위	23.1	69.2	7.7		92.3	7.7
대상자	이동청소년	8.7	78.3	13.0		87.0	13.0
	노인	5.7	71.7	22.6		77.4	22.6
시설 형태	장애인	12.8	71.8	15.4		84.6	15.4
	지역주민	8.3	66.7	25.0		75.0	25.0
사설	생활시설	5.6	88.9	5.6		94.5	5.6
형태	이용시설	9.0	69.2	21.8		78.2	21.8
전체		8.6	71.5	19.9		80.1	19.9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변화와 제도적 보완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지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은 수요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53.4%로 다소 높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의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이 51.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7-6〉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지역	시 단위	3.0	42.2	53.3	1.5	45.2	54.8	3.8	45.5	48.5	2.3	49.3	50.8
	군 단위	15.4	46.2	38.5		61.6	38.5	23.1	46.2	30.8		69.3	30.8
	아동청소년	12.5	20.8	62.5	4.2	33.3	66.7	9.1	36.4	54.5		45.5	54.5
대상자	노인	1.9	38.5	59.6		40.4	59.6	2.0	41.2	52.9	3.9	43.2	56.8
	장애인	5.1	56.4	38.5		61.5	38.5	12.8	53.8	33.3		66.6	33.3
	지역주민		48.5	48.5	3.0	48.5	51.5		48.5	48.5	3.0	48.5	51.5
시설 형태	생활시설	5.3	5.3	84.2	5.3	10.6	89.5		23.5	76.5		23.5	76.5
	이용시설	3.9	48.1	47.3	.8	52.0	48.1	6.3	48.4	43.0	2.3	54.7	45.3
	전체	4.1	42.6	52.0	1.4	46.7	53.4	5.5	45.5	46.9	2.1	51.0	49.0

다음으로 아동상담시설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다가 52.8%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아동센터 또한 69.2%가 수요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7〉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2

	아동상담시설						지역아동센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지역	시 단위	3.1	42.7	51.9	2.3	45.8	54.2	1.5	28.6	63.9	6.0	30.1	69.9
	군 단위	23.1	38.5	38.5		61.6	38.5	7.7	30.8	53.8	7.7	38.5	61.5
	아동청소년	13.6	27.3	54.5	4.5	40.9	59.0	9.1	27.3	54.5	9.1	36.4	63.6
대상자	노인	2.0	40.0	56.0	2.0	42.0	58.0		21.6	70.6	7.8	21.6	78.4
	장애인	7.7	53.8	38.5		61.5	38.5	2.5	37.5	55.0	5.0	40.0	60.0
	지역주민		42.4	54.5	3.0	42.4	57.5		30.3	66.7	3.0	30.3	69.7
시설 형태	생활시설	5.9	17.6	76.5		23.5	76.5		23.5	70.6	5.9	23.5	76.5
	이용시설	4.7	45.7	47.2	2.4	50.4	49.6	2.3	29.5	62.0	6.2	31.8	68.2
	전체	4.9	42.4	50.7	2.1	47.3	52.8	2.1	28.8	63.0	6.2	30.9	69.2

청소년수련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54.8%로 청소년복지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도 응답자의 56.7%가 당사자의 복지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표7-8〉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3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역	시 단위	4.5	41.4	52.6	1.5	45.9	54.1	5.9	48.9	39.3	5.9	54.8	45.2
	군 단위	7.7	30.8	53.8	7.7	38.5	61.5	23.1	53.8	23.1		76.9	23.1
	이동청소년	13.6	40.9	45.5		54.5	45.5	13.0	47.8	30.4	8.7	60.8	39.1
대상자	노인	2.0	33.3	64.7		35.3	64.7		50.0	44.2	5.8	50.0	50.0
	장애인	7.5	50.0	37.5	5.0	57.5	42.5	17.5	57.5	20.0	5.0	75.0	25.0
	지역주민		39.4	57.6	3.0	39.4	60.6	3.0	39.4	54.5	3.0	42.4	57.5
시설 형태	생활시설	5.9	23.5	70.6		29.4	70.6	5.6	38.9	44.4	11.1	44.5	55.5
	이용시설	4.7	42.6	50.4	2.3	47.3	52.7	7.7	50.8	36.9	4.6	58.5	41.5
전체		4.8	40.4	52.7	2.1	45.2	54.8	7.4	49.3	37.8	5.4	56.7	43.2

장애인그룹홈의 복지수요 해결정도는 전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가 57.1%로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60.8%의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장애인의 복지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표7-9〉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4

		장애인그룹홈					장애인복지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역	시 단위	7.5	47.8	41.0	3.7	55.3	44.7	4.4	32.6	57.8	5.2	37.0	63.0
	군 단위	23.1	53.8	23.1		76.9	23.1	7.7	53.8	38.5		61.5	38.5
	이동청소년	17.4	30.4	43.5	8.7	47.8	52.2	8.7	21.7	60.9	8.7	30.4	69.6
대상자	노인	1.9	51.9	42.3	3.8	53.8	46.1	3.8	30.8	59.6	5.8	34.6	65.4
	장애인	17.9	64.1	17.9		82.0	17.9	7.5	50.0	40.0	2.5	57.5	42.5
	지역주민	3.0	36.4	57.6	3.0	39.4	60.6		30.3	66.7	3.0	30.3	69.7
시설 형태	생활시설	11.1	27.8	50.0	11.1	38.9	61.1	5.6	22.2	61.1	11.1	27.8	72.2
	이용시설	8.5	51.2	38.0	2.3	59.7	40.3	4.6	36.2	55.4	3.8	40.8	59.2
전체		8.8	48.3	39.5	3.4	57.1	42.9	4.7	34.5	56.1	4.7	39.2	60.8

〈표7-10〉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역	시 단위	7.5	36.6	52.2	3.7	44.1	55.9	1.5	28.0	61.4	9.1	29.5	70.5
	군 단위	15.4	69.2	15.4		84.6	15.4	7.7	53.8	23.1	15.4	61.5	38.5
	이동청소년	17.4	13.0	60.9	8.7	30.4	69.6		34.8	47.8	17.4	34.8	65.2
대상자	노인	5.8	34.6	57.7	1.9	40.4	59.6	2.0	5.9	78.4	13.7	7.9	92.1
	장애인	12.8	61.5	23.1	2.6	74.3	25.7	2.6	56.4	35.9	5.1	59.0	41.0
	지역주민	39.4	57.6	3.0	39.4	60.6		3.1	34.4	59.4	3.1	37.5	62.5
시설	생활시설	11.1	16.7	61.1	11.1	27.8	72.2	5.6	27.8	55.6	11.1	33.4	66.7
형태	이용시설	7.8	42.6	47.3	2.3	50.4	49.6	1.6	30.7	58.3	9.4	32.3	67.7
	전체	8.2	39.5	49.0	3.4	47.7	52.4	2.1	30.3	57.9	9.7	32.4	6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다가 52.4%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또한 67.6%로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군 단위의 경우 수요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시 단위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가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노인재가복지시설 또한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다가 7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재가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시설 전문가의 경우에는 수요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59.0%로 다른 대상자 시설 전문가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11〉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6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역	시 단위	1.5	24.1	62.4	12.0	25.6	74.4	1.5	25.8	59.1	13.6	27.3	72.7
	군 단위	7.7	38.5	46.2	7.7	46.2	53.9	7.7	38.5	38.5	15.4	46.2	53.9
	이동청소년		26.1	56.5	17.4	26.1	73.9		22.7	54.5	22.7	22.7	77.2
대상자	노인	2.0	5.9	78.4	13.7	7.9	92.1	1.9	11.5	65.4	21.2	13.4	86.6
	장애인	2.5	45.0	42.5	10.0	47.5	52.5	2.6	56.4	33.3	7.7	59.0	41.0
	지역주민	3.1	31.3	59.4	6.3	34.4	65.7	3.1	18.8	75.0	3.1	21.9	78.1
시설	생활시설	5.6	22.2	61.1	11.1	27.8	72.2	5.9	17.6	58.8	17.6	23.5	76.4
형태	이용시설	1.6	25.8	60.9	11.7	27.4	72.6	1.6	28.1	57.0	13.3	29.7	70.3
	전체	2.1	25.3	61.0	11.6	27.4	72.6	2.1	26.9	57.2	13.8	29.0	71.0

〈표7-12〉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7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지역	시 단위	1.5	22.1	69.5	6.9	23.6	76.4	2.3	23.7	63.4	10.7	26.0	74.1
	군 단위	7.7	53.8	30.8	7.7	61.5	38.5		38.5	38.5	23.1	38.5	61.6
	이동청소년		18.2	63.6	18.2	18.2	81.8	4.5	22.7	50.0	22.7	27.2	72.7
대상자	노인	2.0	11.8	78.4	7.8	13.8	86.2	2.0	15.7	70.6	11.8	17.7	82.4
	장애인	2.6	48.7	46.2	2.6	51.3	48.8		43.6	43.6	12.8	43.6	56.4
	지역주민	3.1	21.9	71.9	3.1	25.0	75.0	3.1	18.8	75.0	3.1	21.9	78.1
시설	생활시설	5.9	17.6	64.7	11.8	23.5	76.5	11.8	17.6	58.8	11.8	29.4	70.6
형태	이용시설	1.6	26.0	66.1	6.3	27.6	72.4	.8	26.0	61.4	11.8	26.8	73.2
	전체	2.1	25.0	66.0	6.9	27.1	72.9	2.1	25.0	61.1	11.8	27.1	72.9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이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72.9%로 나타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군 단위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가 61.5%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복지수요에 대한 해결정도에 있어 큰 편차를 보였다.

지역사회복지관의 복지수요해결정도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61.2%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자활센터 역시 그렇다가 60.8%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모두 군 단위의 경우는 복지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가 각각 84.7%, 61.5%로 나타나 군 단위에서는 주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7-13〉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8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지역	시 단위	.7	33.6	61.2	4.5	34.3	65.7		36.9	60.0	3.1	36.9	63.1
	군 단위	38.5	46.2	15.4		84.7	15.4	7.7	53.8	38.5		61.5	38.5
	이동청소년		50.0	50.0		50.0	50.0		45.5	50.0	4.5	45.5	54.5
대상자	노인	2.0	28.0	68.0	2.0	30.0	70.0		30.0	70.0		30.0	70.0
	장애인	12.8	48.7	35.9	2.6	61.5	38.5	2.6	55.3	42.1		57.9	42.1
	지역주민	19.4	69.4	11.1	19.4	80.5		27.3	63.6	9.1	27.3	72.7	
시설	생활시설		29.4	70.6		29.4	70.6		29.4	64.7	5.9	29.4	70.6
형태	이용시설	4.6	35.4	55.4	4.6	40.0	60.0	.8	39.7	57.1	2.4	40.5	59.5
	전체	4.1	34.7	57.1	4.1	38.8	61.2	.7	38.5	58.0	2.8	39.2	60.8

〈표7-14〉 복지시설의 복지수요 해결정도-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지역	시 단위	1.6	35.7	57.4	5.4	37.3	62.8
	군 단위	7.7	30.8	53.8	7.7	38.5	61.5
대상자	아동청소년	4.5	36.4	50.0	9.1	40.9	59.1
	노인	2.0	32.0	62.0	4.0	34.0	66.0
시설	장애인	2.6	39.5	55.3	2.6	42.1	57.9
	지역주민		34.4	56.3	9.4	34.4	65.7
생활시설		5.9	17.6	64.7	11.8	23.5	76.5
이용시설		1.6	37.6	56.0	4.8	39.2	60.8
전체		2.1	35.2	57.0	5.6	37.3	62.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욕구 수렴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2.6%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를 책임지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향후 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주관적 전망을 조사하였다. 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량적 분석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시설의 필요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사결과에서는 다수 현장 전문가들이 향후 복지시설 이용자 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이 감소(61.7%)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시설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설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서 이 시설 역시 조사대상자의 60.7%가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7-15〉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9.8	51.9	31.6	6.8	61.7	38.4	7.6	51.5	34.8	6.1	59.1	40.9
	군 단위	7.7	53.8	38.5		61.5	38.5	7.7	69.2	23.1		76.9	23.1
대상자	아동청소년	4.2	54.2	33.3	8.3	58.4	41.6		45.5	54.5		45.5	54.5
	노인	7.7	42.3	44.2	5.8	50.0	50.0	5.7	49.1	37.7	7.5	54.8	45.2
시설	장애인	15.8	55.3	26.3	2.6	71.1	28.9	13.2	57.9	26.3	2.6	71.1	28.9
	지역주민	9.4	62.5	18.8	9.4	71.9	28.2	9.4	59.4	21.9	9.4	68.8	31.3
생활시설		10.5	42.1	31.6	15.8	52.6	47.4	5.9	29.4	58.8	5.9	35.3	64.7
이용시설		9.4	53.5	32.3	4.7	62.9	37.0	7.8	56.3	30.5	5.5	64.1	36.0
전체		9.6	52.1	32.2	6.2	61.7	38.4	7.6	53.1	33.8	5.5	60.7	39.3

〈표7-16〉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2

	아동상담시설						지역아동센터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7.6	40.9	41.7	9.8	48.5	51.5	9.1	50.8	33.3	6.8	59.9	40.1
	군 단위	7.7	38.5	38.5	15.4	46.2	53.9		46.2	46.2	7.7	46.2	53.9
대상자	아동청소년	4.5	36.4	45.5	13.6	40.9	59.1	9.1	40.9	45.5	4.5	50.0	50.0
	노인	5.7	39.6	45.3	9.4	45.3	54.7	5.7	58.5	30.2	5.7	64.2	35.9
시설	장애인	10.5	44.7	34.2	10.5	55.2	44.7	5.3	50.0	36.8	7.9	55.3	44.7
	지역주민	9.4	40.6	40.6	9.4	50.0	50.0	15.6	43.8	31.3	9.4	59.4	40.7
형태	생활시설	11.8	35.3	35.3	17.6	47.1	52.9	17.6	35.3	41.2	5.9	52.9	47.1
	이용시설	7.0	41.4	42.2	9.4	48.4	51.6	7.0	52.3	33.6	7.0	59.3	40.6
전체		7.6	40.7	41.4	10.3	48.3	51.7	8.3	50.3	34.5	6.9	58.6	41.4

다음으로 아동상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는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5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예측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소 큰 편차가 있었는데, 시 단위에서는 이용자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군부지역의 현장실무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많았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향후 감소한다가 64.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7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국가정책에서는 소규모화와 탈시설화의 확대를 통해 시설의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실무자의 향후 이용자 수에 대한 예측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가 되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7-17〉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3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6.8	58.3	28.8	6.1	65.1	34.9	1.6	29.7	62.5	6.3	31.3	68.8
	군 단위		53.8	38.5	7.7	53.8	46.2		16.7	66.7	16.7	16.7	83.4
대상자	아동청소년	4.5	63.6	22.7	9.1	68.1	31.8		19.0	66.7	14.3	19.0	81.0
	노인	5.7	47.2	43.4	3.8	52.9	47.2	2.0	31.4	64.7	2.0	33.4	66.7
시설	장애인	5.3	65.8	23.7	5.3	71.1	29.0		30.6	61.1	8.3	30.6	69.4
	지역주민	9.4	62.5	18.8	9.4	71.9	28.2	3.1	28.1	59.4	9.4	31.2	68.8
형태	생활시설	11.8	70.6	11.8	5.9	82.4	17.7		18.8	62.5	18.8	18.8	81.3
	이용시설	5.5	56.3	32.0	6.3	61.8	38.3	1.6	29.8	62.9	5.6	31.4	68.5
전체		6.2	57.9	29.7	6.2	64.1	35.9	1.4	28.6	62.9	7.1	30.0	70.0

〈표7-18〉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4

구분	장애인그룹홈						장애인복지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31.8	59.7	8.5	31.8	68.2	27.1	64.3	8.5	27.1	72.8	
	군 단위	16.7	66.7	16.7	16.7	83.4			91.7	8.3	0.0	100.0
대상자	이동청소년	36.4	50.0	13.6	36.4	63.6	22.7	63.6	13.6	22.7	77.2	
	노인	27.5	68.6	3.9	27.5	72.5	21.6	72.5	5.9	21.6	78.4	
시설	장애인	30.6	58.3	11.1	30.6	69.4	22.2	69.4	8.3	22.2	77.7	
	지역주민	31.3	56.3	12.5	31.3	68.8	34.4	56.3	9.4	34.4	65.7	
형태	생활시설	29.4	52.9	17.6	29.4	70.5	23.5	58.8	17.6	23.5	76.4	
	이용시설	30.6	61.3	8.1	30.6	69.4	25.0	67.7	7.3	25.0	75.0	
전체		30.5	60.3	9.2	30.5	69.5	24.8	66.7	8.5	24.8	75.2	

다음으로 장애인그룹홈의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의견이 69.5%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도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7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지역 사회 통합에 대한 강조 그리고 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재활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79.4%로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양로시설의 이용자 수의 경우 증가한다고 8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별로는 시 단위 보다는 군 단위가 92.3%로, 시설의 대상자가 장애인 시설인 경우 91.9%, 시설형태로는 생활시설인 경우가 87.6%로 높았다.

〈표7-19〉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22.5	66.7	10.9	22.5	77.6	.8	13.3	51.6	34.4	14.1	86.0
	군 단위		83.3	16.7	0.0	100.0		7.7	69.2	23.1	7.7	92.3
대상자	이동청소년	27.3	59.1	13.6	27.3	72.7	19.0	28.6	52.4	19.0	81.0	
	노인	21.6	68.6	9.8	21.6	78.4	11.3	60.4	28.3	11.3	88.7	
시설	장애인	13.9	72.2	13.9	13.9	86.1	2.7	5.4	62.2	29.7	8.1	91.9
	지역주민	21.9	68.8	9.4	21.9	78.2	20.0	46.7	33.3	20.0	80.0	
형태	생활시설	29.4	52.9	17.6	29.4	70.5	12.5	43.8	43.8	12.5	87.6	
	이용시설	19.4	70.2	10.5	19.4	80.7	.8	12.8	54.4	32.0	13.6	86.4
전체		20.6	68.1	11.3	20.6	79.4	.7	12.8	53.2	33.3	13.5	86.5

〈표7-20〉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6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8	10.1	54.3	34.9	10.9	89.2	.8	11.5	55.4	32.3	12.3	87.7
	군 단위		7.7	53.8	38.5	7.7	92.3			84.6	15.4	0.0	100.0
대상자	아동청소년	14.3	42.9	42.9	14.3	85.8		19.0	42.9	38.1	19.0	81.0	
	노인	9.4	56.6	34.0	9.4	90.6		13.0	53.7	33.3	13.0	87.0	
	장애인	2.7	5.4	54.1	37.8	8.1	91.9	2.7	5.4	64.9	27.0	8.1	91.9
	지역주민	12.9	58.1	29.0	12.9	87.1		6.5	67.7	25.8	6.5	93.5	
시설 형태	생활시설	12.5	56.3	31.3	12.5	87.6		12.5	56.3	31.3	12.5	87.6	
	이용시설	.8	9.5	54.0	35.7	10.3	89.7	.8	10.2	58.3	30.7	11.0	89.0
전체		.7	9.9	54.2	35.2	10.6	89.4	.7	10.5	58.0	30.8	11.2	88.8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가 89.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노인재가복지시설 또한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8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인종합복지관도 향후 이용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경로당 또한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87.2%로 다른 시설의 증가예상비율 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시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 노인의 여가문화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우가 85%를 상회하며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21〉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7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1.6	8.6	53.9	35.9	10.2	89.8	2.3	10.9	53.1	33.6	13.2	86.7
	군 단위			76.9	23.1	0.0	100.0			7.7	53.8	38.5	7.7
대상자	아동청소년	14.3	42.9	42.9	14.3	85.8		14.3	42.9	42.9	14.3	85.8	
	노인	1.9	7.7	59.6	30.8	9.6	90.4	3.8	11.5	59.6	25.0	15.3	84.6
	장애인	2.7	2.7	56.8	37.8	5.4	94.6	2.7	5.4	51.4	40.5	8.1	91.9
	지역주민	9.7	58.1	32.3	9.7	90.4		12.9	51.6	35.5	12.9	87.1	
시설 형태	생활시설	12.5	50.0	37.5	12.5	87.5		6.3	50.0	43.8	6.3	93.8	
	이용시설	1.6	7.2	56.8	34.4	8.8	91.2	2.4	11.2	53.6	32.8	13.6	86.4
전체		1.4	7.8	56.0	34.8	9.2	90.8	2.1	10.6	53.2	34.0	12.7	87.2

〈표7-22〉 복지시설의 향후 이용자 수 변화-8

구분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감소	증가
지역	시 단위	.8	13.1	78.5	7.7	13.9	86.2	1.6	20.2	71.8	6.5	21.8	78.3	12.0	71.2	16.8	12.0	88.0
	군 단위	30.8	69.2	30.8	69.2			15.4	76.9	7.7	15.4	84.6		7.7	69.2	23.1	7.7	92.3
대상자	아동청소년	4.5	9.1	68.2	18.2	13.6	86.4	4.5	18.2	59.1	18.2	22.7	77.3	9.1	54.5	36.4	9.1	90.9
	노인	15.4	82.7	1.9	15.4	84.6		24.0	76.0		24.0	76.0		13.7	74.5	11.8	13.7	86.3
	장애인	19.4	77.8	2.8	19.4	80.6		2.8	16.7	75.0	5.6	19.5	80.6	8.3	77.8	13.9	8.3	91.7
	지역주민	12.1	75.8	12.1	12.1	87.9		17.2	72.4	10.3	17.2	82.7		13.8	69.0	17.2	13.8	86.2
시설	생활시설	5.9	23.5	52.9	17.6	29.4	70.5	5.9	35.3	41.2	17.6	41.2	58.8	17.6	47.1	35.3	17.6	82.4
	이용시설	13.5	81.0	5.6	13.5	86.6		.8	17.5	76.7	5.0	18.3	81.7	10.7	74.4	14.9	10.7	89.3
전체		.7	14.7	77.6	7.0	15.4	84.6	1.5	19.7	72.3	6.6	21.2	78.9	11.6	71.0	17.4	11.6	88.4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 수는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80%를 상회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전라북도의 복지시설 중 향후 크게 감소할 것 같은 시설로는 전체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이 1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14.6%, 아동보호시설 14.1%, 아동청소년문화시설 10.8% 등 주로 아동복지시설의 감소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아동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 비해서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인구학적 영향 등에 따라 이용자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문화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도 다른 복지시설들보다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표7-23〉 향후 감소할 것 같은 시설

구분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시설	지역 문화 시설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시설	직업 재활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노인 복지 복지관	경로당 재활 복지관	지역 지역 복지 복지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여성 복지 센터	
	시 단위	군 단위	아동 장애인 시설	노인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지역	18.4	13.2	14.6	10.4	6.8	5.0	1.2	1.9	3.1	2.4	0.5	7.5	6.1	3.1	5.9	
	20.7	27.6	13.8	17.2	10.3	0.0	0.0	0.0	3.4	0.0	0.0	3.4	3.4	0.0	0.0	
대상자	20.8	15.3	11.1	12.5	11.1	6.9	1.4	2.8	0.0	0.0	0.0	6.9	6.9	1.4	2.8	
	16.0	13.6	16.0	11.1	5.6	4.9	0.6	1.2	4.9	2.5	0.6	5.6	6.2	3.7	7.4	
	20.7	16.2	13.5	10.8	7.2	0.9	1.8	3.6	0.9	3.6	0.9	7.2	3.6	2.7	6.3	
	18.5	12.0	15.7	9.3	6.5	6.5	0.9	0.0	4.6	1.9	0.0	10.2	7.4	2.8	3.7	
시설	21.1	17.5	15.8	8.8	12.3	1.8	1.8	3.5	0.0	0.0	0.0	5.3	7.0	1.8	3.5	
	18.2	13.6	14.4	11.1	6.3	5.1	1.0	1.5	3.5	2.5	0.5	7.6	5.8	3.0	5.8	
전체	18.5	14.1	14.6	10.8	7.1	4.6	1.1	1.8	3.1	2.2	0.4	7.3	6.0	2.9	5.5	

〈표7-24〉 향후 증가할 것 같은 시설

		아동 영육 시설	아동 보호 시설	지역 문화 시설	아동 청소년 문화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시설	장애인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복지관 복지관 복지관	지역 경로당 복지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복지 시설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2.8	3.1	1.4	3.5	2.1	3.3	5.4	4.9	19.5	12.4	15.5	8.9	3.1	10.3	3.8
	군 단위	5.9	0.0	0.0	2.9	2.9	11.8	2.9	11.8	23.5	8.8	2.9	5.9	8.8	0.0	11.8
대상자	아동청소년	1.3	1.3	2.7	2.7	1.3	9.3	4.0	4.0	21.3	10.7	14.7	6.7	4.0	10.7	5.3
	노인	4.9	2.5	0.0	2.5	0.6	1.8	6.7	5.5	19.6	15.3	13.5	11.0	1.8	11.7	2.5
	장애인	4.3	3.4	1.7	1.7	4.3	5.1	8.5	8.5	18.8	10.3	11.1	5.1	3.4	5.1	8.5
	지역주민	0.0	3.8	1.9	7.6	2.9	1.9	0.0	2.9	20.0	10.5	20.0	10.5	5.7	10.5	1.9
시설	생활시설	1.7	0.0	1.7	0.0	1.7	11.7	5.0	3.3	20.0	11.7	15.0	8.3	3.3	10.0	6.7
형태	이용시설	3.3	3.3	1.3	4.0	2.3	2.8	5.3	5.8	19.8	12.3	14.5	8.8	3.5	9.5	4.0
	전체	3.0	2.8	1.3	3.5	2.2	3.9	5.2	5.4	19.8	12.2	14.6	8.7	3.5	9.6	4.3

향후 증가할 것 같은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노인양로시설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복지관 14.6%, 노인재가복지시설 12.2% 등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의 이용자 수의 감소에 대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는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의 타 용도 시설로의 전환이 43.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복지시설의 지역사회화원이 30.1% 등의 순이었다. 복지시설 이용자 수의 증가에 대비한 제도적 조치로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복지시설에 인력확대 지원이 61.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증가한 복지시설에 대한 증축비 지원 15.8%, 이용자의 지역별 분산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25〉 복지시설 이용자 수 변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치

		이용자 수 감소 대비					이용자 수 증가 대비				
		복지시설 단계적 축소	복지시설 예산 점진적 삭감	복지시설 용도전환	복지시설 지역사회 환원	기타	증가한 복지시설 증축비 지원	증가한 복지시설 인력확대 지원	복지시설 타지역 확충	이용자 지역별 분산	기타
지역	시 단위	17.1	4.3	40.7	32.1	5.7	16.4	59.3	8.6	13.6	2.1
	군 단위	15.4	7.7	69.2	7.7		8.3	83.3	8.3		
대상자	아동청소년	8.7		56.5	26.1	8.7	16.0	72.0	4.0	8.0	
	노인	18.5	3.7	42.6	31.5	3.7	19.6	56.9	2.0	15.7	5.9
	장애인	12.5	5.0	42.5	32.5	7.5	20.0	55.0	15.0	10.0	
	지역주민	25.0	8.3	36.1	27.8	2.8	5.6	66.7	13.9	13.9	
시설	생활시설	16.7		27.8	44.4	11.1	25.0	70.0		5.0	
형태	이용시설	17.0	5.2	45.2	28.1	4.4	14.4	59.8	9.8	13.6	2.3
	전체	17.0	4.6	43.1	30.1	5.2	15.8	61.2	8.6	12.5	2.0

대체로 복지시설의 이용자 수 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조치로는 현장실무자의 다수는 복지 시설의 용도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복지시설의 지역사회환원도 중요한 제도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시설의 유형보로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복지시설의 지역사회환원이 가장 높은 제도적 조치로 나타난 반면,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환원보다는 복지시설의 용도전환이 더 중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대로 복지시설의 이용자 수 증가에 대응해서는 증가한 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확대 지원 그리고 물리적 공간의 확대를 위한 증개축비의 지원 그리고 이용자의 지역별 분산 등의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 향후 증가할 것 같은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재가복지시설 등 대체로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시설의 유형보다는 증가 할 것으로 보는 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다른 모든 시설도 대체로 50%이상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른 시설들보다도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재가복지시설 등이 다른 시설들 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대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아동 상담시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노인복지시설보다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아동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개선방향

전라북도 복지시설의 향후 개선방향에 있어서 아동양육시설은 시설통합(유사시설통합)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력확충이 27.1%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도 시설의 통합이 43.0%, 아동상담시설 또한 시설통합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7-26〉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시설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지역	시 단위	18.9	43.9	9.8	27.3	17.1	42.6	12.4	27.9	21.9	37.5	8.6	32.0
	군 단위	41.7	25.0	8.3	25.0	38.5	46.2	7.7	7.7	46.2	15.4	7.7	30.8
대상자	아동청소년	20.0	28.0	4.0	48.0	8.3	50.0	12.5	29.2	17.4	26.1	4.3	52.2
	노인	21.3	48.9	10.6	19.1	17.0	42.6	10.6	29.8	19.6	39.1	10.9	30.4
	장애인	33.3	38.5	5.1	23.1	30.0	40.0	5.0	25.0	32.5	30.0	2.5	35.0
	지역주민	6.1	48.5	18.2	27.3	16.1	41.9	22.6	19.4	25.0	43.8	15.6	15.6
시설	생활시설	5.3	26.3	5.3	63.2	5.6	33.3	22.2	38.9	23.5	29.4	5.9	41.2
형태	이용시설	23.2	44.8	10.4	21.6	21.0	44.4	10.5	24.2	24.2	36.3	8.9	30.6
전체		20.8	42.4	9.7	27.1	19.0	43.0	12.0	26.1	24.1	35.5	8.5	31.9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개선방향은 시설통합이 39.1%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도 시설통합이 각각 41.4%, 34.8%로 높게 나타 시설통합에 대한 개선방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7-27〉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2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지역	시 단위	13.5	41.3	11.9	33.3	23.6	41.7	10.2	24.4	21.1	36.6	10.6	31.7
	군 단위	25.0	16.7	8.3	50.0	30.8	38.5	7.7	23.1	66.7	11.1	22.2	
대상자	아동청소년	22.7	31.8	4.5	40.9	30.4	30.4	4.3	34.8	33.3	23.8	14.3	28.6
	노인	8.7	50.0	15.2	26.1	24.4	35.6	13.3	26.7	15.6	40.0	13.3	31.1
	장애인	23.1	33.3	7.7	35.9	25.0	47.5	7.5	20.0	45.5	36.4	9.1	9.1
	지역주민	6.5	35.5	16.1	41.9	18.8	50.0	12.5	18.8	9.1	33.3	9.1	48.5
시설	생활시설	18.8	25.0	6.3	50.0	23.5	35.3	11.8	29.4	13.3	46.7	13.3	26.7
형태	이용시설	13.9	41.0	12.3	32.8	24.4	42.3	9.8	23.6	25.6	33.3	11.1	29.9
전체		14.5	39.1	11.6	34.8	24.3	41.4	10.0	24.3	24.2	34.8	11.4	29.5

〈표7-28〉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3

구분	장애인그룹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지역	시 단위	25.8	37.9	8.9	27.4	29.8	33.1	5.6	31.5	31.1	28.7	6.6	33.6
	군 단위	72.7	18.2		9.1	55.6	22.2		22.2	50.0	25.0		25.0
대상자	아동청소년	33.3	19.0	9.5	38.1	23.8	28.6	4.8	42.9	30.0	20.0	5.0	45.0
	노인	22.2	40.0	8.9	28.9	36.4	29.5	4.5	29.5	29.5	31.8	9.1	29.5
시설	장애인	41.7	47.2		11.1	42.9	22.9	11.4	22.9	48.6	21.6	2.7	27.0
	지역주민	24.2	30.3	15.2	30.3	18.2	48.5		33.3	21.2	36.4	6.1	36.4
형태	생활시설	12.5	37.5	12.5	37.5	6.7	40.0	6.7	46.7	6.7	40.0	6.7	46.7
	이용시설	31.9	36.1	7.6	24.4	34.7	31.4	5.1	28.8	36.1	26.9	5.9	31.1
	전체	29.6	36.3	8.1	25.9	31.6	32.3	5.3	30.8	32.8	28.4	6.0	32.8

장애인그룹홈과 장애인복지관의 개선방향은 시설통합이 각각 36.3%,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확충과 인력의 확충이 각각 32.8%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의 통합보다는 인력확충 혹은 시설확충이 복지시설 개편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양로시설 또한 시설의 통합에 대한 개선방향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도 시설통합이 각각 37.5%, 40.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통합에 이어 인력확충이 36.8%로 시설통합 37.5%와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편방향으로 시설의 통합이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7-29〉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4

구분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지역	시 단위	16.3	43.1	4.9	35.8	18.5	34.7	7.3	39.5	19.2	40.0	4.8	36.0
	군 단위	41.7	58.3			25.0	66.7		8.3	33.3	50.0		16.7
대상자	아동청소년	13.6	36.4	9.1	40.9	22.7	22.7	9.1	45.5	22.7	36.4	4.5	36.4
	노인	13.3	42.2	2.2	42.2	8.5	38.3	4.3	48.9	6.4	40.4	6.4	46.8
시설	장애인	30.6	52.8		16.7	27.8	47.2		25.0	36.1	44.4	2.8	16.7
	지역주민	15.6	43.8	9.4	31.3	22.6	35.5	16.1	25.8	21.9	40.6	3.1	34.4
형태	생활시설	12.5	25.0	12.5	50.0	31.3	18.8	6.3	43.8	25.0	31.3	6.3	37.5
	이용시설	19.3	47.1	3.4	30.3	17.5	40.0	6.7	35.8	19.8	42.1	4.1	33.9
	전체	18.5	44.4	4.4	32.6	19.1	37.5	6.6	36.8	20.4	40.9	4.4	34.3

〈표7-30〉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5

구분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지역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시설 확충	시설 통합	이용자 축소	인력 확충	
지역	시 단위	25.6	31.2	3.2	40.0	27.4	46.0	9.7	16.9	25.4	37.3	7.1	30.2
	군 단위	72.7	18.2		9.1	30.0	50.0	10.0	10.0	54.5	27.3	9.1	9.1
	아동청소년	18.2	36.4	4.5	40.9	22.7	45.5	9.1	22.7	27.3	31.8		40.9
대상자	노인	23.4	19.1	4.3	53.2	19.1	46.8	10.6	23.4	26.7	44.4	4.4	24.4
	장애인	54.3	34.3		11.4	39.4	48.5	6.1	6.1	34.3	42.9	14.3	8.6
	지역주민	18.8	37.5	3.1	40.6	31.3	43.8	12.5	12.5	22.9	22.9	8.6	45.7
시설	생활시설	18.8	31.3	6.3	43.8	18.8	50.0	6.3	25.0	18.8	31.3	6.3	43.8
형태	이용시설	30.8	30.0	2.5	36.7	28.8	45.8	10.2	15.3	28.9	37.2	7.4	26.4
	전체	29.4	30.1	2.9	37.5	27.6	46.3	9.7	16.4	27.7	36.5	7.3	28.5

노인종합복지관의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인력의 확충이 37.5%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의 개선방향은 시설통합이 46.3%, 지역사회복지관 역시 시설통합이 36.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통합에 대한 개선방향이 각각 43.9%, 3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인력확충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인력확충과 시설효율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은 시설의 확충이나 인력의 확충보다도 시설의 통합이 더 중요한 시설 개선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타 지역자활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과 유사한 시설들간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표7-31〉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향 - 6

구분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확충	시설통합	이용자축소	인력확충	시설확충	시설통합	이용자축소	인력확충	
지역	시 단위	20.5	43.4	9.0	27.0	25.8	39.5	6.5	28.2
	군 단위	10.0	50.0	10.0	30.0	33.3	22.2		44.4
	아동청소년	31.8	27.3		40.9	27.3	31.8	4.5	36.4
대상자	노인	15.6	44.4	13.3	26.7	26.1	41.3	6.5	26.1
	장애인	20.6	52.9	8.8	17.6	33.3	27.3	6.1	33.3
	지역주민	16.1	45.2	9.7	29.0	18.8	50.0	6.3	25.0
시설	생활시설	18.8	31.3	12.5	37.5	18.8	43.8	6.3	31.3
형태	이용시설	19.8	45.7	8.6	25.9	27.4	37.6	6.0	29.1
	전체	19.7	43.9	9.1	27.3	26.3	38.3	6.0	29.3

〈표7-32〉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1

구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시설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지역	시 단위	5.3	56.5	35.1	3.1	7.8	57.0	32.0	3.1	4.8	51.6	38.1	5.6	
	군 단위		61.5	30.8	7.7	9.1	54.5	36.4			76.9	23.1		
	아동청소년	4.5	54.5	36.4	4.5		50.0	40.9	9.1		42.9	38.1	19.0	
대상자	노인	2.0	56.9	35.3	5.9	4.2	66.7	27.1	2.1		58.3	39.6	2.1	
	장애인	12.8	43.6	41.0	2.6	16.2	40.5	40.5	2.7	10.5	50.0	39.5		
	지역주민		75.0	25.0			9.4	65.6	25.0		6.3	59.4	28.1	6.3
시설	생활시설		77.8	22.2			61.1	27.8	11.1		55.6	22.2	22.2	
형태	이용시설	5.6	54.0	36.5	4.0	9.1	56.2	33.1	1.7	5.0	53.7	38.8	2.5	
전체		4.9	56.9	34.7	3.5	7.9	56.8	32.4	2.9	4.3	54.0	36.7	5.0	

복지시설별로 필요한 복지시설의 수에 있어서는 아동양육시설은 시군별로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56.9%로 가장 많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시설의 필요시설 수 또한 시군별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각각 56.8%, 54.0%로 가장 많았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읍면동별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51.4%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은 시군별로 최소 1개소가 필요한 경우가 각각 63.7%, 56.5%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지역아동센터는 마을단위에서 방과후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유형과는 달리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 정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7-33〉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2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지역	시 단위	3.9	29.9	50.4	15.7	10.5	62.1	25.0	2.4	3.2	56.8	36.0	4.0
	군 단위	7.7	7.7	61.5	23.1	9.1	81.8	9.1			53.8	30.8	15.4
	아동청소년		35.0	45.0	20.0	15.8	78.9	5.3		5.0	35.0	55.0	5.0
대상자	노인	2.0	26.5	57.1	14.3	6.4	68.1	23.4	2.1	2.1	61.7	31.9	4.3
	장애인	12.8	23.1	56.4	7.7	18.9	56.8	21.6	2.7	5.1	53.8	33.3	7.7
	지역주민		31.3	40.6	28.1	3.1	56.3	37.5	3.1		65.6	31.3	3.1
시설	생활시설		52.9	23.5	23.5	12.5	81.3	6.3			47.1	47.1	5.9
형태	이용시설	4.9	24.4	55.3	15.4	10.1	61.3	26.1	2.5	3.3	57.9	33.9	5.0
전체		4.3	27.9	51.4	16.4	10.4	63.7	23.7	2.2	2.9	56.5	35.5	5.1

〈표7-34〉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3

	장애인그룹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라북도	시군별	읍면동별	마을단위	전라북도	시군별	읍면동별	마을단위	전라북도	시군별	읍면동별	마을단위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지역	시 단위	2.4	52.4	38.1	7.1	3.2	65.9	29.4	1.6	2.4	66.9	29.8
	군 단위		30.8	61.5	7.7		66.7	33.3			75.0	25.0
	아동청소년	9.1	36.4	50.0	4.5		60.0	40.0			55.0	45.0
대상자	노인		45.7	47.8	6.5	2.1	64.6	33.3			61.7	38.3
	장애인	2.6	48.7	38.5	10.3	7.9	68.4	21.1	2.6	2.7	78.4	16.2
	지역주민		68.8	25.0	6.3		68.8	28.1	3.1	6.3	71.9	21.9
시설	생활시설		44.4	50.0	5.6		64.7	35.3			58.8	41.2
형태	이용시설	2.5	51.2	38.8	7.4	3.3	66.1	28.9	1.7	2.5	68.9	27.7
전체		2.2	50.4	40.3	7.2	2.9	65.9	29.7	1.4	2.2	67.6	29.4
												.7

장애인그룹홈의 필요시설 수는 시군별 최소 1개소가 50.4%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은 6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7.6%로 시군별로 최소 1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시군별로 1개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장애인그룹홈의 경우만 읍면별 1개소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노인양로시설의 필요시설 수는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가 47.1%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또한 읍면동별 최소 1개소가 필요한 경우가 각각 50.7%, 56.8%로 높게 나타났다.

〈표7-35〉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4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전라북도	시군별	읍면동별	마을단위	전라북도	시군별	읍면동별	마을단위	전라북도	시군별	읍면동별	마을단위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지역	시 단위	4.7	40.6	45.3	9.4	.8	42.2	50.0	7.0	2.4	29.9	56.7
	군 단위		33.3	66.7			40.0	60.0			16.7	58.3
	아동청소년	9.5	47.6	38.1	4.8		61.9	33.3	4.8	4.8	42.9	42.9
대상자	노인	4.0	30.0	54.0	12.0		26.5	65.3	8.2	2.1	22.9	62.5
	장애인	2.7	40.5	51.4	5.4	2.8	44.4	47.2	5.6	2.6	34.2	50.0
	지역주민	3.1	50.0	37.5	9.4		50.0	43.8	6.3		21.9	65.6
시설	생활시설		64.7	29.4	5.9		64.7	29.4	5.9		52.9	35.3
형태	이용시설	4.9	36.6	49.6	8.9	.8	38.8	53.7	6.6	2.5	25.4	59.8
전체		4.3	40.0	47.1	8.6	.7	42.0	50.7	6.5	2.2	28.8	56.8
												12.2

〈표7-36〉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5

구분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지역사회복지관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지역	시 단위	3.1	52.7	39.7	4.6	1.6	18.9	33.9	45.7	3.8	51.9	43.5
	군 단위		61.5	38.5			50.0	50.0		76.9	23.1	
	아동청소년		61.9	38.1			28.6	42.9	28.6		42.9	52.4
대상자	노인	3.8	50.0	42.3	3.8	2.0	14.3	28.6	55.1	4.1	61.2	34.7
	장애인	5.1	53.8	35.9	5.1	2.7	13.5	48.6	35.1	5.1	69.2	25.6
	지역주민		53.1	40.6	6.3		18.8	25.0	56.3	2.9	34.3	62.9
시설	생활시설		70.6	29.4			47.1	29.4	23.5	5.9	41.2	47.1
형태	이용시설	3.1	51.2	40.9	4.7	1.6	13.1	36.1	49.2	3.1	55.9	40.9
전체		2.8	53.5	39.6	4.2	1.4	17.3	35.3	46.0	3.5	54.2	41.7
												.7

노인종합복지관은 시군별로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53.5%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은 마을단위별로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46.0%로 많았다.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관은 현재에도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경로당은 읍면이 아닌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시설설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시군별로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54.2%로 가장 많았고,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시군별 최소 1개소가 필요하다가 각각 61.6%, 6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은 읍면단위보다는 시군단위에 최소 1개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7-37〉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수 - 6

구분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전라북도 최소 1개소	시군별 최소 1개소	읍면동별 최소 1개소	마을단위 최소 1개소
지역	시 단위	4.0	60.3	34.9	.8	3.9	59.8	35.4
	군 단위		75.0	25.0		8.3	75.0	16.7
	아동청소년		61.9	33.3	4.8		42.9	52.4
대상자	노인	8.3	60.4	31.3		2.0	63.3	34.7
	장애인	2.6	65.8	31.6		10.5	68.4	21.1
	지역주민		58.1	41.9		3.2	61.3	35.5
시설	생활시설	5.9	64.7	23.5	5.9	5.9	41.2	47.1
형태	이용시설	3.3	61.2	35.5		4.1	63.9	32.0
전체		3.6	61.6	34.1	.7	4.3	61.2	33.8
								.7

〈표7-38〉 복지수요 고려 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시설

구분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시설	지역 아동 문화 시설	아동 청소년 문화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시설	장애인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 기관	경로당	지역 복지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5.0	5.5	3.4	11.6	4.3	5.5	7.1	3.6	5.7	4.3	10.0	11.9	3.6	9.1	9.6
	군 단위	10.0	5.0	5.0	5.0	7.5	15.0	17.5	12.5	2.5	2.5	2.5	0.0	7.5	0.0	7.5
대상자	아동청소년	6.1	10.1	2.0	14.1	5.1	7.1	6.1	2.0	5.1	5.1	4.0	6.1	6.1	13.1	8.1
	노인	5.7	3.3	1.9	9.0	5.7	7.1	7.1	4.2	6.1	2.8	12.3	12.3	2.4	7.5	12.7
	장애인	6.0	5.4	4.0	8.7	4.0	5.4	12.1	6.7	5.4	6.0	8.7	8.7	4.0	8.1	6.7
	지역주민	3.5	5.6	6.3	14.8	2.8	4.9	5.6	2.8	4.9	3.5	9.9	15.5	4.2	7.0	8.5
시설	생활시설	3.8	7.6	2.5	8.9	5.1	10.1	2.5	1.3	8.9	6.3	8.9	6.3	6.3	11.4	10.1
형태	이용시설	5.5	5.2	3.6	11.5	4.4	5.5	8.6	4.6	5.0	3.8	9.6	11.9	3.4	8.0	9.4
전체		5.3	5.5	3.5	11.1	4.5	6.1	7.8	4.2	5.5	4.2	9.5	11.1	3.8	8.5	9.5

한편, 전라북도의 복지수요를 고려했을 경우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문화시설과 경로당 및 지역사회복지관이 각각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노인복지관(9.5%), 여성복지시설(9.5%)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시설의 유형보다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선(기능조정 및 통합, 확충 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 및 인력지원의 확대가 6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행정기관과 복지시설간의 협업강화 14.0%, 시설의 자율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 13.3% 등의 순이었다.

〈표7-39〉 사회복지시설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

구분	예산/인력지원 확대	시설전환 기능보강비 확충	행정기관 복지시설 협업강화	법인/시설장 인식변화	시설의 자율적통합위한 제도적 보완	기타	
지역	시 단위	58.8	9.9	14.5	1.5	14.5	.8
	군 단위	83.3	8.3	8.3			
대상자	아동청소년	86.4	4.5	4.5		4.5	
	노인	55.1	10.2	12.2	2.0	18.4	2.0
	장애인	61.5	12.8	15.4		10.3	
	지역주민	51.5	9.1	21.2	3.0	15.2	
시설	생활시설	73.7	5.3	15.8		5.3	
형태	이용시설	58.9	10.5	13.7	1.6	14.5	.8
전체		60.8	9.8	14.0	1.4	13.3	.7

5. 복지시설의 통합 및 연계성

아동양육(보호)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시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아동상담시설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27.5%, 지역사회복지관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40〉 아동양육(보호)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구분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복지관	장애인 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사회 센터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30.2	27.0	1.8	2.9	1.8	1.8	2.2	0.4	1.1	4.0	12.9	0.7	4.3	9.0
	군 단위	37.5	33.3	0.0	12.5	4.2	0.0	0.0	0.0	0.0	0.0	4.2	0.0	8.3	0.0
	아동청소년	34.0	26.0	0.0	8.0	4.0	2.0	2.0	0.0	4.0	2.0	6.0	2.0	4.0	6.0
대상자	노인	29.6	28.7	0.9	1.7	1.7	1.7	1.7	0.9	0.0	4.3	13.9	0.9	5.2	8.7
	장애인	29.8	26.2	1.2	4.8	2.4	0.0	2.4	0.0	0.0	2.4	15.5	0.0	6.0	9.5
	지역주민	32.1	28.3	5.7	1.9	0.0	3.8	1.9	0.0	1.9	5.7	9.4	0.0	1.9	7.5
	시설 형태	생활시설	35.1	27.0	0.0	10.8	2.7	2.7	2.7	0.0	0.0	5.4	2.7	8.1	2.7
	이용시설	30.2	27.5	1.9	2.6	1.9	1.5	1.9	0.4	1.1	4.2	13.2	0.4	4.2	9.1
	전체	30.8	27.5	1.7	3.6	2.0	1.7	2.0	0.3	1.0	3.6	12.3	0.7	4.6	8.3

아동상담시설과는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및 연계가능성이 3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어서 아동양육시설 29.1%, 지역사회복지관 13.5% 등 아동관련 아동시설에서 상호 연계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되었다.

〈표7-41〉 아동상담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상담 센터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사회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30.0	0.4	31.1	0.8	1.6	0.8	1.2	1.6	0.8	2.3	14.0	4.7	10.9
	군 단위	20.0	0.0	32.0	16.0	16.0	8.0	0.0	0.0	0.0	0.0	8.0	0.0	0.0
	아동청소년	29.2	0.0	35.4	2.1	8.3	2.1	2.1	0.0	0.0	0.0	10.4	4.2	6.3
대상자	노인	30.4	0.0	30.4	0.0	0.0	0.0	1.0	2.9	1.0	2.9	12.7	6.9	11.8
	장애인	26.8	0.0	30.5	4.9	4.9	2.4	1.2	0.0	1.2	1.2	14.6	0.0	12.2
	지역주민	30.0	2.0	30.0	2.0	0.0	2.0	0.0	2.0	0.0	4.0	16.0	6.0	6.0
	시설 형태	생활시설	29.3	0.0	34.1	2.4	7.3	2.4	2.4	0.0	0.0	7.3	2.4	12.2
	이용시설	29.0	0.4	30.7	2.1	2.1	1.2	0.8	1.7	0.8	2.5	14.5	4.6	9.5
	전체	29.1	0.4	31.2	2.1	2.8	1.4	1.1	1.4	0.7	2.1	13.5	4.3	9.9

〈표7-42〉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및 연계기능 시설

구분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24.6	31.5	1.2	0.8	0.8	0.4	0.4	4.8	1.2	20.2	1.6	5.2	7.3
	군 단위	29.2	25.0	12.5	8.3	0.0	0.0	0.0	0.0	0.0	20.8	0.0	4.2	0.0
	아동청소년	25.0	29.5	2.3	2.3	2.3	0.0	0.0	6.8	2.3	18.2	2.3	6.8	2.3
대상자	노인	27.0	34.0	0.0	0.0	0.0	1.0	1.0	6.0	1.0	17.0	1.0	3.0	9.0
	장애인	26.6	27.8	3.8	2.5	1.3	0.0	0.0	2.5	0.0	24.1	0.0	6.3	5.1
	지역주민	18.4	30.6	4.1	2.0	0.0	0.0	0.0	2.0	2.0	22.4	4.1	6.1	8.2
시설	생활시설	28.6	25.7	0.0	2.9	2.9	0.0	0.0	0.0	0.0	22.9	2.9	5.7	8.6
형태	이용시설	24.5	31.6	2.5	1.3	0.4	0.4	0.4	5.1	1.3	19.8	1.3	5.1	6.3
	전체	25.0	30.9	2.2	1.5	0.7	0.4	0.4	4.4	1.1	20.2	1.5	5.1	6.6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시설로는 아동상담시설이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동양육시설 25.0%, 지역사회복지관 20.2% 등의 순으로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돌봄시설이라는 점에서 상담과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그룹홈과의 통합 및 연계기능이 3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2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0%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향후 시설개편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시설의 범주에 한정하지 않고, 이용시설 그리고 직업재활 등의 일자리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7-43〉 장애인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기능 시설

구분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3.3	1.2	0.4	33.6	27.4	21.6	3.3	1.2	0.4	2.5	3.7	1.2
	군 단위	13.0	0.0	0.0	34.8	26.1	26.1	0.0	0.0	0.0	0.0	0.0	0.0
	아동청소년	2.1	2.1	2.1	29.8	34.0	17.0	4.3	0.0	0.0	2.1	4.3	2.1
대상자	노인	5.6	2.2	0.0	33.7	24.7	20.2	4.5	2.2	0.0	1.1	3.4	2.2
	장애인	5.1	0.0	0.0	30.8	28.2	25.6	2.6	1.3	1.3	2.6	2.6	0.0
	지역주민	2.0	0.0	0.0	42.0	24.0	24.0	0.0	0.0	0.0	4.0	4.0	0.0
시설	생활시설	5.3	2.6	2.6	31.6	34.2	18.4	0.0	0.0	0.0	2.6	2.6	0.0
형태	이용시설	4.0	0.9	0.0	34.1	26.1	22.6	3.5	1.3	0.4	2.2	3.5	1.3
	전체	4.2	1.1	0.4	33.7	27.3	22.0	3.0	1.1	0.4	2.3	3.4	1.1

〈표7-44〉 장애인그룹홈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구분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복지관			노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지역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장애인 장애인 그룹홈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직업 재활 시설									
지역	시 단위	3.9	1.7	1.7	27.8	0.4	23.5	21.7	3.0	1.3	0.9	1.3	5.7	2.6	1.7	2.6
	군 단위	11.5	0.0	0.0	34.6	0.0	26.9	26.9	0.0	0.0	0.0	0.0	0.0	0.0	0.0	0.0
	아동청소년	2.3	0.0	2.3	27.9	0.0	27.9	18.6	4.7	2.3	0.0	0.0	9.3	2.3	2.3	0.0
대상자	노인	4.8	4.8	3.6	28.6	1.2	19.0	20.2	2.4	0.0	1.2	2.4	2.4	3.6	1.2	4.8
	장애인	7.6	0.0	0.0	24.1	0.0	26.6	24.1	2.5	1.3	0.0	1.3	6.3	2.5	2.5	1.3
	지역주민	2.0	0.0	0.0	36.0	0.0	24.0	26.0	2.0	2.0	2.0	0.0	4.0	0.0	0.0	2.0
시설	생활시설	6.1	3.0	3.0	24.2	0.0	21.2	21.2	3.0	0.0	0.0	0.0	9.1	6.1	0.0	3.0
	이용시설	4.5	1.3	1.3	29.1	0.4	24.2	22.4	2.7	1.3	0.9	1.3	4.5	1.8	1.8	2.2
	전체	4.7	1.6	1.6	28.5	0.4	23.8	22.3	2.7	1.2	0.8	1.2	5.1	2.3	1.6	2.3

장애인그룹홈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이 2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2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3% 등의 순으로 연계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의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시설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7.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장애인그룹홈 23.3%, 장애인거주시설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시 단위의 경우 3번째로 연계성이 높은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20.1%로 높게 나타났으나 군 단위는 지역자활센터가 19.0%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연계 가능시설에 차이가 있었다.

〈표7-45〉 장애인복지관과 통합 및 연계가능 시설

구분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지역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장애인 장애인 그룹홈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직업 재활 시설									
지역	시 단위	0.9	2.7	2.2	20.1	22.8	27.2	1.8	2.2	2.7	0.9	9.4	3.6	2.2	1.3	
	군 단위	0.0	0.0	4.8	4.8	28.6	33.3	0.0	0.0	4.8	0.0	4.8	19.0	0.0	0.0	
	아동청소년	0.0	4.8	2.4	23.8	23.8	19.0	4.8	4.8	0.0	0.0	9.5	4.8	0.0	2.4	
대상자	노인	2.6	2.6	2.6	21.8	19.2	24.4	1.3	1.3	3.8	1.3	10.3	3.8	2.6	2.6	
	장애인	0.0	1.4	2.7	13.5	28.4	32.4	1.4	1.4	1.4	1.4	4.1	9.5	2.7	0.0	
	지역주민	0.0	2.0	2.0	17.6	21.6	33.3	0.0	2.0	5.9	0.0	13.7	0.0	2.0	0.0	
시설	생활시설	3.0	9.1	3.0	21.2	27.3	18.2	0.0	6.1	0.0	0.0	6.1	6.1	0.0	0.0	
	이용시설	0.5	1.4	2.4	18.4	22.6	29.2	1.9	1.4	3.3	0.9	9.4	4.7	2.4	1.4	
	전체	0.8	2.4	2.4	18.8	23.3	27.8	1.6	2.0	2.9	0.8	9.0	4.9	2.0	1.2	

〈표7-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통합 및 연계기능 시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상담 센터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노인 양로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지역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지역	시 단위	1.3	0.4	0.8	21.3	25.1	28	0.8	1.3	2.9	1.3	6.7	8.4	0.8	0.8
	군 단위	0.0	0.0	0.0	9.5	23.8	42.9	0.0	0.0	0.0	0.0	0.0	23.8	0.0	0.0
대상자	아동청소년	2.4	0.0	0.0	23.8	21.4	28.6	2.4	0.0	4.8	0.0	4.8	7.1	2.4	2.4
	노인	1.1	1.1	1.1	19.8	26.4	28.6	0.0	1.1	2.2	2.2	4.4	11.0	0.0	1.1
	장애인	0.0	0.0	1.4	20.0	24.3	30.0	1.4	1.4	2.9	0.0	4.3	14.3	0.0	0.0
	지역주민	1.8	0.0	0.0	19.3	26.3	29.8	0.0	1.8	1.8	1.8	12.3	3.5	1.8	0.0
시설 형태	생활시설	3.1	0.0	0.0	18.8	28.1	28.1	0.0	0.0	3.1	0.0	3.1	12.5	3.1	0.0
	이용시설	0.9	0.4	0.9	20.6	24.6	29.4	0.9	1.3	2.6	1.3	6.6	9.2	0.4	0.9
전체		1.2	0.4	0.8	20.4	25.0	29.2	0.8	1.2	2.7	1.2	6.2	9.6	0.8	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시설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2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그룹홈 25.0%, 장애인 거주시설 20.4% 등의 순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돌봄(보호)서비스가 2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리상담 20.7%, 보건의료서비스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돌봄서비스가 31.5%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고 이어서 심리상담 24.6%, 사례관리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47〉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자원 (취업)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자원 (취업)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27.5	10.8	19.6	12.7	3.4	5.4	2.0	18.6	30.6	9.1	11.8	15.6	3.2	4.8	1.1	23.7
	군 단위	22.2	5.6	27.8	0.0	0.0	0.0	0.0	44.4	41.2	5.9	0.0	17.6	0.0	0.0	0.0	35.3
대상자	아동청소년	16.7	18.8	16.7	8.3	8.3	6.3	6.3	18.8	28.2	7.7	7.7	10.3	5.1	5.1	2.6	33.3
	노인	25.9	10.6	25.9	12.9	0.0	4.7	0.0	20.0	25.6	10.3	14.1	20.5	3.8	3.8	1.3	20.5
	장애인	34.0	8.5	19.1	6.4	0.0	6.4	2.1	23.4	45.7	10.9	6.5	13.0	0.0	2.2	0.0	21.7
	지역주민	33.3	2.4	14.3	19.0	7.1	2.4	0.0	21.4	30.0	5.0	12.5	15.0	2.5	7.5	0.0	27.5
시설 형태	생활시설	22.0	12.2	9.8	9.8	9.8	9.8	7.3	19.5	18.8	15.6	9.4	9.4	6.3	6.3	6.3	28.1
	이용시설	28.2	9.9	22.7	12.2	1.7	3.9	0.6	21.0	33.9	7.6	11.1	17.0	2.3	4.1	0.0	24.0
전체		27.0	10.4	20.3	11.7	3.2	5.0	1.8	20.7	31.5	8.9	10.8	15.8	3.0	4.4	1.0	24.6

〈표7-48〉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2

		아동상담시설									지역아동센터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자원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자원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12.6	4.7	9.4	29.8	3.1	9.4	3.7	27.2	21.0	23.1	9.1	18.3	4.8	9.1	2.2	12.4		
	군 단위	5.9	0.0	0.0	35.3	0.0	5.9	5.9	47.1	22.7	27.3	0.0	18.2	0.0	0.0	0.0	31.8		
	아동청소년	13.5	5.4	5.4	18.9	10.8	10.8	5.4	29.7	21.1	15.8	7.9	10.5	15.8	13.2	5.3	10.5		
대상자	노인	11.0	4.9	11.0	28.0	0.0	11.0	3.7	30.5	20.8	26.0	11.7	11.7	2.6	9.1	1.3	16.9		
	장애인	10.4	4.2	12.5	35.4	0.0	4.2	4.2	29.2	20.0	32.0	6.0	18.0	0.0	4.0	2.0	18.0		
	지역주민	14.6	2.4	2.4	39.0	4.9	9.8	2.4	24.4	23.3	16.3	4.7	37.2	2.3	7.0	0.0	9.3		
시설	생활시설	6.7	6.7	6.7	20.0	6.7	6.7	6.7	40.0	19.4	19.4	9.7	9.7	12.9	9.7	3.2	16.1		
	이용시설	12.9	3.9	9.0	32.0	2.2	9.6	3.4	27.0	21.5	24.3	7.9	19.8	2.8	7.9	1.7	14.1		
	전체	12.0	4.3	8.7	30.3	2.9	9.1	3.8	28.8	21.2	23.6	8.2	18.3	4.3	8.2	1.9	14.4		

아동상담시설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사례관리서비스가 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리상담서비스가 28.8%로 많았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여가문화서비스가 2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돌봄서비스 21.2%, 사례관리 18.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에 대한 수요와 함께 사례관리나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필요서비스는 여가문화서비스가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리상담이 19.5%로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돌봄서비스 23.3%, 보건의료서비스 16.4%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7-49〉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3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자원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자원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8.3	39.9	7.1	8.9	10.1	4.8	1.2	19.6	25.0	12.3	15.2	10.3	11.8	2.9	14.2	8.3		
	군 단위	3.7	33.3	0.0	18.5	18.5	3.7	3.7	18.5	10.7	14.3	25.0	21.4	7.1	0.0	7.1	14.3		
	아동청소년	8.3	38.9	2.8	8.3	11.1	5.6	5.6	19.4	27.8	13.9	22.2	2.8	5.6	0.0	13.9	13.9		
대상자	노인	6.9	36.1	9.7	9.7	9.7	6.9	0	20.8	18.2	12.1	17.2	10.1	10.1	5.1	17.2	10.1		
	장애인	9.3	38.9	7.4	9.3	14.8	1.9	1.9	16.7	21.4	14.3	16.1	17.9	14.3	0.0	7.1	8.9		
	지역주민	6.1	45.5	0	15.2	9.1	3	0	21.2	34.1	9.8	9.8	14.6	14.6	2.4	12.2	2.4		
시설	생활시설	13.8	31.0	6.9	10.3	10.3	6.9	6.9	13.8	36.0	4.0	20.0	4.0	8.0	0.0	12.0	16.0		
	이용시설	6.6	40.4	6.0	10.2	11.4	4.2	0.6	20.5	21.7	13.5	15.9	12.6	11.6	2.9	13.5	8.2		
	전체	7.7	39.0	6.2	10.3	11.3	4.6	1.5	19.5	23.3	12.5	16.4	11.6	11.2	2.6	13.4	9.1		

〈표7-50〉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4

		장애인그룹홈									장애인복지관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18.4	12.1	12.6	12.6	17.9	5.8	11.1	9.5	8.2	17.3	10.5	12.7	18.6	7.7	13.6	11.4		
	군 단위	23.1	11.5	19.2	19.2	11.5	0.0	0.0	15.4	0.0	12.1	6.1	15.2	24.2	6.1	15.2	21.2		
	아동청소년	15.2	12.1	15.2	9.1	18.2	0.0	15.2	15.2	5.0	7.5	20.0	12.5	12.5	10.0	17.5	15.0		
대상자	노인	18.8	11.8	10.6	14.1	15.3	5.9	12.9	10.6	7.8	23.3	11.7	9.7	20.4	4.9	12.6	9.7		
	장애인	15.1	17.0	18.9	17.0	17.0	3.8	1.9	9.4	3.3	14.8	4.9	19.7	23.0	3.3	14.8	16.4		
	지역주민	26.7	6.7	11.1	11.1	20.0	8.9	8.9	6.7	12.2	12.2	4.1	12.2	18.4	16.3	12.2	12.2		
시설	생활시설	18.2	9.1	13.6	13.6	13.6	0.0	18.2	13.6	8.3	12.5	16.7	4.2	16.7	8.3	12.5	20.8		
	이용시설	19.1	12.4	13.4	13.4	17.5	5.7	8.8	9.8	7.0	17.0	9.2	14.0	19.7	7.4	14.0	11.8		
	전체	19.0	12.0	13.4	13.4	17.1	5.1	9.7	10.2	7.1	16.6	9.9	13.0	19.4	7.5	13.8	12.6		

장애인그룹홈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돌봄(보호)서비스가 19.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원(취업)연계서비스가 17.1%로 많았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자원(취업)연계에 대한 서비스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여가문화서비스 16.6%, 재활치료서비스 13.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어서는 자원(취업)연계서비스가 40.2%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양로시설은 보건의료서비스가 24.5%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7-51〉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3.3	6.1	6.1	11.1	38.9	6.1	17.8	10.6	20.7	23.4	25.5	7.4	1.6	3.7	10.1	7.4		
	군 단위	0	5.3	0	15.8	52.6	5.3	0	21.1	37.5	12.5	12.5	0.0	0.0	6.3	25.0	6.3		
	아동청소년	0.0	5.6	11.1	13.9	30.6	5.6	19.4	13.9	19.4	25.0	22.2	8.3	2.8	5.6	8.3	8.3		
대상자	노인	2.5	7.5	7.5	8.8	33.8	6.3	21.3	12.5	16.3	23.8	27.5	10.0	1.3	1.3	11.3	8.8		
	장애인	2.2	6.7	0.0	20.0	51.1	4.4	4.4	11.1	34.1	22.7	15.9	2.3	0.0	2.3	15.9	6.8		
	지역주민	7.9	2.6	2.6	5.3	50.0	7.9	15.8	7.9	22.7	18.2	29.5	4.5	2.3	9.1	9.1	4.5		
시설	생활시설	4.2	12.5	16.7	8.3	25.0	0.0	12.5	20.8	26.1	21.7	17.4	0.0	4.3	8.7	13.0	8.7		
	이용시설	2.9	5.1	4.0	12.0	42.3	6.9	16.6	10.3	21.5	22.7	25.4	7.7	1.1	3.3	11.0	7.2		
	전체	3.0	6.0	5.5	11.6	40.2	6.0	16.1	11.6	22.1	22.5	24.5	6.9	1.5	3.9	11.3	7.4		

〈표7-52〉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6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18.3	20.4	27.7	7.9	1.6	2.1	12.6	9.4	16.2	14.7	20.4	13.1	6.3	15.2	6.8	7.3		
	군 단위	17.6	17.6	35.3	0.0	0.0	5.9	17.6	5.9	20.0	15.0	0.0	30.0	0.0	25.0	10.0	0.0		
	아동청소년	20.6	29.4	14.7	2.9	2.9	2.9	14.7	11.8	18.2	18.2	15.2	12.1	6.1	9.1	12.1	9.1		
대상자	노인	14.9	16.1	34.5	11.5	1.1	2.3	10.3	9.2	16.5	7.1	24.7	17.6	4.7	15.3	4.7	9.4		
	장애인	18.2	27.3	27.3	2.3	0.0	4.5	11.4	9.1	12.5	27.1	6.3	20.8	6.3	18.8	8.3	0.0		
	지역주민	23.3	14.0	27.9	7.0	2.3	0.0	18.6	7.0	20.0	13.3	22.2	4.4	6.7	20.0	6.7	6.7		
시설 형태	생활시설	13.0	26.1	30.4	0.0	4.3	4.3	13.0	8.7	0.0	22.7	27.3	4.5	4.5	13.6	13.6	13.6		
	이용시설	18.9	19.5	28.1	8.1	1.1	2.2	13.0	9.2	18.5	13.8	17.5	15.9	5.8	16.4	6.3	5.8		
	전체	18.3	20.2	28.4	7.2	1.4	2.4	13.0	9.1	16.6	14.7	18.5	14.7	5.7	16.1	7.1	6.6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28.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여가문화서비스 20.2%, 돌봄서비스 18.3% 등의 순이었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보건의료서비스가 1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돌봄서비스 16.6%, 방문상담서비스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여가문화서비스(27.4%), 사례관리서비스(15.8%)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당은 여가문화서비스 (48.4%), 보건의료서비스 (13.2%) 등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7-53〉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7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사례 (취업)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9.3	25.7	14.0	15.9	12.1	7.0	5.1	10.7	7.3	48.5	13.9	7.9	3.6	9.1	4.2	5.5		
	군 단위	0.0	45.0	5.0	15.0	5.0	10.0	10.0	10.0	5.9	47.1	5.9	11.8	0.0	17.6	11.8	0.0		
	아동청소년	10.5	23.7	10.5	15.8	7.9	7.9	7.9	15.8	12.5	37.5	12.5	9.4	3.1	3.1	6.3	15.6		
대상자	노인	7.9	23.8	18.8	14.9	13.9	5.0	5.0	10.9	5.9	45.6	16.2	8.8	5.9	14.7	0.0	2.9		
	장애인	3.8	40.4	7.7	17.3	7.7	7.7	5.8	9.6	2.3	58.1	9.3	7.0	0.0	11.6	11.6	0.0		
	지역주민	14.0	23.3	9.3	16.3	14.0	11.6	4.7	7.0	10.3	51.3	12.8	7.7	2.6	5.1	5.1	5.1		
시설 형태	생활시설	0.0	22.7	18.2	9.1	13.6	4.5	13.6	18.2	4.3	30.4	21.7	4.3	4.3	8.7	8.7	17.4		
	이용시설	9.4	27.8	12.7	16.5	11.3	7.5	4.7	9.9	7.5	50.9	11.9	8.8	3.1	10.1	4.4	3.1		
	전체	8.5	27.4	13.2	15.8	11.5	7.3	5.6	10.7	7.1	48.4	13.2	8.2	3.3	9.9	4.9	4.9		

〈표7-54〉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8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자원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자원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지역	시 단위	9.3	18.7	11.1	20.4	15.6	7.6	3.6	13.8	3.6	7.1	6.5	11.9	45.2	6.5	3.0	16.1		
	군 단위	5.0	25.0	5.0	35.0	5.0	10.0	0.0	15.0	7.1	14.3	0.0	7.1	57.1	14.3	0.0	0.0		
대상자	아동청소년	11.6	16.3	7.0	16.3	14.0	9.3	9.3	16.3	3.3	3.3	13.3	10.0	40.0	6.7	6.7	16.7		
	노인	10.4	20.8	8.3	21.9	12.5	9.4	2.1	14.6	2.8	7.0	5.6	14.1	40.8	7.0	4.2	18.3		
	장애인	4.1	28.6	10.2	28.6	12.2	6.1	0.0	10.2	4.7	16.3	4.7	9.3	53.5	4.7	0.0	7.0		
시설	지역주민	8.8	10.5	17.5	19.3	21.1	5.3	3.5	14.0	5.3	2.6	2.6	10.5	52.6	10.5	0.0	15.8		
	생활시설	12.5	16.7	12.5	16.7	12.5	4.2	4.2	20.8	9.1	4.5	22.7	4.5	36.4	0.0	4.5	18.2		
	형태	이용시설	8.6	19.5	10.4	22.2	14.9	8.1	3.2	13.1	3.1	8.1	3.8	12.5	47.5	8.1	2.5	14.4	
	전체	9.0	19.2	10.6	21.6	14.7	7.8	3.3	13.9	3.8	7.7	6.0	11.5	46.2	7.1	2.7	14.8		

지역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서비스는 사례관리서비스가 2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여가문화서비스 19.2%, 자원(취업)연계서비스 14.7%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는 자원(취업)연계서비스가 46.2%로 필요성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리상담서비스 14.8%, 사례관리서비스 11.5%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자원(취업)연계서비스가 20.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례관리와 심리상담서비스가 각각 20.2%로 많았고 여가문화서비스 12.2%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7-55〉 복지시설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보호)	여가문화	보건의료	사례관리	자원(취업) 연계	방문상담	재활치료
지역	시 단위	8.8	13.0	6.0	18.6	20.0	13.0	0.9
	군 단위	0.0	4.3	0.0	34.8	26.1	4.3	4.3
대상자	아동청소년	11.1	8.9	6.7	13.3	13.3	20.0	2.2
	노인	6.7	11.1	6.7	22.2	21.1	8.9	1.1
	장애인	5.6	16.7	5.6	22.2	20.4	11.1	1.9
시설	지역주민	10.2	12.2	2.0	20.4	26.5	12.2	0.0
	생활시설	11.5	3.8	11.5	7.7	23.1	15.4	3.8
	형태	7.5	13.2	4.7	21.7	20.3	11.8	0.9
	전체	8.0	12.2	5.5	20.2	20.6	12.2	1.3
								20.2

8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

Jeonbuk Institute

-
1.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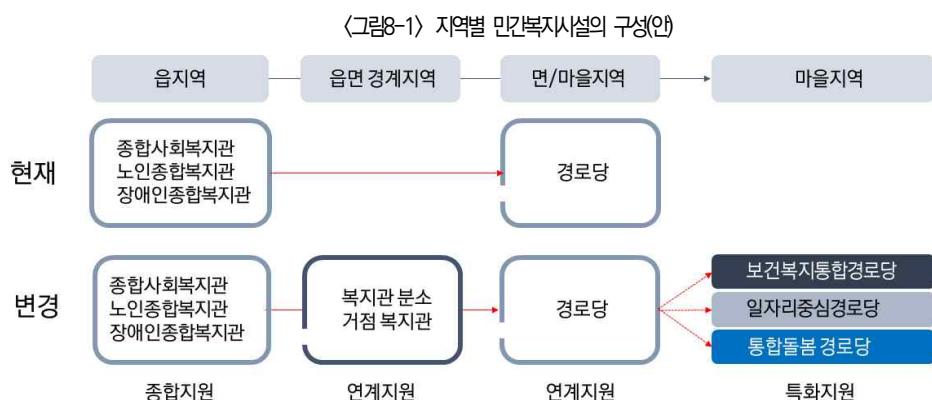
VIII.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

1.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가. 지역별 민간복지시설 공급형태의 차별화

전라북도의 민간복지시설은 무엇보다도 지역간 수요에 따른 공급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농촌지역은 현재 읍지역과 면지역 중심의 2단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읍지역과 읍면경제지역 그리고 마을지역 등으로 3단계로 보다 촘촘하게 시설의 공급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읍지역의 주요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분소 혹은 거점복지관을 읍면 경제지역에 최소 시군당 4개소~6개소를 설치하여 최소단위인 마을 혹은 면단위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읍면 경제지역의 복지관 분소 혹은 거점복지관은 전술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과의 사업연계를 위해 지역분소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최소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단위인 경로당과 연계하여 보다 촘촘하게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로당도 여가문화 중심의 단일 서비스보다는 고령회와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와상노인의 증가라고 하는 지역수요에 맞춰 보건복지, 일자리 그리고 돌봄으로 특화된 3가지 형태의 경로당으로 차별화하여 마을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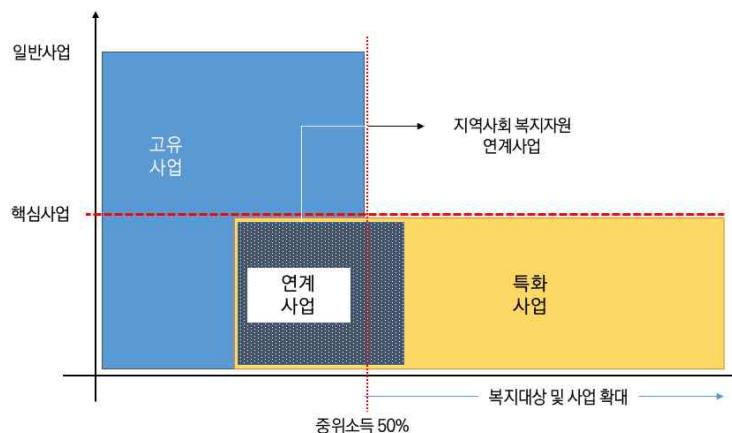
나. 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화와 복합화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시설의 유형별 고유사업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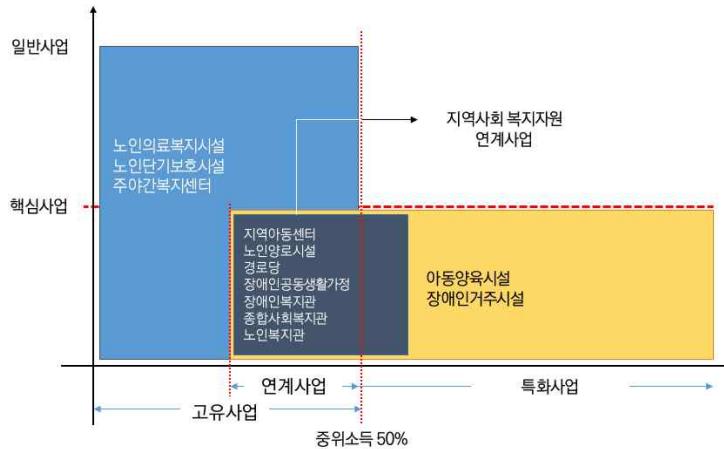
대체로 민간 복지시설의 주된 이용대상인 중위소득 50% 미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사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춰 중위소득 50% 이상의 대상자에게도 고유사업의 범위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풍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유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복지환경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특성화는 해당 복지시설의 고유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나 서비스의 범주내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각각의 시설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고유사업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고유사업은 해당 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고유사업의 정체성은 유지하된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유사업의 범주내에서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나 이용대상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향후 민간복지시설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림8-2〉 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복합화 방안



〈그림8-3〉 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복합화 방안



복지시설의 특성화와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복합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별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주야간 보호시설은 현재의 공급량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유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양로시설, 경로당,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연계사업 중심으로 복지시설의 기능을 재편하고,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특화사업 중심으로 복지시설의 운영형태를 재편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표8-1〉 복지시설의 유형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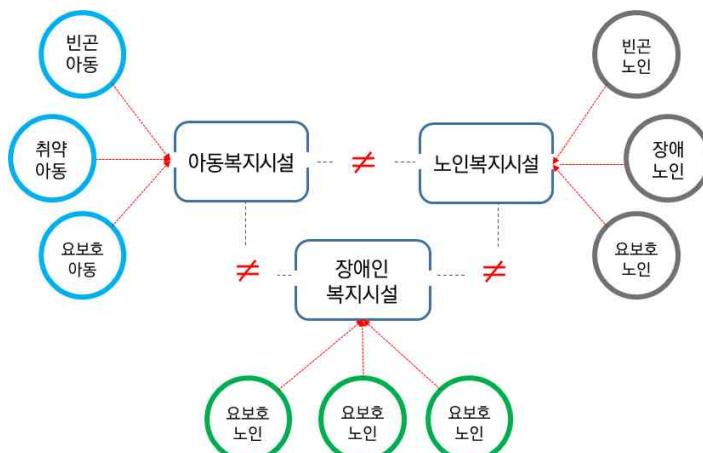
구분	돌봄 (보호)	여가 문화	보건 의료	사례 관리	지원연계 (취업 연계)	방문 상담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아동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27.0	10.4	20.3	11.7	3.2	5.0	1.8	20.7
	아동일시보호시설	31.5	8.9	10.8	15.8	3.0	4.4	1.0	24.6
	아동상담시설	12.0	4.3	8.7	30.3	2.9	9.1	3.8	28.8
	지역아동센터	21.2	23.6	8.2	18.3	4.3	8.2	1.9	14.4
	청소년수련시설	7.7	39.0	6.2	10.3	11.3	4.6	1.5	19.5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3.3	12.5	16.4	11.6	11.2	2.6	13.4	9.1
	장애인그룹홈	19.0	12.0	13.4	13.4	17.1	5.1	9.7	10.2
	장애인복지관	7.1	16.6	9.9	13.0	19.4	7.5	13.8	1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	6.0	5.5	11.6	40.2	6.0	16.1	11.6
노인복지 시설	노인양로시설	22.1	22.5	24.5	6.9	1.5	3.9	11.3	7.4
	노인요양시설	18.3	20.2	28.4	7.2	1.4	2.4	13.0	9.1
	노인자기복지시설	16.6	14.7	18.5	14.7	5.7	16.1	7.1	6.6
	노인종합복지관	8.5	27.4	13.2	15.8	11.5	7.3	5.6	10.7
지역복지 시설	경로당	7.1	48.4	13.2	8.2	3.3	9.9	4.9	4.9
	지역사회복지관	9.0	19.2	10.6	21.6	14.7	7.8	3.3	13.9
	지역자활센터	3.8	7.7	6.0	11.5	46.2	7.1	2.7	14.8
	다문화기초지원센터	8.0	12.2	5.5	20.2	20.6	12.2	1.3	20.2

다. 민간 복지기관 간 복지사업의 구조화와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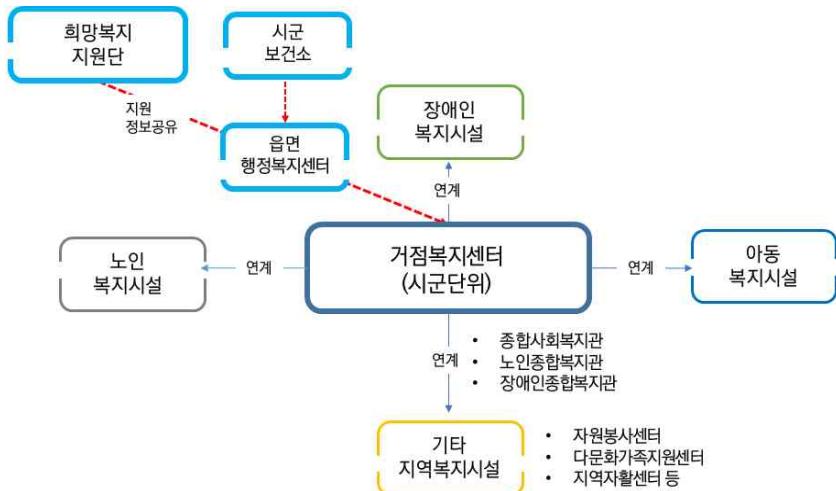
복지시설이 현재의 공급기반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복지시설의 공급 형태를 고려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간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형태와 공급기반으로는 이 같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민간복지시설들이 각각의 고유사업의 범위내에서 각자의 제공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시설들간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간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 민간의 복지시설들도 현재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낮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에서는 민간복지시설의 난립과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산발적인 제공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복지원되거나 특정대상에게만 복지서비스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복지시설들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복지시설의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8-4〉 현재 민간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형태



〈그림8-5〉 민간 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변경(안)



민간 복지기관들간의 연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시군단위에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거점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거점복지센터는 신규설치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한 개소를 거점복지센터로 지정하여 거점복지센터에서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점복지센터가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대상 사례관리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적합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복지센터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거점복지센터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거점복지센터는 민간의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고유업무 이외에도 시군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시군보건소 그리고 읍면단위의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례관리와 함께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다양한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 감소와 **요보호아동** 욕구를 반영한 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본연의 업무(고유업무)이외에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3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은 고유업무 이외에 아동가정지원, 아동주간보호,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 방과후 아동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과거의 집단적인 보호 및 생활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가정형 기숙사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설내에서 생활하는 입소현원이 정원의 50%미만에 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퇴소한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이 원활 시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동을 치유할 수 있는 보호치료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이 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우선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실무자 대상 조사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상담시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아동상담시설도 역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었다.

〈표8-2〉 아동양육시설과 통합 및 연계기능한 시설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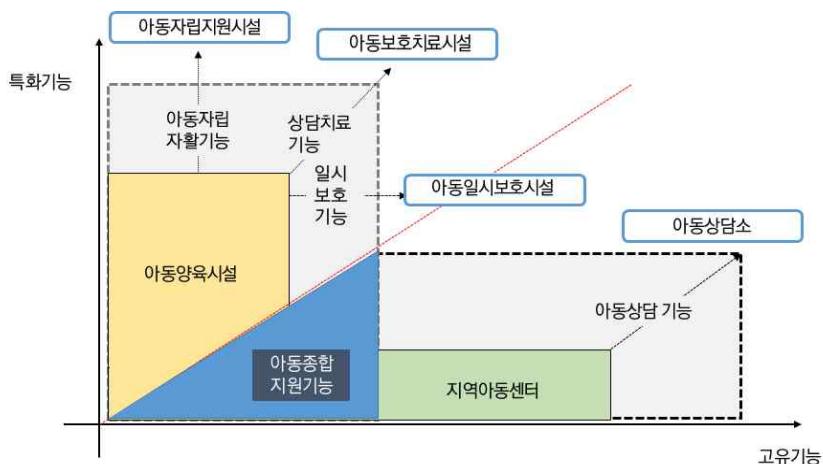
구분	아동 양육 (보호)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요양)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30.8	27.5		1.7	3.6	2.0	1.7	2.0	0.3	1.0	3.6	12.3	0.7	4.6	8.3
아동상담시설	30.0		31.1		0.8	1.6	0.8		1.2	1.6	0.8	2.3	14.0		4.7	10.9
지역아동센터	25.0	30.9				2.2	1.5	0.7	0.4	0.4	4.4	1.1	20.2	1.5	5.1	6.6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양육기능 및 상담기능에 더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현재 모든 시설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양육시설의 향후 추계에서도 향후 2030년까지 최소 1개소에서 2개소 정도는 공급과잉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거나 고유기능을 대폭 감소하고 아동자립기능과 상담치료기능 그리고 일시보호기능을 확대하여 일부 시설의 공간을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혹은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정원충족율이 50%에 불과한 2개소의 시설은 아동상담시설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수요의 증기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고유기능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제공하되 부가적인 특화기능으로서 아동상담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나홀로 아동의 확대, 그에 따른 방과후 돌봄수요의 증기로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 특히, 농촌지역은 읍면지역 중 지역아동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미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8-6〉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개편 방안



〈표8-3〉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정원총족률 현황)

구분	시설명	지역	2018년			2017년			2016년			조치
			정원	현원	총족율	정원	현원	총족율	정원	현원	총족율	
전체			877	680	77.54	877	696	79.36	892	735	82.40	
전주	양육 전주영아원	전주	39	36	92.31	39	35	89.74	39	25	64.10	
	양육 삼성휴먼빌	전주	45	40	88.89	45	40	88.89	52	32	61.54	
	양육 호성보육원	전주	80	56	70.00	80	59	73.75	58	43	74.14	
	전체		1041	812	75.67	1041	830	78.515	1041	835	63.71	
군산	양육 모세스영아원	군산	32	29	90.63	32	25	78.13	30	15	50.00	
	양육 일맥원	군산	80	58	72.50	80	58	72.50	56	37	66.07	기능확대
	양육 삼성애육원	군산	38	34	89.47	38	34	89.47	36	19	52.78	
	양육 구세군군산후생원	군산	54	38	70.37	54	41	75.93	43	22	51.16	기능확대
	전체		204	159	69.79	204	158	81.60	165	93	52.55	
익산	양육 기독삼애원	익산	50	47	94.00	50	49	98.00	58	31	53.45	
	양육 이리보육원	익산	54	49	90.74	54	44	81.48	52	25	48.08	
	양육 시문육아원	익산	54	44	81.48	54	44	81.48	46	29	63.04	
	전체		158	140	76.22	158	137	70.47	156	85	64.45	
정읍	양육 정읍애육원	정읍	80	57	71.25	80	60	75.0	62	30	48.39	기능확대
완주	양육 선덕보육원	완주	55	34	61.82	55	39	70.91	39	14	35.90	시설전환
고창	양육 고창행복원	고창	60	40	66.67	60	43	71.67	47	27	57.45	시설전환
	양육 요얼원	고창	56	44	78.57	56	45	80.36	48	30	62.50	기능확대
	전체		116	84	90.47	116	88	89.05	95	57	67.55	
고창	치료 희망샘학교	고창	70	61	87.14	70	66	94.29	70	52	74.29	
전주	자립 삼성자립 생활관	전주	30	13	43.33	30	14	46.67	30	17	5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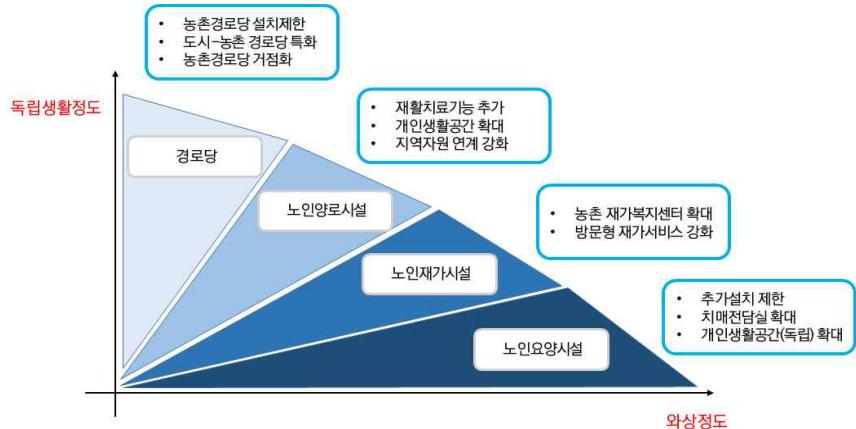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각연도) 재구성

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돌봄제공자의 유무에 따라 각 시설별로 추가적인 기능의 확대 혹은 시설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독립생활의 정도 그리고 외상의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각 유형에 따라 전라북도의 노인의 복지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라 운영과 기능을 차별화해야 한다.

경로당의 경우 도시경로당은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완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높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은 경로당의 추가설치를 제한하고, 도시지역은 경로당이 설치되지 못한 동지역은 신규설치 혹은 마을회관을 활용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의 제공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매우 높지만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로당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림8-7〉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선방향



또한, 노인양로시설은 현재 거동가능노인의 식사제공 등의 제한적 돌봄의 기능에서 벗어나 재활치료기능을 추가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다수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공간을 확대하여 노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노인재가복지시설도 방문형 재가보호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거동불편 노인 및 노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재가복지센터가 수요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돌봄중심의 재가복지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은 현재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추가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노인요양시설 내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치매전담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림8-8〉 경로당 시설 개선 방향 및 목표



〈그림8-9〉 경로당(마을회관) 운영계획

	현재	변경	
이용 대상	건강한 노인	건강한 노인	병약한 노인
시설 유형	여가 시설	돌봄 시설	일자리 지원시설
사업 내용	여가문화 program	주야간 돌봄	시니어 농장운영
		공동생활 가정	마을 보건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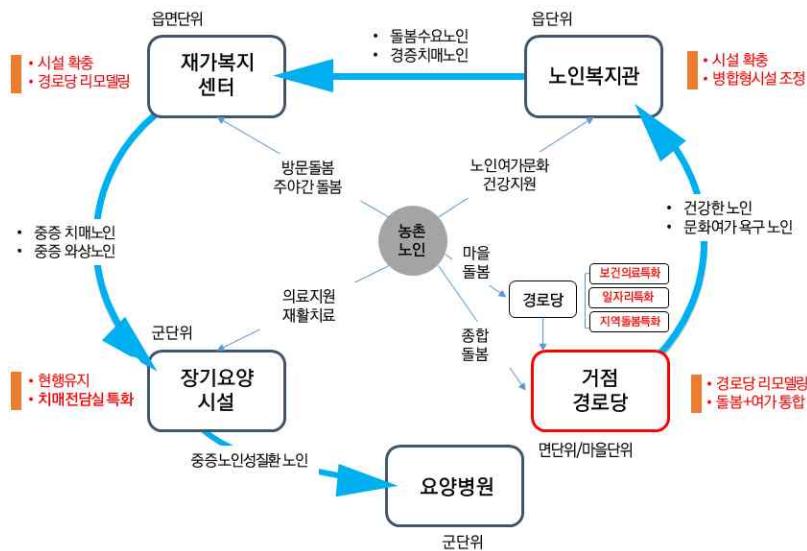
한편, 농촌지역은 현재의 경로당 설치개수가 수요대비 과잉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의 상당한 개편이 요구된다. 경로당의 시설개편은 거점경로당 조성을 통해서 단순한 여가중심의 시설을 보건의료, 일자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용대상도 건강한 노인에서 병약한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유형도 여가만이 아닌 돌봄, 일자리지원 그리고 공동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의 내용도 경로당은 주야간 돌봄, 노인일자리 제공,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가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경로당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재 경로당의 209개소는 일자리 경로당으로 특호하고, 약 774개소는 경증치매나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보건복지통합경로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림8-10〉 경로당 운영형태 개선방안



〈그림8-1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안)



전술한 노인복지시설의 공급형태에 따른 시설의 기능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형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거점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자익요양 시설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돌봄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은 현재 정원충족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이해 현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원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반해 현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개편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추정에서 전체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장애인 생활자는 2020년 1.8천명에서 2030년 1.9천명 정도 추정되고 있고,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정원이 2.0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치를 감안하더라도 2028년도 까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축소가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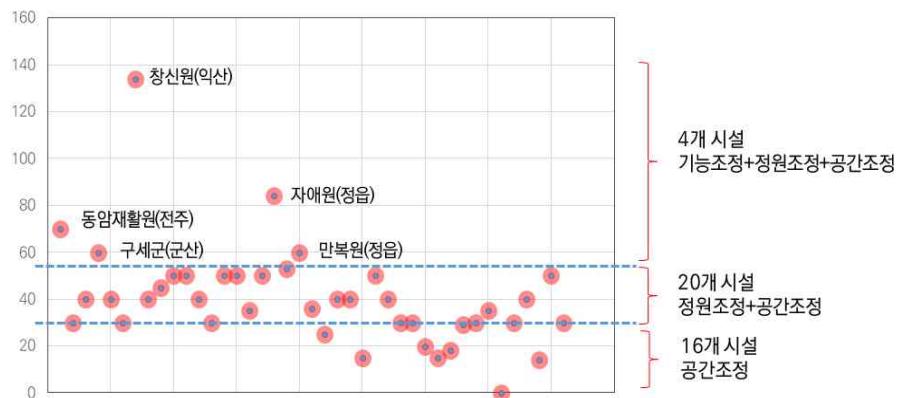
〈그림8-12〉 장애인 거주시설 수요공급 조정 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의 개편은 우선 1단계로 장애인거주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4개 시설에 대해서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그리고 공간조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30인 이하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30인 이하의 시설로 전환된 이후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개인별 주거공간의 확대 그리고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의 병합 등의 자립지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30인 이상 6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조정과 공간조정을 통해서 장애인 거주자의 타시설 자립을 유인해야 한다. 이들 시설도 정부가 정한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원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의 의무적 설치를 통한 자립준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림8-13〉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정원 기준 개선방향



〈표8-4〉 장애인 거주시설 조정 방안

개선방향	세부개선방향	시설수요(유류공간활용)
60인 이상시설	기능조정	장애인거주시설+자립생활체험홈
	정원조정	30인 이하 단계적 정원규모 축소
	공간조정	장애인 거주공간 UNIT 개편(거주공간 내 개별공간 마련)
30인~60인 미만시설	정원조정	30인 이하 단계적 정원규모 축소
	공간조정	장애인 거주공간 UNIT 개편(거주공간 내 개별공간 마련)
30인 이하 시설	공간조정	장애인 거주공간 UNIT 개편(거주공간 내 개별공간 마련)

현장실무자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시설은 주로 장애인그룹홈 등 소규모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용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모두 3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고, 이를 위해 거주시설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시설의 병합설치 그리고 정원조정을 통한 거주인원의 제한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8-5〉 장애인 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한 시설

구분	아동 양육 (보호)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요양)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지역 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4.2	1.1	0.4		33.7	27.3	22.0	3.0	1.1	0.4		2.3	3.4		1.1
장애인그룹홈	4.7	1.6	1.6	28.5		23.8	22.3	2.7	1.2	0.8	1.2	5.1	2.3	1.6	2.3
장애인복지관	0.8	2.4	2.4	18.8	23.3		27.8	1.6	2.0	2.9	0.8	9.0	4.9	2.0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	0.4	0.8	20.4	25.0	29.2		0.8	1.2	2.7	1.2	6.2	9.6	0.8	0.8

장애인거주시설은 탈시설 자립지원 강화라고 하는 정책동향에 맞춰 장애인자립을 위한 지원시설로 사업의 목표와 내용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그룹홈이나 장애인종합지원기능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9

장

요약 및 결론

IX. 요약 및 결론

현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총량기준 인구대비 시설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도내에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의 경우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생활시설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별로 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공급의 기반이 차이가 있다보니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지역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중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에 있어 지역 간 편차의 발생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의 정확한 수요에 기초한 공급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회복지시설 중 중앙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설치와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중단기 공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유형별로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술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로 복지시설의 적정규모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를 도출하고 각각의 변수의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전라북도의 조사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민간복지시설의 적정수요와 공급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 민간복지시설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간 수요에 따른 공급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농촌지역은 현재 읍지역과 면지역 중심의 2단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읍지역과 읍면경제지역 그리고 마을지역 등으로 3단계로 보다 춤촘하게 시설의 공급형태를 차별화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읍지역의 주요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분소 혹은 거점복지관을 읍면 경계지역에 최소 시군당 4개소~6개소를 설치하여 최소단위인 마을 혹은 면단위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복지시설의 유형별 고유사업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체로 민간 복지시설의 주된 이용대상인 중위소득 50%미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사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춰 중위소득 50% 이상의 대상자에게도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풍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군단위에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거점복지센터를 지정하여 민간 복지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해야 한다. 거점복지센터는 신규설치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한 개소를 거점복지센터로 지정하여 거점복지센터에서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점복지센터가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대상 사례관리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적합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복지센터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거점복지센터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미숙(2006), 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2차년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외(2012),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시설 중심으로
- 변용찬 외(1999),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19),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2002), 장기요양보호서비스대상 노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호(1999), 요양병원의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현숙 외(2005),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추계 분석, 한국보선산업진흥원
- 이중섭 외 (2014),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라북도
- 이중섭 외 (2018), 전라북도 복지욕구조사, 전북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8~2017), 장기요양보험통계
-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보건복지부(2010),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 보건복지부(2018),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2018), 노인복지시설 편람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복지시설 편람
- 보건복지부(2018),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의법안
- 보건복지부(1999-201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보고
- 보건복지부(2007~20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중앙치매센터(2016), 치매역학조사 보고서
- 통계청(2013~2016),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e-지방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장애인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www.ssis.or.kr

정책연구 2019-0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분석 및 지역화 방안 연구

발행인 | 김선기

발행일 | 2019년 5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59-2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